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648 1981년10월19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Monday, October 19,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OCT 21 1981

3명체포, 2억달러 마약압수

연방경찰 국제마약단 적발

바퀴벌레약 취급 임태호씨 관련혐의

토론토 교민사회에서 바퀴벌레약을 제조 판매하던 임태호씨(41)등을 포함한 3명이 14일 새벽3시경 국제마약단에 관련된 혐의로 연방경찰(RCMP)에 체포됐다.

경찰은 캐나다 사상 최대규모인 2억달러어치의 마약원료 메타퀄론을 증거로 압수하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임씨는 17일 2만달러, 토론토 공항의 자동차대여회사 리셉셔니스트인 로라·하이머스(21)양은 5백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임시로 풀려났으나, 미국인 닐·루이스(27)는 보석이 거부됐다.

경찰은 이들이 마약밀매모의혐의를 받고있다고 밝혔다.

2개월간 이 사건을 조사해온 경찰은 15일온타리오 콜링웃(Collingwood : 와사가·비치 옆 조지안·베이연안) 경비행장에서 총격전 끝에 밴트럭에 실은 마약원료 일부를 압수했으나 주범급 4명의 범인들은 대기중이던 쌍발 경비행기를 타고 도주, 16일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다.

네델란드및 미국등 국제경찰의 협조를 받은 연방경찰은 유럽을 거점, 미국과 캐나다에 판매 조직망을 가진 마약단들이

비행기를 산간벽지에서 불에 태워버렸을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루이스와 하이머스를 미시사가 자택에서, 임씨를 퀸·스트릿·이스트 자택에서 검거하는 즉시 유럽및 미국에 있는 17명의 공범체포 영장을 법원서 발부 받았다.

13일 밤10시께 7대의 위장차에 분승한 경찰은 미시사가에서 마약원료를 만재한 밴·트럭을 미행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트럭미행으로 좀더 많은 공범자의 신원과·조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만 기대했다. 공중에서는 2명의 경찰관을 태운 단발 세스나 경비행기가 지상의 11명 경찰관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트럭을 뒤따랐다.

밤12시 조금전 비행기는 급유를 위해 콜링웃비행장에 내렸다.

이때 경찰은 자기들이 조금전 미행하던 밴트럭이 비행장에 와있고 8인용 쌍발기가 엔진을 켜놓은 채 트럭옆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때 비행장은 이미 야간폐쇄되어 있을 때였다.

사복차림의 경찰은 트럭을 타고온 2명이 약20개의 상자를 비행키안의 2명 에게 넘겨주는 것을 보고 다가가자 이들은 직감적으로 눈치채고 비행기에 뛰어올라 이륙했다.

경찰이 비행기의 타이어를 향해 12발의 총을 발사하자 범인들은 3발을 응사하면서 도망쳤다.

두고간 트럭에는 4백파운드의 메타퀄론이 있었다. 메타퀄론으로는 「퀄루드」라는 이름의 마약을 만들어 1알에 3~10달러씩 불법판매한다.

75년 이민온 임씨는 오래동안 로스만담배회사의 세일즈맨을 하면서 바퀴벌레약 「JAP슈어킬러」를 상점을 통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팔았다.

3자녀를 둔 그는 최근 천주교회당 근처의 퀸·스트릿 - 이스트 지역에 식당을 구입, 식당업을 할 예정이었으나 여의치 않아 위층에서 살면서 아래층을 임대했다.

16일 임씨 주위인사들에 의하면 신앙이 독실한 임씨는 "전기제품을 한다"는 사람들에게 아래 식당을 세줬으며 이들이 밀가루 같은 물질이 든 푸대 운반이 잦자 임씨는 "먼지가 너무 심하니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불응하자 임씨는 바퀴벌레약을 만들던 이토비콕 창고를 대신 내주었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우리는 비타민을 만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16일 낮12시 본보의 전화를 받은 임씨 장모는 "사위는 아침에 나간후 안돌아 왔다. 화장품 약으로 무슨 물건을 빌려준 모양인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임씨의 혐의사실이 사실로 판명, 유죄판결을 받으면 이번사건은 작년여름 버스표 위조사건 이후 최대의 교포관련 범죄사건이된다.

◇캐나다사상 최대의 마약사건 전모를 발표하는 수사관들. 완편에 압수된 마약원료가 들은 비닐백이 있다. 왼쪽부터 연방경찰 놈·하비-매킨 경위, 마이크·처크 미국마약단속관, 세프린·긴터 연방경찰 마약전담반국장

◇이웃 비비넥씨가 임태호씨 창고 밖에 널려진 바퀴약 병을 줏고 있다.

◇로라·하이머스양

이웃사람들 영문 몰라
2주전부터 경찰차 감시

토론토서부 미미코(Mimico)지역 버킹햄·스트릿에 있는 임씨의 창고의 이웃들은 2주전부터 경찰의 위장밴트럭들이 창고 건너에 주차해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경찰은 트럭안과 창고창문에 카메라를 장치했다.

"우리는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우리는 창고주인이 콘테이너의 짐을 내리기 위해 10여명정도의 사람을 데려오기까지는 조그만 가정사업 인줄로만 생각했다"고 이웃서 간판칠을 하는 항크·비베넥씨는 말했다.

약 4일후 임대차 사인이 붙은 밴트럭이 창고에 와서 무엇인가를 서너번 재빨리 실어 날랐다. 경찰은 이들이 마약을 미시사가 아파트로 실어 나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다녀간 후 창고 밖에는 수십개의 바퀴약 빈병이 널려 있었고 안에는 큰 살충제푸대도 볼 수 있었다.

비베넥은 그 창고에서 1명의 남자와 60대로 생각되는 늙은 부부가 대부분 시간을 일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톱·크래스급 마약단
네델란드서 정보제공

콜링웃 공항에서 총격전을 벌인후 도망간 마약밀매단은 국제마약 조직중에서도 톱크래스의 밀매단으로 알려졌다.

미국마약단속국관계자에 의하면 이들이 동원한「파이퍼·나바조」쌍발기는 마약밀수에 가장 많이 쓰이는 기종이다.

이 경비행기는 레이다망을 피해 지상9~2미터 상공으로 날 수 있다.

최고시속 320km이상이므로 토론토에서 미국국경까지 10분이면 도달한다.

이 비행기는 밀매단이미국서 임대한 것이다.

이번사건 수사의 발단은 지난 8월 네델란드의 로텔담에서 메타퀄론을 포함한 대형화물이 배편으로 캐나다로 향했다는 네델란드경찰의 정보였다.

연방경찰은 이 화물이몬트리얼을 거쳐 토론토가최종 기착지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용히 수사를 진행하다 콜링웃공항에서 뜻밖에 총격전을 가진 것이다.

오늘 신문
주간한국 포함
12면 발행

사냥클럽 조직
사격대회 겸해

한인사격협회(회장 백경락)는 제4회 창설기념 사격선수권대회를 10월 24일(토)상오 10시 토론토 건클럽에서 실시한다.

단체전 개인전 주니어부로 나누어 거행되는 이 대회는 상품외에 경품도 준비되어 있으며, 참가비는실탄, 만찬포함 개인$35, 주니어$20이다.

한편 사격협회는 사격대회가 끝나는대로 당일 현장에서「사냥클럽」을 조직할 예정이다.

이날 총이없는 참가자를 위해 사협은 총을빌려준다.

◁금주의 행사▷

(10월19일~25일)

◇10월22일(목)~12월17일 : 성탄준비 사교댄스 강습
곳 : Trinity연합교회
연락처 : 922-8435

◇10월23일(금)하오7시 문인협회 월례회
곳 : 30 Kootevay Cres(스카보로)
연락처 : 261-2102(이태준)

◇10월23~25일온타리오주, 쾌백주 대회
와이즈맨즈클럽
곳 : 나이아가라 파크·모터호텔

◇10월24일(토)상오10시 사격협회 사격대회
곳 : 토론토 건클럽
연락처 : 757-1097, 755-7635

◇10월24일(토)상오12시(예선), 하오7시(결선)
제5회 CAN-AM 태권도 선수권 대회
곳 : University of Western Ont. (Thames Hall)
연락처 : (519)433-3626

◇10월25일(일) 2시를 기해 섬머타임 해제

한국대표등 참가
세계 약 연합회총회

(오타와 이태은지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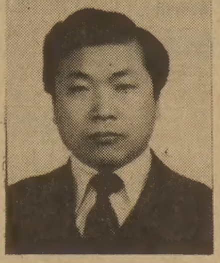
11일부터 14일까지 오타와에서 열린 세계일반대중약연합회 총회에 한국의 보건사회부 김상현 약무제도과장및 15개 제약회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26개국이 참석한 이번회의에서 북남미주, 유럽주, 아시아주들은 일반약품및 항생제 의약품 제조판매에 있어 제도적으로 균형을맞추기로 합의했다.

김한국대표 단장은 국민들이 의사처방 없이 항생제등을 약국에서 쉽게 구할수 있어 부작용이 발생한다는점, 의사나 약사가 너무 자기들 영업에만 집착한다는 점등을 발표했다.

헨리·먼로 미국대표는한국, 인도, 멕시코등 나라들은 약품판매에 자제해야하며, 대신 미주지역은 엄격한 규제를 다소 완화, 국민들이 간단한 약품은 처방없이도 살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죠프리·아이작 캐나다대표는 캐나다 의사들은너무 고집과 위신을 내세워 약제사의 조제를 금지, 국민들은 사소한 병이나도의사를 찾아가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상현 한국대표단장

섬머타임 해제
10월25일 새벽2시

4월 하순부터 시작된 섬머타임이 오는 25일 새벽2시를 기해 해제된다.

이에따라 시각은 1 시간 뒤로 돌아가 새벽2시는 새벽1시가 된다.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식 자 부 장 : 박 부 용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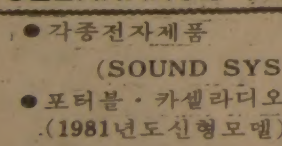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보석상
ROLEX
가장 믿고 살 수 있는
「로렉스지정판매 대리점」
(B) 534-9977, (R) 424-2599
635 BLOOR ST. W.
(한국관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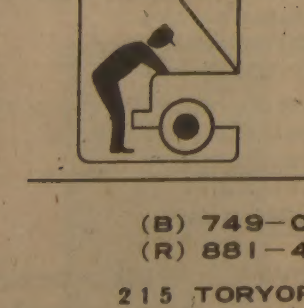
킴스 카메라
및 트로피
Kim's Camera & Sound



CLEARANCE SALE
● 각종전자제품
(SOUND SYSTEM)
● 포터블·카셀라디오
(1981년도신형모델)

대표 : 김 춘 탁
619 BLOOR ST. W.
B) 534-1085
R) 244-9073

NORTH YORK AUTO BODY
20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 사고차량 완전수리
● 페인팅(oven baked finish)
● 수리중 차량대여
●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Oven Baked Finish
교포우대

(B) 749-0555
(R) 881-4053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송 대 헌

WANIN TAEKWON-DO
THE LEADING STYLE IN THE ART AND SCIENCE OF TAEKWON-DO
완인태권도
完人路拳道
무도진수와 지도권위로
1. 고상한 인격도야와 신체단련을 시킨다
2. 강한 개성의 확립과 신념의 인간을 만든다
3. 위기를 무난으로 피하는 자기능력을 키워준다
4. 문제아 선도및 학업능율을 향상시킨다
※한국인 자녀를 특별할인우대·한국인사범 직접지도
KYONG LEE TAEKWON-DO CENTRE
H.Q.: 615 YONGE ST., at Isabella, Toronto (416) 929-5511
NORTH: 2281 YONGE ST., at Eglinton, Toronto (416) 483-4002
EAST: 1865 LAWRENCE AVE. E. at Pharmacy, Scar (416) 759-2500
OVER ALL CALL (416) 962-3000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NS5

캐나다! 풍요와 자유의 나라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도 가져

캐나다는 풍요한 나라이다.

물질적인 수준에서볼 때 전국곳곳을 자유롭게 자동차여행 할수 있다는 것은 세계의 대부분 사람들이가질수 없는 특권이다. 캐네디안은 3사람당 1대의차를 소유하고 있어 미국, 호주와 더불어 인구당 차 소유비율이 가장 높은나라의하나다.

개스값은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의3분의1이며, 이웃미국의 4분의3밖에 안된다.

추수감사절 터키 공급량도 세계어느나라보다 많은 것이 월내에 밝혀질 것이다. 고기값도 세계 어느나라보다 싸서 예를들어, 가까운 수퍼마켓에서 산 스테이크값은 스위스보다 6분의1, 일본도꾜의 10분의1선이다.

많은 캐네디안들이 높은줄 모르고 올라가는 모기지 이자율 때문에 곤란을 겪고있으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주택사정이 좋은나라중의 하나에서 살고 있다는것을 기억해야 한다.

스위스 연합은행이 작년도 세계각국의 생활비를조사한 결과, 시내소재 방3개의 아파트를 토론토에서는 월340달러에 렌트할수 있는 반면 취리히 540달러, 뉴욕 1000달러, 도꾜 1,380달러, 홍콩은 무려 2,060달러였다.

스토브, 냉장고, 세탁기, 칼라TV및 진공소제기로 구성된 가정용품비는 토론토의 경우 2343달러로조사된 45개 도시들의 평균 2,500달러에도 못미친다.

전 토론토는 물가면에서 볼때 45개도시중 34번째로 낮은 도시이다.

임금과 관련된 구매력을 살펴보면 시카고가 제일높고, 토론토는 8번째로 상당히 높다.

헌법개정소요, 인플레이션, 에너지정책 시비들로캐네디언들에겐 논쟁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3주일전 몬트리얼에 정박중인 배에서 탈출, 망명을 신청한 54명의 폴랜드사람들과 난민으로 캐나다 입국을 시도한 인도 시크족들을 볼때 왜 그들이 이곳에 오고싶어 하는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캐나다는 세계적 수준으로 볼 때 아직도 스퀘어킬로미터당 2명이 거주하는 인구밀도가 아주 희박한나라이며, 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가장 풍부한 광물과 에너지자원국중의 하나다.

TV세트는 4명당 1대, 전화 3명당 2대, 혹은 수세식변소 3명당1개인 캐나다는 세계에서 축복받은 나라중의 하나다.

이자율과 주식가격에 대한 어두운 소식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식이 나쁘지만은 않다. 에너지 가격에 대한 오타와와 알버타간의 협정은 상당히 밝은 경제전망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내년여름 농작물의풍작으로 농업경영가들의 주머니가 두둑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사의 이유는 물질적인것을넘어서 있다. 안전하게 시내거리를 활보할수 있는자유와, 공포나 보복없이 정부를 비판할수 있다는 자신감.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할 조건이 아닌가?

어느종교를 가지든,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키든, 하고싶은 곳에서 일하고, 노력에 따라 성공하는 자유가 있는곳이 캐나다이다.

캐나다의 장래는 거대한 도시들, 알버타의 광활한유전, 뉴펀드랜드의 황금어장과 휴론호에 장래의 우주시대를 대비해 세워질 거대한 브루스·핵·프로젝트등 이밖에 많은것들에 달려있다.

그러나 이 모든것들의근원을 살펴보기 위해

사람들은 과거를 살펴볼수있는 파이어니어·빌리지(Pioneer Village), 어퍼·캐나다·빌리지(Upper Canada Village)등 기업정신이 시작된 수많은 조그마한 타운들로 갈 것이다.

그들은 호박밭에서, 빨간줄이있는 메이플리프의 기적에서, 음식으로 가득찬식탁에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가족의 가치를 확인하는자리에서, 용감한 캐나다를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감사기도를 올릴 것이다.

이사 하셨읍니까?
●주소변경을 잊지 마십시오.
독자번호와 새주소를 곧 알려주세요.
한국일보 독자부
☎533-2361

블루제이스 새감독 맞아

사상최연소의 보비콕스

◇블루제이스 신감독 보비·콕스

81년시즌을 또 다시 최하위로 끝낸 블루제이스는 전 애틀랜타·브레이스감독 보비·콕스를 새 감독으로 맞아 82년 진용정비를 서둘렀다.

15일상오11시 익스비션스타디엄에서 기자회견 을 가진 블루제이스 팻트·길릭 부사장은"보비·콕스 는 선수들의 감독이다. 그는 바른 신념을 갖고 선수 들을 지휘할 것이며, 선수들의 신뢰를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82년 시즌부터 블루제이스를 지휘하게될 보비·콕스는 지난 78~81년까지아틀랜타·브레이스 감독으로 재임중 브레이스를 개선, 정비하여 내셔널·리그 동부조 4위까지 끌어 올렸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41년생인 보비·콕스는 77년까지 양키스의 1루코치와 팜팀(마이너리그팀)감독을 6년간 역임, 여러번 팀을 우승시켰다.

콕스감독은 선수생활로 LA다저스 마이너리그, 애틀랜타, 뉴욕양키스 등에서 내야수로 활약했다.

구단 행정가로 물러앉은 보비·매트윅감독은"콕스야말로 블루제이스의 적격자 이다"고 덧붙였다.

블루제이 관례대로 1년 계약을 맺은 콕스감독은창단 6년째인 블루제이의 3번째 감독이며, 블루제이사상 최연소 감독이 되었다.

몬트리얼 한인학교 학생들 발표회 가져

몬트리얼 한인학교(교장 정영섭)는 지난 3일 동교가 쓰고있는 마리아마폴리스대학 강당에서 외국인과 교민 약 200명이 모인가운데 한국인 학생들의 발표회를 가졌다.

11시 정교장은 한인학교 학생과 부형들에게 한국말 인사후 유창한 불어와 영어로 다시 인사했으며, 김창훈 총영사는 불어로 한글을 소개했다.

이어 존·리군의 사회로 고전무용, 합창, 피아노 독주, 태권도 시범등이 있었다. 무용지도에 이채화씨, 음악지도에는 방혜경씨였다.

끝으로 브룸필드박사(전한국 명예총영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정교장은 학교선생들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학부모들이 마련한 오찬을 나누었다.

이날 행사는 지난 6일TV CH.25를 통해 1시간30분에걸쳐 상영됐으며, CH9에서도 방영할 예정이다.

평통위원들 간담회

김차장 맞아 의견교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김상구 사무차장이 지역협의회 발족 협의차 토론토를 방문, 15일낮 2시30분부터 토론토총영사관에서 온타리오및 퀘벡지역 자문위원 8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차장은 통일정책에 대한 정부의 방침과 최근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통일자문회의 운영의 주무담당자인 김차장은 북한측이 교민들을 이용, 선전을 일삼는다고 경고하고, 일부교민들이 현싯점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통일의 시기를 더 늦추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 간담회에는 캐나다지역 위원 12명중 8명과 이상훈 총영사등 영사관 직원이 참석했다.

이날밤 총영사 관저에서 열린 리셉션에서 김차장은 북한을 방문했던 교포라도 한국을 보고 싶다면 자문위원들이 적극 협조해 주겠다고 말했다.

김차장은 또 교포중 거주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도 지역사회와의 관계를고려, 명예자문위원이 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리셉션에는 박인순 한인회장, 고종옥 신부, 전택균 전 한인회장도 참석했다.

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에게 통일정책에 관한 제반 자문및 건의, 연구, 평화통일을 위한 국내외 홍보및 국제협력 교류등을 목적으로한 기구로 통일원장관(현 이범석)이 사무총장이며 위원은 6월5일 현재 8,919명이다. 이중 해외교포 위원은 385명이다.

캐나다 위원은 다음과 같다.

박부용(회사원 : 토론토), 최충식(철도청 근무 : 토론토), 장근원(사업 : 해밀튼), 조성학(상업 : 해밀톤), 정일송(회사원 : 런던), 오유식(사업 : 런던), 백기순(사업 : 퀘벡), 방용성(천주교사목위원 대표 : 몬트리얼), 최경호(식품상 : 에드몬톤), 이유성(상업 : 뱅쿠버), 김형회(치과의사 : B.C.), 김경환(상업 : B.C.) 이상 12명이다.

◇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구차장, 오유식·조성학·정일송·박부용위원.

무바랙, 이집트대통령 취임

14일국민투표서 98.46% 의압도적 지지

취임사 통해 사다트로선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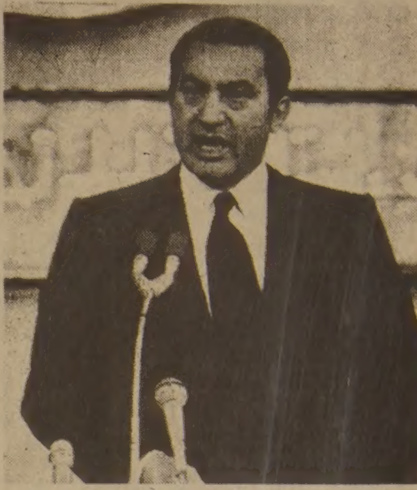
무바랙이집트부통령(53)은 14일 고사다트대통령의 뒤를 이어 이집트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무바랙신임대통령은 국민투표에서 98.46%의 지지를 받았다.

무바랙대통령은 이날 낮12시19분(현지시간) 이집트 상·하의원들 앞에서 취임사를 통해 사다트대통령은 증오로 가득찬 암흑의 역사를 사랑의 빛이 충만한 것으로, 전쟁의 저주를 평화의 축복으로, 바꿔놓은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찬양하고 사다트가 설정한 이스라엘과의 영구적 평화추구목표를 계속해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6년임기로 무한정 대통령직에 출마할 수 있는 무바랙대통령은 또 이집트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자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야망에 현혹되어 반역적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은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바랙대통령은 이집트의 제4대대통령으로 1천2백만 유권자중 찬9백56만7천5백4표 반14만9천6백50표로 선출됐다.

한편 「알·악사」라고 자칭하는 단체는 14일 키프로스에서 성명을 발표, 사다트암살은 이단체의 행위라고 주장하고 무바랙대통령이 사다트대통령의 정책을 고수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다트의 후계자—이집트 제4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호스니·무바랙대통령이 14일 국민의회 의상에서 취임연설을 하고 있다. 그는 사다트대통령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눈물을 흘렸다.

교민동정

◆김유수(댄스교사)=오는 22일(목)부터 12월17 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7:30~10:30) 성탄준비를 위한 사교댄스 강습을 실시한다. 곳은 블루어× 스파다이나의 Trinity연합교회(427 Bloor St. W.), 연락처 922-8435, 366-4728 (저녁)

여러분들과 더불어 성장하는

주식회사 신의상사

교민 소매업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으로 여러분들과 더불어 날로 성장하는 폐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또다시 특별할인 대매출 하오니 많은 이용있으시기 바랍니다.

기간 : 1981년10월21일~11월4일까지

	REG.	SPEC.
ROWNTREE AERO PLAIN	10.89	7.99
ROWNTREE PREPACK KING SIZE(10×24's)	96.90	89.90
(COFFEE CRISP③, AERO③, KITKAT②, SMARTIES②, YORKIE②)		
HERSEY PRODUCT CHOCO	10.89	10.39
(HERSEY ALMOND, MILKCHOCO, RIESES PIESES, PNB C)		
NEILSON 5Lb CHUNK	12.89	10.89
NEILSON PRODUCTS CHOCO	10.89	10.39
TOOTSIE POP DROP 20¢×48's	6.59	4.59
TOOTSIE ROLL 20¢×48's	6.59	4.39
TOOTSIE POP 5¢×100's	3.79	3.39
RANG DEAL(6 BOXES)	26.00	20.00
VICKS COUGH DROP DEAL(6 BOXES)	30.90	28.95
VICTOR'S COUGH DROP DEAL(4 BOXES)	20.60	18.95
HALL'S DEAL(6 BOXES+10 ROLLFREE)	36.05	33.95
HUBA BABA DEAL(4 BOXES)	19.56	16.95
CANADA DRY PRODUCTS(ICETEA제외)	6.59	5.99
WILSON 〃 〃	6.59	5.99
COKE 〃 〃	6.89	6.39
7 UP 〃 〃	7.59	6.69
SUNPAK 〃 〃 (GRAPEFRUT제외)	8.69	7.99
ROYAL TOILET TISSUE(24×2's)	21.90	16.59
DELSEY 〃 〃 (24×2's)	21.90	16.89
ROYAL PAPER TOWEL(18×2's)	27.95	23.88
KLEENEX 〃 〃 (18×2's)	27.95	23.88
〃 HIDRY TOWEL(24×1's)	20.95	16.95

	REG.	SPEC.
KLEENEX FACIAL TISSUE 36's×200PLY	33.95	31.95
〃 〃 72's×200PLY	35.95	31.95
〃 POKET TISSUE	16.50	15.00
NEW FREEDOM MINI REG. SUPER(24×10's)	20.99	18.39
〃 MAXI REG. SUPER(24×12's)	30.39	25.94
KOTEX REG. SUPER (24×12's)	29.85	27.59
PLAYTEX TAMPON(DEOD) REG. SUPER. SUPERPLUS(24×16's)	49.19	
〃 〃 NON DEOD 〃 (24×16's)	43.89	39.55
PLAYTEX MINI PAD DEOD(24×10's)	22.20	19.98
〃 〃 NON DEOD(24×10's)	20.95	18.85
BOOK MATCHES	16.95	14.95
JOHNSON JOHNSON BABYOIL 125ml	19.80	18.00
ASPIRIN(24×12's)		9.39
ASPIRIN(12×24's)		7.39
ASPIRIN(12×48's)		9.89
LIFE SAVER CANDY(ALL FLAVOUR)	4.80	4.59
BREATH SAVER	2.89	2.59
BUBBLE YUM	3.95	3.59
CAREFREE	3.95	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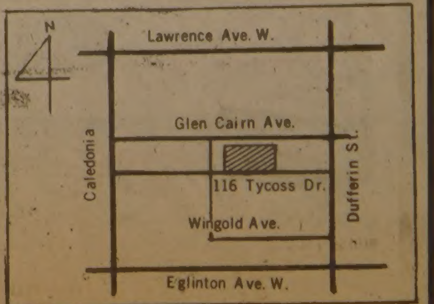
직원채용 :

DRIVER : DRIVING RECORD가 좋은 분으로 VAN TRUCK을 운전할수 있는분 약간명.

WAREHOUSE HELPER : RETAIL에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 신체건강한 분 약간명

주식회사 신의상사
SINCERE TRADING CO. LTD.
116 TYCOS DR. TORONTO,

(대표전화)
전화 : 789-7544 〃 -7545 789-7546 〃 -7547



<웅변대회>

왜 한국말이 중요한가

김 남 희(한맘한글학교 중학반)

여러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형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왜 한국말이 중요한가?"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말이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읍니다. 우리 조상이 한국인이요, 내 부모 친척이 한국인이요, 나도 한국사람이며, 내 조국은 대한민국이기때문입니다.

만장하신 교포 여러분! 우리나라 한글은 지금부터 500여년전에 세종대왕께서 만드셨으며, 닿소리 14자와 홑소리 10자로서 못다할말 없으며,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하며, 소리글자임을 자랑합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반포하시면서 첫머리에 "많은 대중은 이글을 쉽게 배워 생활에 편리하게 이용하라"는 내용을 밝혔으니 대중을 위한 한글, 우리말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겠읍니다.

여러분…또한 한글은 세계에서 뛰어난 좋은글로서 못내는소리, 못적는 말이없으며, 우리는 한국의 자녀들이기에 어느나라에 가든지 우리말을 귀중히 여깁시다.

여러분!

우리부모는 우리들 에게 이렇게 말씀해준 기억이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36년동안 일본사람들에게 짓밟혀 왔으며, 결국은 우리말조차 쓰지못하게 하고, 일본나라말을 학교에서도 가르쳤다는데, 그때 우리조상들은얼마나 답답했겠읍니까!

이러던 후 해방이 되자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쳤으며, 그때 독립만세를우리말로 힘껏 외쳤을때, 우리나라말이 얼마나 중요하였겠읍니까.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나는 한인회관 도서실에 있는「유관순」책을 분명히 읽었읍니다.

유관순 언니는 독립운동을 위하여 갖은 고생은 물론 목숨마저 잃었지 않았읍니까?

우리 어린이는 조국 대한민국을 잊지 말고 우리나라말을 중요하게 여깁시다.

외국에서 오래살거나, 외국말을 잘한다 해서 그나라 사람들과 같아지는것이 아니며, 이곳 캐나다에서오래살고, 시민권을 가졌다해서 캐네디안같이 되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식구도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분명히 한국인이요, 대한의 자손들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한글을 배워야하고 한국말을 잘 함으로써 우리나라말을 존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찌기 단군의자손으로서 피부가 다르고, 머리, 눈, 코 할것없이 다르며, 내 조국 대한민국이 있으니 우리말을 잘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겠읍니다.

친애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튼튼한 몸으로집에서나 한글학교에서 열심히 한글을 배워 우리나라말을 잘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더버드"한국생산 57년모델 현대에서

(서울 =연합)한국유수의 자동차산업회사「현대자동차」는 미국 포드자동차 회사와 57년모델 "선더버드"(Thunder Bird)를 한국에서 조립 미국시장에전량 수출한다는 조건의 협정을 하고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술제휴를 맺고있는 포드에 의해 이와같은 클래식 승용차가 개발됐다.

한국 경제소식통에 의하면 이런모델은 아직도 많은 미국인들에게 애호를받고있으며 이 모델의 연간수요는 10만대가 넘을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중요자동차 부속품들은 미국에서 가져오며 50%에 해당되는 나머지 부품들은 국산으로 대치된다.

현대는 년간 5천~7천대를 미국시장에 수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d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 533-2361~4

광고는 사업을 번창시킵니다
문의처
본 사 광고국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실협, 현상문에 시상식 창작노고를 상찬

한인실업인협회(회장 이형인)가 현상금을 걸고 공모한 제1회 문예작품 입상자에대한 시상식이 지난15일 토론토한인회관내 동회사무실에서 거행됐다.

김명정부회장 사회로 시작된 시상식은 이형인회장의 개회사, 이석현심사위원장의 심사평겸 격려사에이어 시상에 들어갔다.

1~3등에게는 상패와 금일봉, 가작에게는 상패가수여됐다.

1등의 원옥재 여사(수기「골핑 위도우」—골프과부)에게는 이형인 회장이, 2등 김영희 여사(수기「이민, 구멍가게, 그리고 조그만 나」)에게는 김태진 이사장이, 3등의 신숭숙 여사(수기「자화상」)에게는 임철원 부회장이 각각 시상했다. 가작의 이혜숙, 이명숙 양씨는 이날 시상식에 불참, 훗날 전달키로 했다.

◇ 이회장이 원옥재씨에게 시상하고있다.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78)

팔리·모왓 원작, 원재훈 옮김

밤중이라도 까마귀의 목소리를 잘 듣고, 지시하는대로 따라 해야 한다."

헤콰우가 말을 끝맺았으나 벨리카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파카에 매맨 작은 주머니를 의식했고, 무서워졌다.

그날 저녁 늦게 세사람이 꺼져가는 불옆에 새 사슴가죽을 덮고 누웠을 때, 벨리카리는 아버지 옆으로 바짝 비비고 들어갔다. 그때 산에서 북극 여우가 짖는 소리가 나면서 공중으로부터 까마귀 우는 소리를 듣고 벨리카리는 심장이 터질 것같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이이야기의 첫번날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일이 있은 한참 후에 눈이 오고, 사람이 살고 있는 이 강 주위가 흰 눈으로 묻혀버렸다.

사슴은 남쪽으로 사라졌고, 헤콰우와 그의 가족은 오텍·레이크에 있는 가죽텐트를 버리고, 알렉 카하우가 겨울캠프를 갖고 있는 호숫가에 이글루를 지었다. 눈은 더욱 깊이 쌓이고, 추위는 점점 날카로와졌다.

그런데 어느날 이웃에 있는 알렉카하우(절름발이)가 북쪽강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기 위해가족과함께 떠났다. 2틀째의 이야기는 이들이 여행하는도중에 일어난 일이다.

짧은 겨울날은 이미 반나절이 지났고, 알렉카하우는 급히 길을 재촉했다. 그는 쉴새없이 채찍을 휘둘러 개들을 몰았고, 채찍끝에 매는 늑대의 꼬리뼈가 조용한 공중에 크게 소리를 냈다.

개들은 온힘을 다해 20피트나 되는 썰매인 코마틱을 앞으로 끌고 가다가 시커먼 바위가 솟아나온곳을 넘어가다가 밑에눈이찬뜩 쌓인 작은 골짜기로 빠져버리고 말았다.

알렉카하우의 부인 칼룩은 6살 먹은 딸 카우룩과 세살먹은 아들 켈라하룩은 썰매에 앉아 있었다.

알렉카하우는 언덕을 올라갈 때는 개들 옆에서 뛰었지만 언덕밑으로 내려갈때는 썰매에 올라탔다. 그는 옛날 사향소를 잡다가 뿔에 받혀 한 다리를 절름거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잘 뛰지를 못했다.

썰매가 골짜기 밑으로내려가자, 개들은 꼬리를 말아올리고 도망치려고 안간힘을 다했다. 눈은 도로포장처럼 얼어붙었고, 바람은 한점도 없었다. 팬단트처럼 하늘의 가장자리에 걸려있는 해는 그날 제일 높이 떠있었지만 불처럼 차겁게 하늘에 박혀 있었다.

썰매를 덮은 털가죽 속의 여인은 마치 죽어있는 물건처럼 꼼짝도 안하고 앉아있을 수 밖에 없었는데, 혹심한 추위로부터 자기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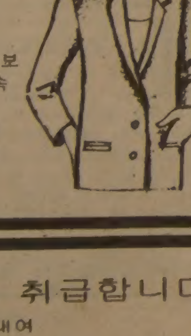
멀리 앞에 보이는 골짜기로부터 불화음의 개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알렉카하우의 개들은 전속력으로 달렸고, 그도 뛰는 개 옆에서 절름발 걸음으로기를 써 뛰어가면서 그의 목청을 다해 울부짖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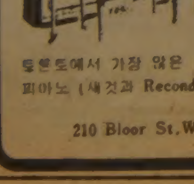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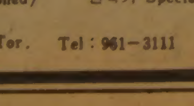
"아이야! 동네사람들이여, 우리를 구해주시요!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산너머에 왔읍니다"

그러자 세개의 이글루로부터 사람들이 얇은 햇빛 속으로 기어나와서 손을흔들고 반갑게 소리질러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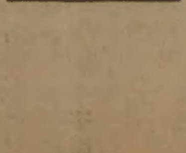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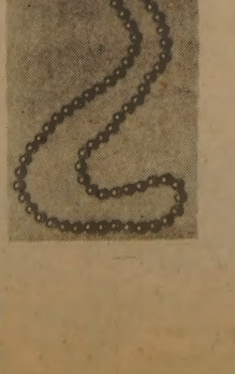
(계속)

◇정다운 부부—헐리웃 난장이 배우 허브·빌레이스(판타지 아일랜드의 조연배우)가 지난주말 부인 [illegible]과함께 런던에 나타났다. 허브의 키는 1미터19센티, 부인의 키는 1미터73센티이다.〈런던—AP〉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메이커
숙녀복(size 5~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드림.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706BLOOR ST·W
☎:534-2003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악기수리·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
210 Bloor St.W. Tor. Tel : 961-3111

카나다보석협회 회원
KORYO
확장 이전 1주년 기념 SALE
20% OFF



고려보석
EATON CENTRE (Level 1 분수대옆)
979-3196

陳氏眼鏡公司
MARWITZ Zeiss Gruppe West Germany
ZEISS ●고급안경취급 West Germany
●Rodenstock
●콘택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썬글라스를 선물 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at Gerrard)
TORONTO, ONT.
TEL : 595-1665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 593-0684
영업시간
●월~토 9:30AM~6:00PM
●월~토 11AM 7PM

大英百科辭典
BRITANNICA 3
(전30권)
교민에게 특별판매
●교회, 학교, 단체등엔 특별할인
●국민학교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쓸 수 있읍니다.
●모국의 동생, 스승, 학교에 보내는 편리한 방법도 있읍니다.
문의처 : 745-5485 미세스 황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강화.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6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THE KOREA TIMES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저녁 풀타임 또는 파타임
웨이츄레스 구함
☎ : 757—6334

풀타임 남자헬퍼구함. 경험자에 한함 :
오후3시~밤12시. QUEEN과 DUFFERIN
☎ : 534—3338(아침9시~3시까지 전화) 미세스 김

봉재사 급구(고급 브라우스, 스카트, 바지)
시간당 $4 이상
292PARLIAMENT(DUNDAS에 가까움)☎ : 362—2300

BOEKAMT MANUFACTURING INC.

REQUIRE FULL-TIME HELPER, FOR LIGHT ASSEMBLY WORK
MON. ~FRI. 8AM~4 : 30PM
APPLICANTS MUST KNOW SOME ENGLISH
APPLY IN PERSON
910 MATHESON BLVD. MISS.

세일즈 하실분 구함 :
GOOD코미손(오전7시~오전10시 연락바람)
☎ : 492—7505

경험있는 가게 헬퍼구함 :
영·스트릿과 에그린톤지역
☎ : 483—7444

여자 캐쉬어 구함
시간당 $4
☎ : 638—2553

매매및 양도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4,900과 $3,500
2층에 살림집 있음.
CANADA PERMANENT TRUST CO. REALTOR.
☎ : 481—3443. 745—5485 황 순 일

성업중인 햄버거 샾 팝니다
☎ 530—0748 DAVID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DUPONT & SYMINGTON
☎ : 537—0892

개인집 팝니다 : 11⅛% 물개지 2(4개 화장실과 목욕탕)
2가족 싸이즈도됨. $10,000다운(DAVENPORT & SYMINGTON) ☎ : 536—8506

좋은지역에 위치한 바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가정형편상 급매코자 함)
주매상 : $3500~4000 리스 : 4년
ASKING : 29000+스탁(좋은 OFFER를 줌)
주소 : 1430 DUNDES W.
☎ : 531—0773 Mr.김 (직접내방바람)

오릴리아지역·매상좋은 비지니스 :
그로서리·바라이어티·미니마켈, 연매상 35만달러 이상, 3베드룸 살림집및 2베드룸 아파트 있음.
포스트 오피스.
문의 : ELEANOR TODISH (1) 862—0788 ext. 53
A. E. LEPAGE(ONT.) LTD.

스토아달린 빌딩 팝니다.
☎ : 653—4633
Mrs.코메스

스토아 매매
주매상 : $4650
☎ : 523 : 7제01 (해밀톤)

DONUTS SHOP매매
이윤 좋고 매우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 시간짧음
(주6일 열음, 하루 11시간 영업)
관심 있는분은 직접 내방요함.
55 KENSINGTON AVE.

이주 관계로 팝니다. 희망자 방문요
햄버거 FISH & CHIPS, 동양음식 겸한식당 :
주매상 2,000달러, 권리금 35,000달러
23 HELENE ST. N. MISSI.
☎ : 274—7010 CENTURY BURGER

일본식 식당과 SHOGUN라운지 매매 :
일본식 식당 : 85좌석, 라운지 : 105좌석,
모든 시설이 완비되었으며 개업한지 3개월 되었음.
동업자나 사실분은 Correct Call로 연락바람.
HALIFAX, N. S.
☎ : 집(902) 443—5789, 식당 : (902) 429—6155
라운지 : (902) 429—6955. MR. KIM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533—2400 미스타 김

매매 ●도나스 캐비넷 셋트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토랑15년 리스
☎ 535 2804 미세스 김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한국안내 533—2361

도시인의 하루는 바쁜生活입니다.

한국안내광고는
여러분의 시간과 경비를 절약해서 윤택한 살림으로 안내하는 생활의 길잡이 입니다.

한국안내광고는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일자리를 주고 받거나 자동차를 사고 팔거나 분실물을 찾으려는 모든 분들의 生活정보입니다.

한국안내광고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일에 매일 매일 놀라운 성과를 가져오고 있읍니다. 이것을 입증하는것이 바로 매일 매일 게재되는 **한국안내광고** 숫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접수하겠읍니다.

가게 헬퍼가 필요하세요??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533—2361

집·방세·하숙

사무실장소 렌트 : 대강 600Sq. Feet. 2층.
712 BLOOR ST. W.
☎ : 495—2172(크리스티와 블루어 앞)

분 실

시민권 분실공고 :
박광순(PARK, KWANG SOON),
☎ : 534—0228, 1395 DAVENPORT RD.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구 혼

"구 혼"
냉동기술 1급 자격증 소유한 31세의 대졸남성 정숙한 여성원함.
☎ : 654—1922. 김 윤 수

인 쇄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244—2301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미 용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헬 렌 미 용 실 미세스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트러스트
☎ : (B) 752—3111, (R) 298—2546
주택전문 곽 석 용

여 행 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악 기 점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용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6 전기시설·보수,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438—3795 김 영 호

자동차수리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64 MUNSTER AVE.(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 : 651—9324(B)
자동차 수리 일체). 226—5430(R)
20 ROGERS RD. 변 달 원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B) 245—1978 (R) 248—6032 김용환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센 추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가게를 매매 하시려고요??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533—2361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풍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면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일주일, 내내 아침10시~저녁8시 (일요일도 OPEN)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 울 한 의 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꽃 집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넘파·김

정 순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용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췌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삼푸 크리닝

가나안 카텐·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기 타

SOMÉ JEWELLERY 쏘메쎄라
●각종보석주문(공장도가격), ●옛보석을 새보석으로
●데자인, 보석수리(일본말 환영)☎ : 225—4641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예숙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630 BLOOR ST. W. TOR.
☎ : 535—7772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W. Tor. ☎ : 534—1085 김 춘 탁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니폰·비데오 센터 :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하마구찌

SINGER
●전화주문 받습니다. ●모든 종류 미싱수리, ●바느질을 배우세요. 틴·에이저와 초보자를 위한 강습이 있읍니다.●중고품 $49.95부터
CALL : MR. ARMAND OR PAUL (킴스카메라건너편)
☎ : 537—4881, 537—3841 620 BLOOR ST.W.

다이야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가게 헬퍼가 필요하세요??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533—2361

流星의 賦

<208>

李炳注 作
李友範 畵

何處秋風至 ⑥

정여립은 언변이 좋았다. 그가 입을 열기만 하면 그 내용이 옳고, 그르든간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황홀하게 했다.

일월록(日月錄)에 의하면 여립이

『사마광(司馬光)이 위(魏)나라를 정통으로 삼아 기년(紀年)한 것은 참으로 직필(直筆)이다. 천하는 공물(公物)인데 어찌 일정한 주인이 있으리요. 요(堯)순(舜)우(禹)가 임금의 자리를 서로 전한것은 잘된 일이다. 그러니 성인(聖人)이라 일커를만 하다』

고 했다고 하는데 이말은 정주학(程朱學)특히 주자학(朱子學)으로서 국교(國敎)의 대본(大本)으로삼고있는 당시로선 놀랄만한 일이다.

촉 기년(紀年)은 정통(正統)의 황제의연호를 기원(紀元)으로하여 기산(起算)한 햇수를 말하는 것이다. 한(漢)나라가 망한뒤, 위(魏)오(吳)촉한(蜀漢)으로 분열하였는데, 중원(中原)을 차지하고 한나라를 타도한것은 위였다. 그런데 촉한은 한실(漢室)의 종족인 유비가 세운 나라이다.

그런까닭에 위와촉한 중, 어느나라를 정통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 사가(史家)들의 문제로 되어 왔다. 통감(通鑑)을 지은사마광(司馬光)은위를정통이라하여 황초연호(黃初年號)를 기년(紀年)했고, 주자(朱子)는 강목(綱目)을 만들 때 유비(劉備)를 정통으로 하여 촉한의 연호로서 기년했다. 그러니 주자의 말에 따르면 조조부자(曹操父子)는 역적으로 되는 것인데 정여립은 조조부자를 정통의 황제(皇帝)로 쳐야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여립은

『충신불사이군(忠臣不事二君)이란 말은 왕촉(王蠋)이 죽을때 어쩌다가 한말일뿐, 성현의 통론은 아니다. 유하혜(柳下惠)가 누구를 섬기건 임금은 임금이다』

하는 말조차 서슴없이 했다.

왕촉은 제(齊)나라의 사람으로서 『충신은 불사이군이고열녀는불경이부(不更二夫)란』는말을남겨놓고 연(燕)나라에 항복하지않고 자결한 사람이다. 그런데 왕촉의 이말은 그후로 윤리(倫理)의 범례(範例)처럼 되어 있었다.

여립이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러한 말로써 트집을 잡혀 이미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몰렸을 것이었다. 그러나 여립은 그 주변에 무뢰한(無賴漢)과 잡배(雜輩)를 많이 모아놓고 있고 조정의 대관들을 교묘한수단으로 조종하고 있었으므로 누구도 감히 그의 언동에 트집을 잡을 수 없었다.

여립이 언제부터 모반(謀叛)의 뜻을 품게 되었는지는 소상하지 않다. 일설에 의하면 그가 율곡(栗谷)을 헐뜯다가 임금의 꾸지람을 듣고 전라도로 돌아온이후일 것이라고 한다.

여립은 처음, 명종(明宗)시대에 거도(巨盜) 임꺽정(林巨正)이 활약했던 황해도 산악지대를 반란의거점(據點)으로 할 요량이 있어 황해도도사(黃海道都事)가 되려고 운동을 했지만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황해도의 산세를 거사(擧事)의적지(適地)라고 보고 안악(安岳)사람인 변숭복(邊崇福), 박연령(朴延齡), 해주(海州)사람 지함두(池涵斗)등과 비밀히 내왕하여 서로 정탐하는 바가 있었다.

중앙 AUTO-SERVICE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532-3946 김창세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블루어 하드웨어
Benjamin Moore PAINTS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변 의 섭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歷代 올림픽 포스터 紙上展

人種·政治·宗敎·思想을 초월… 아테네에서 모스크바까지

◆1980년 모스크바 포스터

◆1976년 몬트리올 마크

◆1972년 뮌헨 포스터

◆1968년 멕시코 포스터

◆1964년 東京 포스터

◆1960년 로마 포스터

◆1956년 멜번포스터

◆1952년 헬싱키포스터

◆1948년 런던 포스터

7년뒤 서울은 이렇게 달라진다

金浦비행장 3배확장…새空港건설도
地下鐵 조기완공…時間당 2萬수송
여관 5천개이상늘려 새街路도 개발
프레스센터、경기장과 TV回路설치

세계 젊은이의 힘과 美의 대제전인 올림픽경기를 화려하면서도 장엄하게 치르기위해서는 우리들이 준비해야할 일들이 태산처럼 많다。

각종 경기장을 비롯 숙박 교통 통신시설등 직접 대회개최에 필요한 각종시설을 갖추어야하고, 이를 운영할 조직과 인력을 완비해야하며, 또 6백년 전통의 문화도시로서 걸맞게 개최지인 서울도 미화단장해야한다。

아직도 7년이나 남았으므로 올림픽대회를 멋지게 치르겠다는 자신감과 치밀한 준비로 이들 과제들을 하나씩 계획을 다지고 풀어나가야 할때다。

서울시가 마련한 준비사항의 골격을 점검해본다。

[경기장] 모든 경기장 시설은 오는 85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기로했다。

江東區蠶室1洞16만5천평의부지위에 건립중인 서울종합운동장은 규모나 시설면에있어 어느 올림픽경기장과 비교해도 손색이없다。

지난76년 착공, 1천1백1억원을들여 오는 83년 완공예정으로, 현재의 공사진척도는 57%。

이경기장에는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자전거경기장, 야구장및 보조경기장이 들어선다。

개인별의자 7만5천석에 수용인원 10만명의 주경기장은 64년 東京(수용인원7만1천명) 72년 뮌헨(7만7천명) 76년 몬트리올올림픽(7만명) 경기장보다 규모가크다。영국의 웸블리경기장, 이탈리의 아리메르경기장과 함께 세계굴지의 경기장의 하나로 손꼽히게 될것이다。

江東區遷村洞일대 무우와 배추가 탐스럽게 자라고있는 벌판80만평은 국립경기장으로 개발되게된다。

이곳에는 궁도, 역도, 하키, 펜싱등 경기장이 들어서게된다。

또 경기도 高陽郡星沙里의 야산1만4천평에는 승마경기장, 부산南區 廣安洞에는 요트, 그리고 漢江에는 조정경기장을 각각설치할계획。

국립경기장등의 건설에는 약2천5백억원의 예산이 들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누경기장 설치계획은 아직 확정짓지못하고 있다。

[숙박시설] 선수1만8천명, IOC위원·각국 임원·각국NOC위원장·각국제경기연맹임원등 VIP 3백명, 기자5천명, 일반관광객 20만명등이 내한할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내의 관광호텔은 현재 47개에 객실수는 1만5백89개이나 오는 88년도에는 90개호텔에 객실2만9백개로 늘어날듯。

그래도 객실수는 크게 부족하여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 계획이 세워져야할 형편이다。

서울시는 여관3천5백76개소를 88년에 5천개이상으로 늘려 관광객등의숙소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있다。

[교통시설] 서울시는지하철2호선및 3·4호선공사를 각각 83년, 84년까지 완공, 모두 1백20㎞의 지하철망을 형성함으로써 시간당 2만명이상의 선수, 임원, 관광객을 실어나를 계획。

또 지하철5호선(淸凉里~退溪院) 6호선(佛光洞~龍山) 7호선(金浦공항~文來洞)도 올림픽개최 이전에 앞당겨 건립할것을 검토중이다。

대회기간중 수송해야할 인원은 연 3백50만명에달할것으로 보인다。

金浦공항도 88년까지 대폭확장, 현재보다 약3배 규모인 하루 2만3천5백60명을 처리하도록 한다。

또 金浦공항외에 수도권에 새 공항을 건설하는 계획도 추진중이다。

[올림픽촌] 국립경기장 옆에 건립한다。

선수촌과 프레스 센터를 비롯 대회조직위원회 도서관 전시장 극장등 문화시설, 교회, 식당, 은행, 쇼핑센터, 오락시설등을완비한다。

이 올림픽촌 말고도 필요하다면 제2, 3의 보조 올림픽촌이 마련된다。

선수촌은 1차로 3천가구분의 아파트를지을계획。

선수1인당 전용면적 3평규모로 실내에는 가구등 시설을 완비한다。4인 1실을 원칙으로한다。

이아파트는 경기가 끝난후 일반에 분양할계획。

[프레스센터] 약 5천명에 달하게될 보도진들을 위한 프레스센터를 선수촌옆에 건립한다。

소련의 타스통신을 비롯 AFP AP UPI 로이터등 IOC공인 5대통신, 신문, 방송사가 활용할수 있는 완벽한시설을갖춘다。

국제전화 3천회선을 만들며 각경기장과 폐쇄회로TV로 연결, 언제든지 모니터 할수있게한다。

모든 경기 진행상황은영어및 불어로된 보도자료를 만들어 신속히 알리고, 주경기장에는 6개국어 동시번역 시설을 완비한다。

보도진을 위한 프레스빌리지는 별도로 설치하지않으나 호텔, 서울大 기숙사를 숙소로 활용하고 정기왕복버스를 제공한다。

[도시정비] 고궁과 공원, 그리고南山과 北岳山의 스카이라인과 조화를이루면서번화한 문명의 면모를갖춘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서울의 도시계획이안고있는 최대의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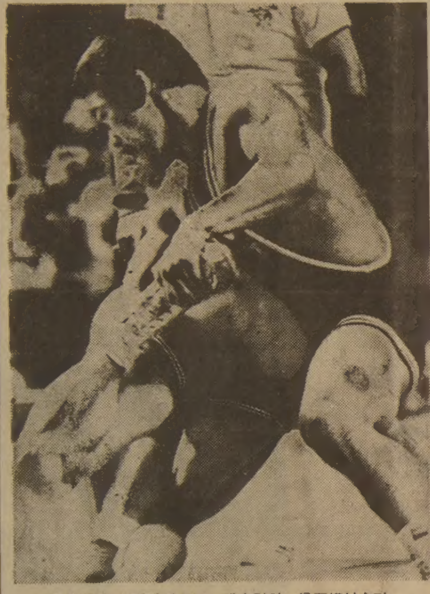
서울시는 乙支路 太平路등에 도시계획 (Urban Design)수법을 도입, 서울을상징할수있는 가로로 적극개발키로했다。

또 민간주도의 도심재개발사업도 올림픽붐에 힘입어 활발히 진행될것으로보여 서울도심에는 고층빌딩들이 다투어 솟아오를것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녹화5개년사업을 내년부터 착수, 전원도시로서의 면모를 다소나마 갖출수있도록하고 또 올림픽경기장도주변에 울창한 수림대를 조성하여 체육공원으로 발전시킬계획。

[기타준비] 대회조직위원회는 오는 88년도까지 1천7백명의 통역사를 양성한다。특히 영어 불어등2개국어에 능통한 인력을확보, 과학적이고 조직화된 운영을 할계획。

【朴貞洙기자】


◇사상첫 金메달리스트 레슬링의 梁正模선수가 몬트리올대회서 오이도프와 대전하고 있다。

'올림픽英雄' 그때와 오늘

한국은 건국이후 48년 제14회 런던올림픽에 처음 출전, 복싱에서 韓水安이 첫 동메달을 따낸후 22회대회기간중 8번참가 金메달 1개、銀메달 6개、銅메달 11개를 획득했다。특히 76년 몬트리올올림픽서는 건국후 처음으로 梁正模가 金메달을 획득했고 力道의 金晟集은 런던과 헬싱키올림픽서 연속銅메달의 영광을 안았다。

한국의 역대 올림픽 전적은 만족할만한것이 결코 못되지만 국력의 신장과 함께 최근 국제무대서 한국스포츠가 거두어 들이는 수확은 괄목할만하다。88년 서울 올림픽서는 한국이 경제성장에 상응할수 있을만큼 많은 메달을 따낼수 있을지는 앞으로 7년간에 이룩해야할 목표이다。

그간 올림픽서 메달의주역이된 선수들의당시와 근황을되짚어본다。 【金仁奎기자】

▲**梁正模씨**(76년몬트리올 레슬링金)=8월 1일(한국시간) 한국은 드디어 염원하던 金메달을 땄다。레슬링 자유형 페더급에서。예선전적 벌점 1로 결승전에오른梁은6회전에서 美國선수를 폴로 물리치고 이어 몽고의강호 오이도프와 대전, 판정패 했지만 벌점이 적어 우승을 차지한 것。모리스리처드아레나대회장 시상대에서 梁씨가 金메달을 목에 걸자 올림픽사상 처음으로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梁씨는 현재 조폐공사 에서 후진들을 양성하고 있다。

▲**宋順天씨**(56년멜번 복싱銀)=56년 12월20일 멜번의 하늘아래 또 다시 태극기가 올랐다。宋씨는 선수생활을 시작한지 일년만에 올림픽에 나간 천재적 복서였다。또한 1백56전 1백56승 99KO승을 기록하기까지 했다。현역서 은퇴후 淸州·서울등지에서 10여년간 후배들양성에 혼신의 정열을 쏟아왔다。

8번 參加…金1·銀6·銅11
大部分 道場차려 後進양성…講師·事業도

張昌宣、大統領격려금으로 事業…기반닦아
金晟集、환갑넘었어도 泰陵선수촌장 맡아
梁正模 후진양성…姜俊鎬、프로복서 길러
李順福·曺惠貞결혼…邊京子·白明善現役에

▲**張昌宣씨**(64년東京레슬링銀)=플라이급서 銀메달 획득、한국의 올림픽 출전사상 두번째 銀메달리스트。張씨가 올림픽서 메달을 땄을때 콩나물을팔아 아들을 일약 세계적레슬러로 성장시킨 어머니 金福順여사가 매스컴의 초점이 되었었다。張씨는 66년 톨레도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세계대회 출전사상 첫 金메달을 따냈다。당시 朴正熙대통령이준 격려금 1백5만원으로 사업을시작、착실한 기반을 닦고있다。

▲**鄭申朝씨**(64년東京복싱銀)=밴텀급 결승전 첫공이 울리자 30초만에 사꾸라이의 강한 라이트훅이 鄭씨의 턱에 맞았다。이것으로 鄭씨는 다운되었고결정적인 패배의 원인이되었다。결승전 얼마전 오른쪽 손가락을 삐어 마취주사를 맞고 경기에 나갔는데 손전체가 말을 듣지 않았다。영광의 銀메달이었으나 여기에는 통분이 서렸다。석탄공사소속으로 있다 65년 현역서 은퇴했다。유도대학전임강사로 있으며 아마복싱이론과 실기를 가르치고있다。

▲**池龍珠씨**(68년 멕시코 복싱銀)=10월24일 밤 7시18분(멕시코시간)부터 9분간 池는 3천만의 성원이 한데 뭉친 글러브를 움켜쥐고 달려들었다。폴란드의 스크르집자크는 池앞에서 샌드백 노릇만했다。7시31분 코리아의 승리가 선언됐다。

▲**吳勝立씨**(72년 뮌헨 유도銀)=미들급 결승전。金메달을 따는가 싶었다。재일동포 메달호프였던 吳씨는 5회전서 판정으로꺾은 日本의 세끼네와 결승서 다시 맞붙었다。그러나 판정패로 끝났다。이후 京畿大에서 후진들을 양성했으며 현재는 日本 나라현에있는 건축회사에서 영업부 차장직을 맡고있다。

▲**張銀景씨**(76년 몬트리올 유도銀)=재일동포가 아닌 국내선수로 유도서 메달을 획득하기는 張씨가 처음。쿠바 로드리게즈와의 결승전 결과는 심판의 줏대없는 판정으로金메달이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의견이지배적이었다。AP·UPI등 세계적인 통신들은 초반은 張이 밀렸지만 후반에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만큼 잘싸웠다고 張씨의우세를 인정했다。현재 대한유도학교 조교로 있으면서 議政府서 도장을 운영하고있다。

▲**韓水安씨**(48년 런던복싱銅)=해방후 처음 맞는 올림픽에라 감회가 컸다。더구나 플라이급서 銅메달을 획득、올림픽 초년병으로서의 기개를 높이기도했다。얼마전까지 청산체육관에서 후배들을 길러왔다。

▲**金晟集씨**(48년 런던·52년 헬싱키 역도 銅)=나라를 다시찾은후 첫올림픽인 런던대회에 출전、미들급에서 3백80kg으로 銅메달、올림픽무대에 처음 태극기를 올렸다。4년뒤에도 미들급에 출전 3백82·5kg으로 또다시 銅메달、국내 선수로는 유일하게 2개대회서 메달을따낸 鐵人이다。환갑을 넘은 나이(62)에도 대한체육회 이사·태릉선수촌장으로 후진들을 지도하기에 여념이 없다。

▲**姜俊鎬씨**(52년헬싱키 복싱銅)=밴텀급에서 銅메달을 획득、韓水安씨에 이어 두번째 복싱서의 메달리스트。아마추어 대표선수들을 키워 국위선양에 이바지했을뿐만 아니라 현재는 프로복서 조련사로 이름을떨치고있다。黃忠甘등 유망프로복서를 지도하며 프로모터로도 활약중。

▲**金昌熙씨**(56년 멜번 역도銅)=라이트급서 銅메달을땄던 金씨는 57년 현역에서 은퇴했다。역도연맹의 기술지도위원 전무이사 부회장등으로 역도행정과 실무에 정열을쏟았으며 최근까지 도장을 운영하면서 후배들을 지도해왔다。요즘은 서울城東區 華陽洞의 永林流通과 한마름예식장에 매일 출근、나이를잊고 일에몰두하고 있다。

▲**金義泰씨**(64년 東京유도銅)=한국 유도의 선봉장。예선 1·2차전에서 中國의 후앙、베트남의 레바를 10초내외에 전격적인 한판으로 물리쳤으며 본선준준결승서도 브라질의 日本人2세 시오사와를 1분33초만에 밧다리후리기로 제압했다。61년 제3회세계선수권 65년 선수권등서도 銅메달을 따냈다。吳勝立을 키웠으며 日本天理大체육과 부교수。

▲**張奎晳씨**(68년멕시코 복싱銅)=밴텀급준결승전에서 우간다선수에게 판정패、銅메달에 머물렀다。이 경기서 3회전이 끝나는 공이 울리자 승리에 자신한 張씨는 2회에 라이트스트레이트를 맞고 다운되는등 위기에 몰렸던 우간다 선수의 팔을 쳐들어주는등 여유를 보였다。그러나 우간다선수의 손이 올라갔다。심판5명중 3명이 흑인이었다지만 이해가 되지않던 판정이었다。張씨는 이후 프로복서로 활약하다 은퇴、현재 두꺼비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다。

▲**여자배구팀**(76년 몬트리올 銅)=한국구기사상 올림픽에서 銅메달을따기는 여자배구가 처음。구기종목에서 이같은 성적이 나오기는 당분간 힘들 정도로 여겨질만큼 값진것이었다。주장 李順福、曺惠貞、柳貞惠、劉敬花、張海淑、馬金子、鄭順玉등은 이미 가정을이루었고 尹英乃、李順玉、朴美金등은 현역에서 은퇴했으며 邊京子、白明善등은 아직 코트를 지키고있다。

▲**全海燮씨**(76년 몬트리올 레슬링銅)=전문가들도 입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그래서 더욱 큰 화제가 됐었다。대회 1차전서 이란선수와 맞서 3회중반까지 열세에 몰리다가 경기종료 5분전 극적인 폴승을 거두었고 여세를 몰아 결승리그 진출에 성공했다。

▲**趙在基씨**(76년 몬트리올 유도銅)=중량급에 출전했던 趙씨는 기술보다 힘이센 유럽선수에게 체력이 뒤지므로 메달전망이 가장 어두웠다。그러나 라이트·헤비급서는 탈락했지만 무제한급에서 의외로 銅메달을차지했다。梁正模씨의 金메달에 못지않은수확이라고들 평가했다。釜山東亞大를 졸업、京畿大조교로 재직하다가 현재는 모교로 돌아가 후배들을 키우고있다。

▲**朴英哲씨**(76년몬트리올유도銅)=朴씨는 미들급서 우승을 차지한 日本의 소노다·이사무에게 2회전서 패배했으나 패자부활전서 소생、패자결승서 西獨 프레드·마르[illegible]를 업어치기 한판으로승리、銅메달을땄다。도표동양대학경영과를 졸업한 학사선수출신。吳勝立씨와같은 회사에 있다가 최근 독립했다。

◇몬트리올 올림픽여자배구對日本戰서 한국의 鄭順玉이 상대블로킹을피해 대각선 공격을 펴고있다。

◇鄭申朝

◇李順福

◇朴英哲

◇池龍珠

◇趙在基

◇韓水安

◇宋順天

◇張昌宣

◇張銀景

◇吳勝立

◇金義泰

◇金晟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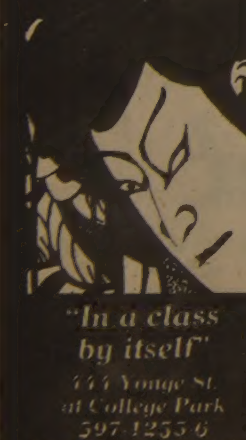
◇金昌熙

◇姜俊鎬

◇張奎晳

◇全海燮

◇梁正模

일본스테이크 집


전형적인 일본식
STORE HOURS
평 일 :
스페샬점심시간
11 : 45AM ~ 2 : 30PM
5 : 00PM ~ 11 : 00PM
토요일 :
5 : 00PM ~ 11 : 00PM
일요일은 문을 닫지만 예약에 한해서는 언제든지 일을 합니다.
※파티, 단체예약등 환영함.
"In a class by itself"
??? Yonge St. at College Park
597-1255-6
Reservations accep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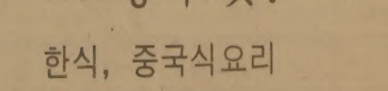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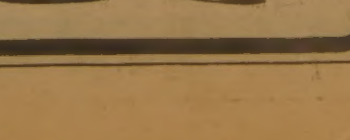
노년회수양강좌

찬바람이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할적마다 또 한해가 가는것이 아쉽고 마음이 숙연해짐을 느낍니다.
남은 여생이 지난날보다 값지고 그리고 보람있게 보내져야하지 않겠읍니까? 우리 자신이 소외된자가 아니라 소외된자를 감싸며 부르는 우리들의 위치로 성장시킵시다.
오셔서 함께 좌담을 나누시고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빌어마지않읍니다.

— 기 —
일 시 : 1981년 11월7일 토요일 오후1시부터
장 소 : 한인회 강당
강 사 : 김보경 심리학박사(이민가정의 전통적 가족제도의 요동과 이에 따른 가족구성원의 심리적 재조정)
이처관 이사(이민생활과 윤리문제)

※한국영화(가을비 우산속에)상영이 있고 후식을 준비하겠읍니다. 오시는 길에 81년도 회비를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사단법인 한국노년회 회장 정 인 기


고향의 맛!
한식, 중국식요리
각종음식준비
됐읍니다.
— 각종국수 전문 —
서울하우스
615 BLOOR ST. W.
☎ : 532-0602


해외 걸작 만화

◇이렇게 시원[illegible]~ ◇해돌씨, 고마워요

"海外2·3세에 國語교육을"

民間기구「二重언어학회」創立

체계적이고 持續的교육 통해 民族性·고유文化 지켜가도록

國語학계 중진들 大學 참가

◇二重언어학회의 창립총회。在外 우리동포에게 모국어를 적극 가르쳐야 한다는 當爲性이 제기됐다。

學術

지난 26일하오 서울鍾路區 雲泥洞德成女大에선「二重언어학회」라는 비교적 낯선이름의 학회 창립총회(회장金敏洙)가 열려 학계의 관심을 모았다.

창립총회의 발기위원은 우리나라 국어학계의 중진학자들로 朴甲洙(서울大)沈在箕(〃)金敏洙(高大)朴榮順(〃)李相億(〃)南基心(延世大)文孝根(〃)柳穆相(中央大)李喆洙(仁荷大)孫世和(東國大)車賢實교수(梨花女大)등이 망라되었으며 창립총회에 뒤이어 연구발표회도 가졌다.

二重언어학회는 해외에 거주하고있는 한국인 2세·3세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국어교육을시켜 韓國民으로서의 민족성을 유지하고 우리의 고유한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위해 설립된 순수한 민간 학술기구。

二重언어학회는 발기취지문에서『현재 세계도처에 3백만이 넘을것으로추정되는 해외동포들이 남의 민족이 되도록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자기의 民族語를 모르면 민족성도잃고 고유문화도 상실한다고 주장했다。발기취지문은 이어 유네스코교육헌장 제1조는『모든어린이는 자기의 모국어로 교육을 시작해야한다』고 되어 있다고 지적, 한국어가 모국어인 어린이는 한국어로 교육을 시작해야하는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원칙아래 최선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二重언어학회는 해외동포의 국어교육에서 기대할 수있는것은 개인적 차원에서는▲두개의언어를 서로 비교,동시에 배우면 이해가 빠르고 정확하며▲외국인으로서 가질수있는 위축감이나 갈등을 없앨수있고▲모국에 돌아오고 싶을때나 조국이 필요할때 돌아올수있다는 장점을 강조했다。

또 국가적차원에서는 우리국민이 해외에 나가살아도 조국에대한 긍지와자부심을 갖고 계속 모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며▲二重언어를 보유한 국민이 많은것은 결과적으로 국력신장과 국위선양이 될것이고 ▲해외개발정책의 성공이 보장된다는점을 들었다。

한편 창립총회에 뒤이어 열린 연구발표회에서 朴榮順교수는「二重언어교육의 이론적배경」이라는 주제발표에서『二重언어교육은 주로 미국에서 영어를 제2언어로 배워야되는 소수민족어린이들의 문화적·언어학적·심리학적·사회학적 장애를 제거해주기 위해 실시됐다』고 설명하고 이 교육은 1차대전이전의 제1기교육과 63년이후의 제2기교육으로 나누어볼수있다고 말했다。

朴교수는 1기때의 교육은 주로 독일어를 쓰는 어린이들을위한 二重언어 교육이었으나 나중에는 불어 중국어 일본어를 쓰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실시했다고 밝히고 63년부터 플로리다州로 피난온 쿠바이민들을위해「스패니시-잉글리시」의 2중언어교육이 부활됐다고 설명했다。이때부터 2중언어교육은 미국의 각州로 확산됐는데 二重언어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는 미국외에도 캐나다·스위스·벨기에·핀란드·남아프리카 연방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朴교수는 지난 67년 미국의회에서 통과된 二重언어교육은『자기의 모국어나 민족성을 버리고 제2환경에대한 동화를 강요하는 것은 인도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교육학적으로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하고『모든언어는 優劣이나 正·誤의 관계에 있는것이 아니고 그체계나 규칙이 서로 다를뿐이다』는 변형생성문법이론에 기초를둔 語言 相異論(Different Theory)에 입각한 二重언어교육이 채택됐다고밝혔다。

金敏洙교수는「민족과민족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만일 어떤 개인이나 민족이 그의 민족어를 계승치못한다면 그는 민족성을 상실하는 길밖에없으며 제 민족성을 잃어버린 민족은 소멸되고 말것이라고 경고했다。

金교수는 민족성이 소멸된 예로 淸國을 세운 滿州族을 열거하지만 개인으로는 일본으로 건너간 阿直岐나 王仁의후예, 唐나라에 정착한 고구려 高仙芝장군, 백제의 黑齒常之장군의 후손이 각각 동화됐다고 역사적사실을 열거했다。그러나 壬亂때 포로로 끌려간 陶工 沈壽官의 14대손으로 일본도예계의 명문인 가고시마(鹿兒島)의 사쓰마야끼(薩摩燒)의 주인 沈壽官처럼 아직도 문화적자부심을 간직한 예도 있으며 沈氏家에는 우리말용어, 특히 代를물려 전하는 母語教本까지 있음을 지적했다。

金교수는 또 가까운예로 中共의 吉林省에 1백만, 黑龍江省에 40만,遼寧省에 30만의 우리동포가 중국어와 한국어를 사용, 우리민족의 긍지를 그대로 유지하고있음을 주목했다。

朴甲洙교수는「일본지역에 있어서의 二重교육의 실태」를 분석, 지난 80년 4월말현재 在日한국인 子女의 한국계학교취학 학생수는 취학률로볼때 1%밖에 되지않아 76%의 일본계학교취학률, 22%의 朝總聯系학교취학률과 대비,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朴교수는『외국에서는自國人이아닌 外人에게도 二重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自國語를 모르는국민을 그대로 방치할수는 없다』고 말하고 在日동포 자녀들의 단기교육이나 모국수학의 방안을 제시했다。

李相億교수는「영어사용지역의 한국어 교육실태및 문제점」에서 일본을 제외한 해외전지역의 한국학원 학생총수는 지난 7월1일 현재,1만2천3백32명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1校當 교민 인구비율은 3천1백63명, 1校當 학생수는 63·4명으로 문제점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인학교가 대개 교회부설의 토요학교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고 在外동포의 한국인화를 위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창했다。

【丁薰기자】

올림픽1世紀 <8>

서울大會 계기로본 人類의 祭典

몬트리올서 첫 金메달

1976년 몬트리올의 제21회 올림픽은 말썽많은 대회였다。경기장건설노무자들의 파업、캐나다정부의 자유중국선수단에대한 비자발급거부、인종차별국가 南阿와의 럭비교환경기를 가진 뉴질랜드의 참가에 항의한 제3세계 22개국의 올림픽·보이코트、올림픽을유치한 퀘벡크州정부의 재정파탄등등 대회는 경제·정치·인종의 갖가지 난제에 봉착、올림픽의 새로운 위기를 예고했다。

한국으로서는 몬트리올만큼 감격적인 대회도 없었다。8월1일 레슬링자유형페더급에 출전한 한국의 호프 梁正模는 막판 결전에서 美國의 신예 진·데이비스를 2회2분54초만에 되치기 폴로 제압하고、최종전에서 세계선수권자 몽고의 제베크·오이도프에 8-10의 판정으로 석패했으나 벌점우세로 우승했다。光復이후 처음、한국인으로서는 日帝下의 孫基禎에이어 두번째 손에 넣은 올림픽金메달이었다。

2위 오이도프、3위 데이비스의 손을맞잡고선 시상대위의 챔피언 梁正模의머리위로 태극기가 올라가고 올림피아드에 처음 애국가가 울려퍼졌다。한국선수단은 흐르는눈물을 씻을줄몰랐고 관중들은 챔피언이퇴장할때까지 박수갈채를 아끼지 않았다。

한국은 몬트리올에서 梁正模의金、유도 라이트급 張銀景의銀、그리고 4개의 銅메달을얻는 사상최대의 수확을올렸다。여자배구팀은 예선최종전서 東獨에 3-2로、3·4위전서도 헝가리에 3-1로역전승、구기종목 최초의 銅메달을따냈다。유도의 趙在基는 헤비급에서 탈락하자 머리를 깎고 무제한급에출전、銅메달을 따냈다。朴英哲은 유도미들급에서、全海燮은 레슬링 자유형플라이급에서 銅메달을 추가했다。

몬트리올에모인 수십만의 관중들、그리고 TV중계를 응시하던 전세계의 스포츠팬들은하나의 충격을 보았다。루마니아의 체조요정 나디아·코마네치의 출현이었다。

코마네치는 소련의 넬리·김과 함께 체조의 한계로만 여겨졌던 올가·코르부트의 세계를 넘어선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었다。

코마네치와 넬리·킴은 가장 대조적이고 대립적인 관계였으나 다같이 각자의 개성이 담긴 가장 완벽한 연기로 체조사상최초의 10점만점을 기록하며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14세의꼬마 코마네치는 神技에 가까운 묘기와 깜찍스런 동작으로 단체、개인、종목별경기의 평행봉과 평균대에서 10점만점을받았으며 19세의 성숙한 한국계인 넬리·킴은 우아하고 부드러운여성미로 개인、종목별경기의 뜀틀과 마루운동에서 10점만점을 기록했다。

전세계를 경탄시킨 코마네치… 神技로 3종목 만점기록

레슬링 梁正模 全國民에 감격안겨

한국、金·銀1 銅4따 史上최대수확

두스타의 경연장이된 여자체조에서 코마네치는 개인종합·평행봉·평균대의 金메달을、넬리·킴은 단체·마루운동·뜀틀의 金메달을 나누어 가졌다。

기자회견에 나선 두선수의 모습은 더욱 대조적이었다。코마네치는 경기때의 그 발랄함을 감추고 무뚝뚝한 얼굴로 좀처럼 입을 열지않았다。1m53의 제키만한 인형을 매만지며 코마네치는『집에가서 실컷놀고 햄버거를 배불리 먹고싶다』고 말했다。

한국계의 동그란 얼굴을한 넬리·킴은 보라빛의 우아한 옷차림으로 미소를 띤채 영어를 섞어가며 이곳저곳에서 즐거운 담소를 나누었다。

소도시 오네스티서태어난 코마네치는 6살때 유명한 체조코치 카롤리에 발견돼 하루 3~4시간의 강훈을 쌓아왔다。

75년 유럽선수권에서 13세의 코마네치는 놀랍게도 세계선수권자 투리세바를 제치고 우승했으며 올림픽직전 美洲에 원정、몬트리올에서의 승리를 예고했다。

78년 코마네치는 2년만에 키1m53에서 1m61、체중 39kg에서 52kg의 처녀로 성숙했다。갑작스런 성장으로 몸은균형을 잃었으며 헝가리등의 중상이 겹쳐 시련을 겪었다。세계선수권도 소련의 신예 엘레나·무키나에 빼앗겼다。

그러나 코마네치는 시련을극복하고 79년 유럽선수권에이어 81년 유니버시아드서 더욱원숙한 연기로 우승했다。

소련 카자크공화국의 팀켄트에 사는 한국인 아버지와 러시아인 어머니 사이에 3남매중 맏딸로 태어난 넬리·킴은 8살부터 체조학교에서 연기를 닦았다。라티니나、투리세바、코르부트의 대를이어 정통적체조강국 소련의대표로 몬트리올에서 단체전5連覇에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

『체조를 사랑하며、체조를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넬리·킴은 77년 동료체조선수 오노길과 결혼했으며 79년 美國포트워드에서 벌어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종합우승을 차지했다。

日本에 남자단체 5連覇를 허락했으나 소련의 니콜라이·안드리아노프는 개인종합우승을 포함、4개의 金메달을 따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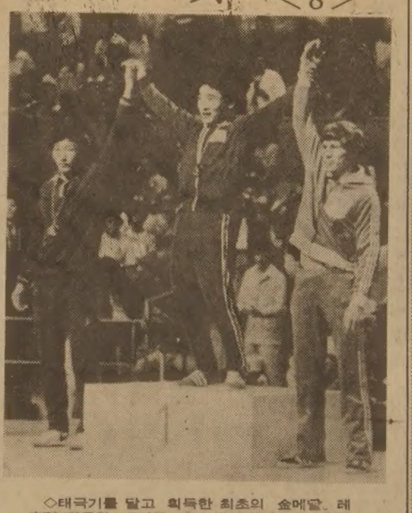
파보·누르미의 후예 라스·비렌은 5천m와 1만m에서 2連覇、장거리王國 핀란드의 옛영광을 되찾았다。

마라톤에서는 연승을 노리던 美國의 법학도 프랭크·쇼터를 누르고 東獨의 발데마르·치에르핀스키가 2시간9분55초의 신기록으로 우승했다。

美國의 슈퍼스타 부르스·제너는 10종경기에서 8、618점의 신기록으로 우승、뮌헨7冠王 마크·스피츠에 이어수많은 광고모델의 표적이 되었다。

뮌헨 슈퍼헤비급에서 6백40kg을 들었던 소련의 인간기중기 바실리·알렉세예프는 4백40kg을 들고서도 거뜬히 2連覇했으며、東獨의 수영여왕 코르넬리아·엔더는 자유형1백、2백m、접영1백m、혼계영4백m서 신기록으로 우승、4冠王이 됐다。

【方錫鉤기자】



◇태극기를 달고 획득한 최초의 金메달。레슬링 자유형 페더급 梁正模의 우승으로 올림픽에 처음 애국가가 울려퍼졌다。

農村所得 차츰뒤져 都市家口 소득보다

농촌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에 비해 점점 뒤떨어지고 있다。

10일 농수산부에 따르면지난해 우리나라 농가는 냉해에 따른 흉작에도 불구하고 農外소득의 급격한 증가로평균 2백69만3천원의 소득을 올려 전년보다 20·9% 증가했으나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3백20만5천원에 비해서는 16%(51만2천원)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이 지난해 21·9% 증가한 때문으로 농가소득은 74년부터 77년까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을 웃돌았으나 78년에 反轉、1·7%가 떨어졌다가 79년 15·3%、80년16%로 소득격차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올림픽유치 경축 紀念담배 팔기로

전매청은 코스타리카 공화국 카라조 대통령의 訪韓과 88년 서울올림픽을 경축하는 기념담배를 11일부터 전국적으로 발매한다。

이번 기념담배는 서울올림픽 축하도안등이 들어있는솔 8백만갑과 거북선 1천3백만갑등 총2천1백만갑이다。

구독신청은 533-2361

사라져가는 고유의 新民謠

70년대초부터 쇠퇴의길

젊은이취향쫓는 風土에밀려 作家·歌手없고 팬들도 외면

放送社·製作者의 誠意있는뒷받침있어야

◇◇◇◇◇◇

新民謠의 가락이 잊어져가고 있다。신민요는 전승돼온 고유의타령이나 노랫가락을 변형시켜 재구성하거나 새로운곡조로 창작해낸「우리의노래」。30년대 꽃피기 시작한 신민요가 70년대초부터 차츰 쇠퇴、맥을 찾기가 어렵게됐다。

세계의 유행음악만을 좇는 젊은이들의 우리노래 외면과 이러한 젊은이들의 기호에만 영합한 창작·제작자들의 회피로 역량있는 민요가수가 발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신민요의 효시는 30년대 박부용이 부른「노들강변」으로 꼽힌다。그후「꽃망태 목동」(조자룡작곡·김용환노래)「대한팔경」(형석기작곡·선우일선노래)「노다지타령」(조자룡작곡·김용환노래)「뺑파이타령」(형석기작곡·박단마노래)「삼천리강산 에라 좋구나」(전수린작곡·이애리수노래)「어머님전상서」(조자룡작곡·이화자노래)등많은 신민요가 등작、가요계를 휩쓸었다。

40·50년대에들어서는「노래가락 차차차」(김성근작곡·황정자노래)「봄바람、임바람」(한복남작곡·황금심노래)「아리랑목동」(박춘석작곡)「뽕따러가세」(나화랑작곡·황금심노래)「처녀뱃사공」(한복남작곡·황정자노래)「오동동타령」(한복남작곡·황정자노래)등 새로운 가락의민요가 가요계를 수놓았다。

60년대에서 70년대초에는 崔淑子·金세레나·金富子·河春花등이 등장해 신민요의 가락을 이어왔다。「갑돌이와 갑순이」(김부해작곡·김세레나노래)「개나리처녀」(김화영작곡·최숙자노래)「꽃타령」(김영종작곡·김세레나노래)「나룻배처녀」(하기송작곡·최숙자노래)「눈물의 연평도」(김부해작곡·최숙자노래)「새타령」(김부해작곡·김세레나노래)「성주풀이」(김종유작곡·김세레나노래)「처녀농군」(이철혁작사·최정자노래)이 60년대의 민요다。70년대는 河春花가 부른「강원도 아리랑」「영암아리랑」「잘했군 잘했어」(이상 고봉산작곡)、金富子와「일자상서」(박시춘작곡)「달타령」(오영일작곡)李恩蘭의「울너머 휘소문」(고봉산작곡)「팔도타령」(김성봉작곡)으로 이어지지만 74년이후엔 새로운 민요를 들을 수 없고 새민요가수도찾아보기가어렵게됐다。

신민요의 쇠퇴이유는 작가·가수不在、팬들의 외면、제작자의 제작기피등으로 분석된다。많은 신민요를 작곡해온 高峰山씨는『팝송의 물결에 밀려 신민요가 인기를 잃은데다、어느 노래보다도 작곡·노래가 어려워 대중으로부터 멀어져가고 있다』고한탄했다。

가요계는 6·25이후세대가 주체를 이루면서 옛것을 경시하고 외래음악을 추종하는 이상기류가 일기 시작했다。이에따라 방송도 민요·트로트보다는 팝송을 앞세웠고제작사도 외국음반의 복사제작에만 주력했다。한편으로 작곡자들은 트로트나 로크리듬의 창작보다 어려운민요를아예내던져버렸고민요가수발굴에도힘을기울이지않고있다。

가요계에는 한때 경기·서도·남도민요를 하던 金英任·金惠蘭·이호연등 국악인이 신민요를 불렀으나「外道」를 한다는 국악계의 질시에 눌려 활발한 활동을 보이지 못했다。

쇠퇴해가는 신민요를 살리기위해선 작곡자들이 안일한 창작태도에서 벗어나 좋은곡을 만들고 역량있는 가수를 발굴해내야 한다。여기에 제작사의 지원이 뒷받침 되면「우리의 노래」를 되찾을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노래」인 新民謠가 쇠퇴하고 있다。외국가요의 범람과 작가、가수不在가 원인으로 과거 6、7년동안 새노래를 찾아볼 수가 없다。

해외 걸작 만화

◇파도 ◇남자의 마음

<김용순 무용연구소 안내>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심으로 본 김용순 무용연구소는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조국문화의 올바른 이해및 자부심을 심어주고 또한 우리 자녀들의 많은 성장을 모국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해 한국공연을 계획하고 무용단원 약간명을 모집합니다.

앞으로 더욱 사랑해 주시리라 믿으며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읍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연습시작 : 11월7일(첫토요일)

1982년도 계획

6월 : 제3회 무용발표회
7월 : 한국방문및 공연
12월 : 자선 공연

문의전화 : 751-8891(오후7시이후)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 공연함

연중무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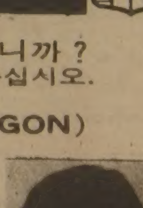
장 소 : 오리엔탈 팔레스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GREAT CHINA HERBS CENT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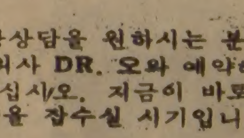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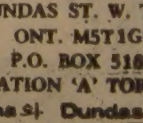
■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약은 없읍니다.

中国商業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 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大中華藥材行

482 DUNDAS ST. W. TORONTO,
ONT. M5T1G9
P.O. BOX 5161
STATION 'A' TOR.,ONT.
(Spadina와 Dundas북동 코너)
OPEN : WEDNESDAY
CLOSE : TUESDAY
*영업시간 : 9 : 00AM~9 : 00PM

977-8858~9

燕山主의 魅力 <5>

한국의 恋人들

野望의 歲月

全完吉 (太平洋 博物館長)

연산왕은 천재인가 아니면 천치인가. 천재와 천치는 종이 한장의 차이뿐이라니까 연산왕을 가리켜 천재랄 수도 있고, 천치라 말할수도 있겠다. 실제로 그의 언행을 추적해 보면, 천재로 느껴지기도 하고, 천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천재와 천치의 공통점은 보통 사람보다 커다란 꿈, 터없이 많은 순진성을 안고 있는데 연산왕은 바로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연산왕은 너무 커다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조선의 임금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중국에 조공을 바치거나, 중국을 큰 나라로 섬기는 것이 못마땅했다. 그는 중국의 황제를 능가하고, 중국보다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희망은 대신들의 만류와 비협조로 한갓 꿈이 되었으며 거꾸로 그 자신의 패망을 촉진시켰다. 만일 연산왕이 착실하게 한가지씩 중국을 능가하려 했다면 오늘날 한국의 위치가 달라졌을게다.

연산왕이 호조 참판 송질(宋軼)을 불렀다. 중국 북경에 갔을 때 황태자를 보았는지, 또 승정원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를 물었다. 1502년 1월19일의 일이었다.

이튿날 연산왕이 『중국에서는 태자가 1살이라도 책봉하는데 우리 조정에서는 반드시 영아(嬰兒)를 혹은 아홉살이 되기를 기다려 책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 것을 보면 맏아들 황을 빨리 세자로 책봉하려는 저의를 지울 수 없지만 이는 분명히 중국 황실(皇室)을 모방하려 한 것이다.

또 3월23일 중국에 사신으로 갔던 이병정(李秉正)과 이창신(李昌臣)을 불러 상세히 물었는데 문답내용을 보면 중국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

『태감(太監) 김보(金輔)가 사람을 보내 '재상(宰相)의 옷이 넓고 크지 못하니 중국 제도에 따르시오'하고 아청색 모시 2필을 보내고 침공(針工)으로 하여금 하룻만에 지어 다음날 조정에서 입도록 하였으며 이엄(耳掩)과 신발도 갖추어 보냈읍니다. 신하들이 조회할 적에 이를 입다가 모두 가지고 왔읍니다.』 『황제는 날마다 조정에 나와 조금도 간단이 없었고, 또 조정 안의 의식(儀式)과 문물이 새로와져 반열(班列)이 정숙하고 [illegible] 절도에 맞았읍니다.』

『황제가 천재(天災)뒤 경성연(慶成宴·제사뒤 잔치)을 거행하는데 재상이 일곱줄로 늘어 섰으며 신은 일곱째 줄에 앉았었읍니다.』

이 말을 듣고 연산왕은 『김보가 만들어 준 옷과 신발을 궁궐로 가져오라. 생김새를 보겠노라』하고, 황제와 황태자의 용모를 물고 또 『듣건대, 중국 조정에서는 황제에 대한 말을 숨기지 않는다는데 황제의 자손들은 번성해져, 황태자의 형제는 몇명이나 되든가?』고 물었다(이때 황제는 후궁을 거느리지 않아서 자손이 번성하지 않았다고 보고 했는데 연산왕이 세종이나 성종과 달리 후궁을 여럿 두지 않고, 자식도 6남매만 둔 이유가 중국 황실을 모방하려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또 연산왕은 중국(唐)의 현종(玄宗)이 3천명의 궁녀를 둔 것을 모방하여 전국에서 처녀를 징발하여 실제로 3천명의 궁녀를 거느리려 하였다. 궁녀뿐만 아니라 옛 중국 왕제들이 이궁(離宮)을 지어 피어(避御)하는 곳으로 삼았다 하여 장의사(藏義寺)앞에 호화궁궐을 짓도록 1505년 7월1일에 명령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만이 중국의 황제를 흉내낸 것은 아니다. 그는 1504년5월20일에 이런 명령을 내렸다. 『지사(知事)를 짜서 허리를 묶는 종아에 기록하고 도장찍는 규정을 중국과 똑같이 하라.』 또 자기 휘하에 있는 연산왕은 [illegible] 선도 중국산 [illegible]으로 법을 어 전오하고 [illegible] 했다. (1505년 4월13일). [illegible]

북쪽의 건주야인(建州野人)을 물리쳐 국방에는 하등 염려가 없었으며 내치(内治)도 초기에 업적을 이뤄 놓은데다 도둑을 잡기만하면 엄벌하였으므로 내외치(内外治)에 별 문제가 없는 태평성대(太平盛代)라고 믿고 있었으니까. 그러므로 연산왕은 자신이 연사에 훌륭한 임금으로 기록되리라 확신했고 조선의 명군(明君)에서 나아가 천하제일의 명군이길 바랐다. 그러자면 그는 중국의 문물을 수입하고, 중국의 황제 못잖은 치장을 한 것이 당연하지 사치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다. 그래서 연산왕은 1498년 중국에 가는 사신에게 명령하여 중국 물건을 많이 사오게 하였다. [illegible]

며(1504·9·5) 1505년에는 [illegible] 기술자 수 비단짜는 기술자를 비롯하여 보석가공기술자(玉匠)·거울만드는 기술자(鏡匠)·신발기술자(靴匠)·자수기술자(繡匠)·가죽옷 제조기술자·수레기술자 등을 [illegible] 보내 [illegible] 같은 모양으로 만들도록 [illegible] 하였다. [illegible]

뿐만아니라 연산왕은 중국에서 화장품도 수입해왔다. 즉 1505년 1월19일에 『연지·1천 편(片) 분 1천근을 연경에 가는 사신마다 사오라』고 왕명을 내렸다. 또 간택한 기생들의 옷을 당나라(中國·唐)식으로 고치라 하였는데 고찰할 방도가 없다고 예조(禮曹)에서 아뢰자 화를 벌컥 냈다.

만일 연산왕이 옷·보석·화장품·황실의 제도가 아니라 정부조직이나 선비훈련방법부터 중국을 모방하고 능가하려 했다면 당시 관리들의 호응이 컸을테고 그 자신이 패망하지 않았을 것이며 조선의 세계사적 위치가 달라졌을는지도 모른다. 연산왕은 자신이 천하제일의 제왕이라고 여긴 나머지 중국에서 온 사신을 무례하게 [illegible] 중국사신과 무예(武藝)를 겨루어 [illegible] 자존심을 보였으나 그것이 [illegible] 중국사신은 [illegible] 연산왕 자신이 [illegible] 고 판단하여 독단적으로 처 [illegible] 그러나 연산왕이 중국을 능가하려했던 커다란 꿈은 [illegible]의 하나다.

初期엔 큰業績 이룩 中國보다 強한나라 建設 꾀하고

天下제일 帝王자처 上國 使臣 푸대접해 콧대 꺾기도

燕山主의 魅力 <4>

한국의 恋人들

明君과 暴君의 共通点

全完吉 (太平洋 博物館長)

커다란 꿈속에 파묻혀 산 사나이 연산. 포부가 컸던 야망의 군주 연산주는 중국을 능가하는 왕국을 건설하여 중국의 황제 못지 않은 제왕으로 군림하려 했으니, 그는 당연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임금이라고 자부했다. 그래서 그는 조선왕조 초기의 명군으로 일컬어지는 세종·세조·성종의 치적을 모방했다.

부왕인 성종을 비롯하여 세조·세종은 몇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왜구·야인등 남북의 침략자들을 격퇴하고 국방에 주력했다.

둘째 서적 간행을 주관하거나 적극 후원했다.

세째 죄를 엄벌로 다스린 반면 인정을 베풀었다.

네째 음악을 애호하고 잔치를 즐겼다.

다섯째 후궁을 여럿 두었으며 많은 자식을 낳았다.

여섯째 효자들이었다. 왕대비의 명령을 법률보다 우위에 두기도 하였으며, 국법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대비의 호불(好佛)을 방임했고, 위로 잔치를 자주 마련했다.

일곱째 왕권(王權)을 강화하고 그것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여덟째 기술자들을 우대했다.

아홉째 무예(武藝)를 중시하고 무사를 우대했다.

열째 단명(短命)했다. 세종 54세, 세조 52세, 성종 38세, 그리고 연산은 31세에 죽었다.

지나치게 순진하다싶을 정도로 바보스러운 천재였던 연산이 이들 3왕의 치적을 간과할 리 없다. 더우기 신하들이 한결같이 세종·세조·성종을 명군이라 예찬했으므로 천하 제일의 명군이라고 자처한 연산이 당연히 세 왕을 능가하려 애썼다. 연산은 어린 시절을 그늘의 버려진 잡초처럼 보냈기에 부왕 성종에 대한 증오심에서도 무엇 하나든 뒤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쳤다.

그런데 이들 세 왕과 자신을 견주고 능가하려했던 연산은 세 왕처럼 명군이 되지 못하고, 왜 폭군이 되었는가? 그것은 세 왕과 연산이 등극했던 시기의 상황이 달랐기 때문이다.

세종은 태종의 세째 아들로서 장남인 양녕대군과 2남 효녕대군을 제치고 즉위하여 불안을 안고 있었던데다가 남북 국경의 침략자들 때문에 왕이나 신하가 모두 분주했다. 두만강변에 6진(六鎭), 압록강 상류에 4군(四郡)을 설치하고, 남쪽의 왜구를 어르는 일로 날이 지샜다. 성종도 그렇다. 왕위를 따진다면 예종의 2남인 제안대군이어야 마땅하지만 (장남인 인성대군은 요절했음) 덕종의 아들인 성종이 형인 월산대군을 제치고 즉위하였으므로 왕권에 대한 불만이 조성되고, 종실 살해사건도 일어났으니 (9월20일자 참조) 성종은 넌지시 신하들에게 미소작전을 써야만 했다. 세조의 경우는 더욱 그러했다. 그는 단종을 폐위시켜, 죽였을 뿐만 아니라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신하와, 그 자신을 옹립하는 신하들을 반목, 대립케 하여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나날을 보냈고, 북벌(北伐)해야 했으며, 이시애(李施愛)의 반란도 겪었다.

즉 성종, 세종, 세조는 바쁘고 어수선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연산의 치세기간은 이와 달랐다. 연산은 성종의 장남으로서 정당하게 즉위하였으므로 신하들이 일치단결하여 봉사했고, 초기의 국경불안도 끝 평정되는 등 불안요소가 없으므로 연산은 오히려 심심한 지경이었고, 천하제일의 명군이라는 착각을 갖게끔 되었다. 그러므로 연산은 아버지 성종을 비롯하여 세종·세조의 단면(斷面)을 모방하기에 이르렀다.

궁중에서는 잔치가 빈번했다. 술과 음악과 여자, 푸짐한 음식이 따르게 마련인 잔치는 태평성세의 상징이었고, 왕이 신하들에게 내리는 최대의 보너스이자 왕대비에게 효심을 나타내 보이는 궁중의 최대행사였다. 세종·세조시대는 물론 성종시대에 잔치가 자주 벌어졌다. 어린 [illegible] 은 그것을 보면서 자랐다.

성종은 오래 되어 허물어진 문소전(文昭殿)의 개수(改修)가 끝나자, 후원에다 용봉대막(龍鳳大幕)을 치고 큰 잔치를 벌였다. 잔치에 수보감역(受寶監役)·제조랑청(提調郎廳)·승지·예제집사관(禮祭執事官)·시위재추제장(侍衛宰樞諸將)·담여환관(擔輿宦官)·충의위(忠義衛)·전악(典樂)·반감(飯監)등 모든 신하가 참여하였는데 공에 따라 안마(鞍馬)·채단(彩段)·사라(紗羅)·포백(布帛)·호초·화살통을 푸짐하게 상으로 내렸다. 참석자들이 모두 크게 취하여 나왔다. 〈慵齋叢話 卷二〉▽ 뿐만이 아니다. 성종은 제 형 월산대군을 내전으로 불러다가 잔치를 벌였고, 또 나가서는 저자로 수창(酬唱)하여 하루도 그대로 보내는 날이 없었다. 〈[illegible]〉 또 왕대비(王大妃)를 위해서 날마다 궁중에서 조그만 잔치를 베풀고 내수비(內需婢) 데여섯을 뽑아서 속악(俗樂)을 배우게 했다.

종실(宗室)들과 후원에서 활을 쏘고 그 다음에는 종실과 함께 반드시 조그만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여기에는 음악과 기생이 뒤따랐다. 김흔(金訢)은 이러한 사실을 기록(先君子飮言往行錄)하면서 연산이 연악(燕樂)에 빠진 것은 이목(耳目)에 젖은 때문이니 안타깝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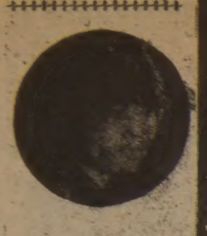
연산이 아버지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성미인데다가 의리 강하고, 인정이 풍부하며 종친들에게 남다른 우애를 보였고, 왕대비에 대한 효심이 지극하고 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고 술과 여자를 좋아하였으니 궁중에서 자주 잔치를 베푼것은 당연하다. 잔치 횟수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지만 몇가지만 간추려 보자.

1497년 11월25일, 3대비전에 축연(祝宴)을 올렸다. 그리고 종친·재상 2품이상과 실록청·홍문관·육조당상·대간·승정원·예문관에 입직한 제장(諸將)들에게 음식을 먹였다. 그는 잔치가 잦다는 대신들의 진언에, 대비전을 위하여 잔치를 여는 것은 효도에서 비롯되므로 낭비가 아니라고 묵살하고 성종보다 훨씬 더 많은 물품을 진상했다. 1501년 9월에 대비전에 [illegible] 1백여석을 진상하고 대비를 위하여 복세암(福世庵)·내불당(內佛堂)의 중들에게 [illegible] 주자, 대사간이 [illegible] 아뢰었으나, 연산왕은 대비전 진상이 성종 때에도 있던 일이라고 아랑곳하지 않았다. 연산의 말마따나 성종때에도 [illegible] 그러나 [illegible] 때부터 [illegible] 진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산은 월산대군의 가족을 궁중으로 불러다가 혹은 월산대군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성종이 월산대군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듯이.

천하제일의 明王으로 착각、世宗·世祖등을 닮으려하고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성미…義理강하고 人情많아

출판話題



한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한 손과 두 다리를 못쓰면서도 그 시련을 이겨내고 올봄에 東國大學을 수석으로 졸업하여 많은 사람을 감동시킨 方貴姬양(24)이 자신이 겪어온 처절한 사연과 갈등을 사실적인 고백수기 형식으로 쓴 「그래도 이 손으로」라는 책을 냈다. 이 고백수기는 지난 7월 KBS 심신장애자 수기 공모에서 「동정은 싫어요, 사랑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1등 당선이 된 내용을 담은 것이다.

方貴姬양 「그래도 이손으로」 出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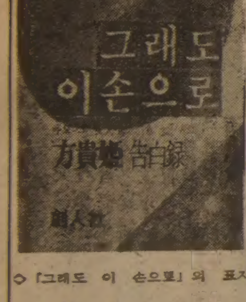
소아마비 不具딛고 쓴 장편 告白手記

■휠체어타고 통학

方양은 신체장애의 시련을 극복하며 無鶴女高와 東國大學을 모두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한뒤 다시 東國大대학원에도 수석으로 진학하여 불교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장래에 대학교수가 될 희망을 펴고있다.

거의 순교적인 어머니의 사랑으로 국민학교에는 어머니 등에 업혀 학교를 다녔고 여학교때부터는 줄곧 휠체어를 타고 통학을 한 그는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켰다.

『나를 업어 나르는 일부터 교실에서 책장을 넘겨주는 일까지 모두가 온통 어머니의 눈물자국 뿐 이었다.』



◇「그래도 이 손으로」의 표지

이러한 어머니의 희생속에서도 그는 건강한 의지를 가지고 꿋꿋하게 살아왔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을 다지며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오는 가운데 언제나 뛰어난 학업성적을 올릴수 있었다.

또 음악과 미술·문학등 예능분야에도 뛰어난 재질을 발휘하여 여러차례 특선을 차지했다.

方양은 여고졸업후 醫大에 진학하려고 했으나 신체장애의 조건 때문에 그것이 거부되었다. 그러나 그 충격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고통 내代에서 끝나야

이 수기에서는 또 사랑에 대한 [illegible] 고뇌도 털어놓고 있다.

『내가 겪지 못해서 느껴야 하는 고통은 내 代에서 끝나야 한다구. 남편과 아이라는 것을 굳이 만들어 고통을 나누어 주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하거든…』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를 뜨겁게 사랑하던 남자를 떠나 보내게 하고 『한 없이 울고 또 울었다』고 한다.

그녀는 [illegible] 고백의 기록 1천2백50장의 원고를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마비된 손으로 [illegible] 나갔다.

요즈음은 학교에 나가는 한편 KBS 제1라디오에 「方貴姬장편」을 [illegible] 낭독하기도한다.

이 작업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다.

方양은 이 수기의 제목이었던 「동정은 싫어요, 사랑해 주세요」를 自作詩로 이렇게 읊고 있다.

〈나를 사랑한다구요?/고마워요/하지만/사랑이 아니에요, 그건/동정인 거예요/날들이 그러더군요/나에 대한 사랑은 동정이라구/동정, 수정, 애정/동정과 [illegible] 있죠/[illegible]/[illegible] 사랑이 [illegible]/가 없어요/[illegible]/나는 [illegible]/정이란 단어를/제일 싫어요/사랑해 주세요〉

아픔 참으며 木刻하듯 원고지 메워

구독신청 배달사고 [illegible]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5局 第2譜 19~32 (각 5시간 덤 5집반)

白 (6段) 姜 哲 民 〈1敗〉

黑 (4段) 姜 勳 〈1勝〉

[illegible] 姜6단은 徐奉洙7단에 [illegible] 했고, 姜4단은 徐能旭6단에 [illegible]했다. 이래서 「姜씨와 姜씨의 대결」은 우선 1승1패지만 이바둑에서 [illegible] 의 실력은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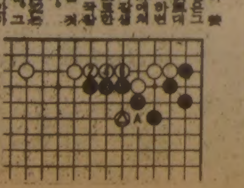
이 한판을 [illegible] 姜4단이 재각기 조심조심 [illegible] 필승의 결의로 임하고있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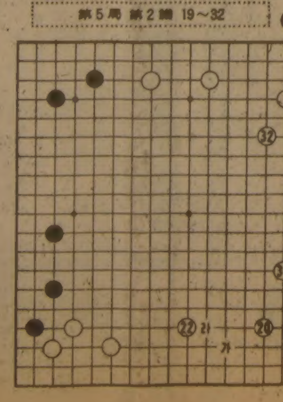
黑이19에서 21로 우변에 집을 짓고 다음 黑「가」와 23을 맞보기로 하자 白은 20에서 22로 하변을 장악하여 白22는 「나」에 [illegible] 黑「라」면 白「마」하는 식으로도 둘 생각에 [illegible] 곳이었다.

白22의 黑23의 응수는 예정된수이하 白30까지는 누가두어도 이렇게 될 외길이다. 그런 白30을 3분가량 숙고하고 두었는데 黑31은 [illegible] 이수로 한번의 「마」자리가 좋

長期戰 양상으로

[illegible] 黑32 [illegible] 자 황금같은 黑-이하 7로 △곡가 분단된 느낌이어서 [illegible] 이다. 따라서 [illegible] 그는 어쨌거나 [illegible] 은 [illegible] 전이란 가능성이 [illegible] 서 黑4단의 승리가 [illegible]. 【一凡】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5局 第1譜 1~18 (각 5시간 덤 5집반)

白 (6段) 姜 哲 民 〈1敗〉

黑 (4段) 姜 勳 〈1勝〉

올해의 본선리그에는 공교롭게도 同姓이 「두쌍」이나 생겼다. 즉, 徐奉洙7단과 徐能旭6단 그리고 姜哲民6단과 姜勳4단. 이들의 本貫이나 항렬따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어차피 기사 본인들은 「한국기원 소속기사면 동기간과 다름바없는 한집안식구이므로 굳이 따질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식으로 모두가 선후배 처지에서 다정히 지낸다—좌우간 이바둑은 一長一少의 종씨로 화기애애한 가운데 출발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종반전에서부터 파란을부르며 쌍방이 제한시간을 거의 다쓰면서 두터 322수라는 최장기록을 세우고 黑과 3집반 차의 승부로 끝을맺었다.

누군가가 불쑥던진 조크처럼 「강함의 姜씨」다운 끈기와 전투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본인들보다 곁에서 보는이가 끝까지 손에땀을 쥐었던 激戰의 譜라 할만한 것이었다.

姜6단의 세력작전은 자고로 유명하다. 그래서 白2, 4등 화점바둑은 전매특허라는 말까지 듣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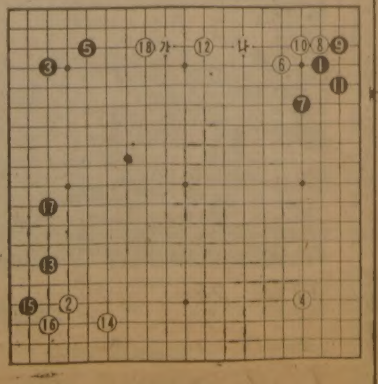
黑1, 3에서 5로 굳힌이상 白6은 당연한 걸침이며 이에대한 黑7의 日字도 당연.

따라서 白8이하 12까지의 정석도 역시 당연한 귀추라고 한다.

大姜 少姜의、화친대국

黑은 자전의 기로에서 13이하 17로 우선 좌측에다 세력을 부식하려한다. 여기까지 하나의 포석표본이 될의호투파도같이 거침없이 진행 되었다.

白18에 비로소 3분을 소비 했다. 장차 黑「가」로 육박하여 黑「나」에 침입하는 수를 예방한 것인데, 이러한 포석의 골격은 십중팔구 장기전으로 이끌어가기 마련이다. 【一凡】



◇청소년들은 차츰 「우리」라는 의식을떠나 「개인」의 중요함에 눈떠가고있다。

청소년價値觀 점차 西歐化
「우리」에서 「나」로
청소년 지도育成會서 조사

우리나라 청소년들은「우리」중심적인 전통적가치관을 서서히 떠나「개인」중심의 가치관으로 옮아가고 있다。그들은 父母님의 말씀이라도 옳지않은 경우에는 따르지않겠다는 반응을 보이고、버스에서 무조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보다는『되도록 양보하겠다』는 반응이 높다。그들은 또 국가 민족을위한 헌신보다는 자기개인의 완성을위한 노력에 더많은 점수를준다。

中央青少年지도육성회는 지난62년부터 80년까지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조사된 각종 조사보고서와서울청소년회관이 금년에 실시한『청소년 일상생활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를 비교분석、『青少年의 가치관변화에관한연구』를최근발표했다。이조사결과중에서 먼저 생활목표를보면『완전한 인격형성』(56%)、『돈이나 명예를 생각지않고 취미에 맞는 생활을한다』(29·3%)、『不正을 이기면서 정직하게산다』(27·4%)、『타인과의 사랑과 성실』(31·3%)、『화목한가정』(26%)등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하는가』란 질문에는『나좋은대로 살아간다』(60·8%)가 가장 높고『사회를위해 기여하겠다』는 17·7%에 불과했다。『국가와 민족의 향상발전을 위해』(12%)、『자신을 생각지않고 국가사회를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며 산다』(3%)、『국가사회에의 헌신』(8·9%)등 국가·사회적차원의 목표에 대해서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있다。

『어느때 행복을 느끼는가』란 질문에는『계획이 실현됐을때』(58%)『이성문제』(5·97%)『어떤일에 몰두할때』(43%)가 많았다。근심과 불안을 주는 문제는 대학생을대상으로한 62년도의 조사에서는 개인의 처신문제(63%) 국가의 정치·경제적불안(15%)생계문제(9%)등이 많았으나 80년 조사에서는 처세와 인간관계(40·5·3%)、학업문제(19·34%)、취업문제(15·6·4%)、국가의 정치적불안(7·4·1%)등의 순이었다。

금년의 조사에서 중학생의 고민·불안거리는 공부(27·2%)가족관계(5·8%)의 순이었다。

효도는 오늘의 청소년들에게『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부모의말에 무조건 복종해야한다는 식의 전통적인 가치관은점점 퇴조하고있다。64년 조사에서는『젊은 사람은 大小事를 막론하고 父母와의논해야하며 자기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에 42·8%가 찬성、50·4%가 반대했으나 76년조사에서는 89·4%가『선택적 복종』을 찬성하고 있다。효도에 대해서도『자식이라면 꼭 효도를 해야한다』가 62·62%인 반면『경우에따라 다르다』도 36%나된다。

만원버스안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문제에 대해 69년조사에서는96%가 찬성했으나 74년조사에서는『되도록 양보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16·9%는『경우에 따라 양보하지 않아도 좋다』는 반응을보였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父母말씀 복종 褪色
人生 사는方法엔 나 좋은대로 60·8%

詩壇

"詩人의 다섯 손가락"

金仁燮

식구 셋에 손가락 다섯……。
풀잎같이 헤무른 마디마디
떨쳐야 고작 한 뼘인 욕망도
저리 다물고
어디에 홀로 무엇을 닫고 선들
꽃고비 사흘을 못가누랴 마는
날마다 젖는 이슬。
해살바람 휘어지며
허드레바닥에 먹숙하느니
푸른 나그네가 된다。
때로는 넘쳐 부삽
곰사판 독도처럼
때로는 어머니 치마폭
바늘 된 골무처럼
집안팍 주름살 여미다가
생채기 눅히는 다섯 손가락。
잡혀지지 않는 하늘로
과람한 별을 캐듯
詩人은 오늘도 詩를 캐고
식구는 철차없이 詩를 먹고 자란다。

連載小說

술물두살의 자서전 ㊺

金洪信 作
崔然石 畫

"한방에 안쓰러지는놈엔 주먹공사 형님으로 모시지"
꿈쩍 않는걸 보니 주먹장사깨나 한것처럼 보이는군

난 주먹이 앞서는 놈야, 딴말하면 땅벌통에 쑤셔박아
오랫만에 떼거리들에 몸풀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려

양계장 앞에서 사방을 휘둘러 보았다。양계장치곤 좀 허술한 데가 있어 보였다。포장 안된 찻길 위로 자동차 바퀴자국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사람이 뜸한 외진 산골 밑에 양계장이 자리잡고 있는 것부터가 냄새를 풍기는 곳이라는 직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난 깔끔한 놈이라 옷에 흙 묻히는 게 싫다。더구나 손바닥에 피 묻히긴 싫어하지。아까도 봤겠지만 난 요새 주먹공사라는 걸 차렸어。한방에 안떨어지는 놈에게 형님이란 존칭을 쓰지。』

녀석들은 저먹은 표정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나는 느물거리며 말을 계속했다。

『가서 점잖은 손님이 오셨다고 상 차리라고 일러둬라。난 이렇게 너무 신사적인 게 흠이지。』

한 녀석에게 이렇게 일렀다。녀석은 허리를 납작 수그리고 일어나 양계장으로 뛰어갔다。

『너희들도 가。가서 형님 호위해 드려。』

지난줄거리

신사동 애들은 당대에 가장 조직이 큰 가람치 형님 휘하의 진짜 전문가들 두 녀석이나 데리고 와서 총찬이와 일생을 건 한판 승부를 걸었다。총찬이는 가볍게 녀석들을 해치우고 신사동 깡패집단을 해체시켰다。김포에서 소식이 와서 달려간 총찬이는 의외로 딸리 부정 휘발유 생산공장의 증거를 확보하게 됐다。총찬은 그 공장의 졸개를 앞세우고 비밀을 캐러 떠난다。

나는 나머지 녀석들의 엉덩이를 걷어찼다。주빗거리면 녀석들이 우르르 뛰어 갔다。

난 기습공격해서 때려잡는 걸 싫어했다。뒤통수를 갈기거나 뒤에서 아가리로。썩어대는 녀석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성미였다。

정정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상대라면 비록 나보다 솜씨가 없더라도 나는 그를 믿지만 비겁한 녀석들을 보면 속이 뒤틀리곤 했다。

서부활극을 보면 언제나 주인공은 뒤에서 총질하거나 비겁하지 않게 마련이었다。

좌우간 그 놈의 서부활극을 보면 양코박이들 조상은 죄다 너무 신사적이고 너무 인간적이고 죽음앞에서도 너무나 담대한 씨알머리들이었다。

그 당시의 서부개척 기록들을 살펴보면 양코박이들의 훌륭한 조상 총잡이들처럼 비겁한 사내들은 없었을 것이다。이제 와서 독일의 포로수용소나 왜놈들의 잔악성을 힐난하고는 있지만 그들의 자랑할 만한 서부개척시대의 조상들은 대개 사람 사냥꾼들이었다는 걸 잊어버린 걸까?

나는 서부활극을 볼 때마다 울화통이 치밀어 견딜 수 없었다。지금이라도 당장 총잡이 한놈을 골라서 나와 대결을 붙여줄 프러모터는 없을까?표창 한개로 그들의 서부활극이 얼마나 사기극인가를、그리고 서부개척시대의 그 오합지졸들이 벌인 사람 사냥의 치사함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싶었다。

뒤에서 총 쏜 놈만이 살아서 큰소리 쳤던 서부벌판 위에서 그들은 지금도 세계적 사기극을 영화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난 다르다。어떤 놈이 뭐라든 나는 정정당당하게 붙어보고 싶었다。내가 죽어 나자빠진다면…나는 차라리 목숨을 살리기 위해 뒤통수를 갈길 것이다。어떤 것과도 목숨하고는 바꾸지 않을 생각이었다。그러나 가능한 한 나는 정정당당하게 대결하고 싶었다。상대가 비겁하게 나오지 않는한 말이다。

하나님、서부활극시대에 저 유명한 비겁함의 극치를 왜 조작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까?그 영화를 본다고 해서 똑똑한 사내들이 양코박이들의 위대함을 믿을 줄 아십니까?어림도 없다구요。뒤에서 총질한 놈들만 살아남는다는 건 진리 아닙니까。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구요。너무 그러지 마요。

부자들만 봐주기에요?

왜놈들 봐요。그 씨알머리를 역사책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하나님은 알겠죠。우리나라는 조상이 일본인이었다고 떠들고 옛날부터 왜놈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했었다고 쓰여 있잖아요。

부자되면 간 덩어리가 부어도 눈 딱 감아주는 겁니까? 부자 편 들다가 망조 드는 사람 한 둘인 줄 알아요。하나님은 공평하라고 만든 거잖아요。

좀 봐줘요、높은 자리 있을 때。

문이 열리고 생김새가 고약스러워 보이는 사내가 나섰다。그 뒤로 사내의 졸개처럼 보이는 사내 둘이 몽둥이를 들고 나왔다。나는 껄끄럽게 웃어주었다。사내가 그런 나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나 제 점잖은 선사라고 일렀는데…화나면 좀 무서울 걸。』

계사 옆에 주저앉으며 이렇게 말했다。졸개 녀석들이 몽둥이를 꼬나잡고 한발 한발 다가섰다。

담배를 빼어 물고 성냥개비를 졸개들에게 던졌다。움직임이 빨랐지만 긴장된 동작으로 보아 풋나기가 확실했다。꿈쩍않는 사내는 제법 주먹장사를 했다 싶었다。

『어린애들은 그런 거 가지고 노는게 아니다。』

내가 계사 속의 닭들에게 모이를 뿌려주며 말했다。

『너 뭐하는 놈이냐?』

사내가 낮지만 위엄있게 한마디 던졌다。

『형씨는 혀가 반토막인가? 혀 뽑아주는 데 내가 기술자지。』

『샹、저 새낄。』

졸개가 몽둥이를 치켜 들었다。

『어허、애들은 일찍 자야지。』

내가 모이를 녀석들에게 뿌려 주었다。

『뭐하는 놈이냐?』

사내가 크게 물었다。나는 비척비척 사내 쪽으로 걸어갔다。

『친해지려면 악수부터 해야잖아。동포끼리 왜 악쓰구 그래。목소리 크면 경범죄야。』

내가 두어발짝 좀 떼어놓자 졸개들의 몽둥이가 휙휙 날았다。

『애들이 다치려고。』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두 녀석의 복부를 걷어찼다。

으억!으어억!

팔자로 내뻗으며 누웠다。사내가 몸을 사리고 주먹을 쥐었다。

『저런 애들 데리고 살자면 속께나 썩겠구먼 그려。』

사내가 대꾸없이 달려들었다。태권도 솜씨가 제법이었다。태권도 몇단쯤 된다고 해도 믿을만한 동작이었다。발 동작과 내뻗는 주먹이 그걸 증명하고 있었다。

걷어차는 발길을 위로 걷어치고 내딛는 발을 살짝 밀었다。사내가 뒤로 벌렁 누웠다。나는 사내의 복을 구둣발로 밟았다。

『난 성질나면 앞이 안보여。묻는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널 묻어주고 갈 수밖에 없어。』

『말하쇼。』

『좀 예절공부부터 해야 쓰것다。』

『말씀해보슈。』

『여기서 비빔밥 만들지?』

『보다시피 양계장 아뇨?』

『난 거짓말하는 애를 보면 이해를 못해。』

녀석이 비명을 지르며 기침을 해댔다。

『비빔밥 어디서 만들지?』

『……。』

『네 호적초본에 일찍 염라대왕 만나라고 쓰어 있었겠구나。』

『그게 아니고…。』

『알아、그게 아니고는 빼고 시작해。난 성질이 급해。』

『저…。』

녀석의 신음소리가 기어들어가는 것 같았다。목울이 눌려서 버둥거리고 있었다。

『손들어!』

문소리가 나고 바로 거구의 사내가 내게 공기총을 들이댔다。내가 고개를 돌리자 목줄 눌렸던 사내가 엉금엉금 기어서 문쪽으로 갔다。나는 웃었다。공기총을 들고 선 사내의 덩치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씨 총 잘 쏘슈?』

내가 돌아서며 물었다。

『손들고 돌아서!』

『뒤로 돌아를 배운적이 없는데。』

이미 내 손엔 표창 두 자루가 쥐어져 있었다。

『이 새끼가 뒈지고 싶어서。』

사내가 나를 정통으로 꼰았다。

『그거 한방 쏘고나서 다시 장전하려면 시간 걸리잖아。몰총 가지고 나오지 그랬어。』

『죽인다!』

사내는 정면으로 나를 겨냥했다。공기총 알이 납덩어리라는 건 알지만 총알만한 총알 앞에 기가 죽을 내가 아니라는걸 그 사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것 같았다。

『몇마디 사실대로 지껄이기만 하면 살텐데 왜 그러나。』

사내가 약간 총을 내렸다。

『뭐야?』

『비빔밥 만드는 것 좀 가르쳐줘。나도 먹고 살아야잖아。』

『이 새끼가 정말 뒈지려고 환장했구나。 팍!』

녀석은 정말 쏠 동작을 취했다。

『환장하지 않고 여길 왔겠나。이 사람아。』

『어허!』

『없는 처지에 같이 먹고 살자니까 그래。』

사내가 졸개들에게 눈짓을 했다。졸개들이 빨래줄을 꼽어가지고 내게로 다가섰다。

『움직이면 쏜다。꼼짝 마。빨리 묶어 이 새끼들아。』

졸개들이 바짝 다가섰다。나는 재빨리 졸개들을 내 앞으로 당기며 표창을 던졌다。

사내가 앞으로 푹 고꾸라졌다。총알이 공중으로 바람을 가르며 뛰었다。

『내가 일렀지。장난하다 다친다고。』

표창을 뽑아주고는 벽을 후려쳤다。사내가 선 채로 한바퀴 빙글 돌아 쓰러졌다。

『다들 들어와라。우리 정답게 회담이나 하자。』

사내와 졸개들은 우르르 계사 옆의 벽돌집으로 들어갔다。

『너、문 걸어 잠궈。』

졸개가 문을 닫고 구석자리로 갔다。

『나 말보다 주먹이 급한 놈이다。순순히 대꾸하지 않으면 한 열흘간 밥 못먹게돼。다이어트 하고싶은 놈은 대꾸 않아도 돼。』

사내가 앞 자리에 앉고 그 뒤로 졸개들이 앉았다。나는 사내의 턱을 들어 올리고 물었다。

『비빔밥 어디서 만드나?』

사내가 고개를 숙이고 잠시 틈을 들였다。

『성질 급하댔잖아。』

이런 녀석들은 입이 무거운게 상식이었다。범죄자의 최후수단이란 묵비권과 기가 막힌 알리바이 뿐이라는걸 나는 알았다。

턱、옆구리、정강이、어깨죽지 순으로 주먹이 날아갔다。숨쉬기를 잠시 중단했던 사내가 손을 내저으며 얘기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사실…저 형씨가 생각하듯 그런 게 아니라…』

『난 진실만을 좌곤한 것만을 사랑한다구。』

사내가 한방 얻어맞고 내 발등앞에서 바르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하겠어요。합니다。제발…저…재들 내보내줘요。곤란하니까。』

『허튼 수작하면 땅벌통에다 쑤셔박는다! 알았어?』

『예。』

『너희들 나가 있어。』

사내가 눈짓을 하자 졸개들이 우르르 몰려 나갔다。나는 사내의 눈짓 속에서 체념보다는 졸개들이 나가서 어떤 구원의 손길이 미치기를 바란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다。고작해야 이 바닥에서 힘깨나 쓴다는 녀석들 기십명쯤이 떼거리로 몰려드는 것이겠지。벌치 사형만 빼곤 어느 놈이든지 자신이 있었다。오랜만에 떼거리들한테 몸을 풀고 싶다는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난 이런 문제에 있어서 프로페셔널이라고 자부하고 싶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기준은 역시 어떤 분야에 전 생애를 걸었느냐 아니냐 하는 데서 구분이 되는 것같다。

프로는 한판 한판의 승부마다 몸을 부르르 떨만큼 승부욕에 차는 것이다。프로기사나 프로 권투선수나 마찬가지인 것이다。나는 주먹과 의협심에 있어서만은 프로라고 자부한지 이미 오래였다。

『좋다。이제 시작하자。분명히 밝혀두겠는데 허튼 말 한마디 마다 뼈가 한조각씩 바스러진다는 걸 잊지마라。』

『압니다。』

『비빔밥 어디서 만들지?』

『저쪽 계단 쪽으로 사무실에 지하실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 드럼이나 만들어?』

『많이 못해요。』

『이 새끼가 일러줬는데도。』

주먹이 올라갔다。녀석은 뒤로 발랑 자빠져서 끙끙거렸다。

『묻는대로 정확히 대답해라。난 약속 지키는 게 취미다。』

녀석은 눈물을 찔끔 쥐어짜고는 아픈 곳을 주물렀다。

『하루에 몇드럼이야?』

『대중 없지만…서너 드럼씩 만듭니다。』

『그걸 어디다 팔아?』

『개인에게도 팔고 주유소에도 팝디다。』

『한 드럼에 얼마씩。』

『주유소엔 십일만원요。』

『개인에게요?』

『십이만원도 받고 십일만원도 받죠。』

『어느 주유소 거래해?』

『그건 잘 몰라요。』

『개새끼。』

악!

녀석은 나가 떨어져 바둥바둥 떨었다。

『내 비위 맞추는 게 좋아。』

『정말입니다。나는 만들어 넘기지만 합니다。파는 건 외팔이 형님이 하니까요。』

『외팔이가 누구야?』

『K동 피주 형님 말예요。』

『손목 나간 애 말이냐?』

『그래요、이거 그 형님 거예요。전 관리만 해요。』

『그 새끼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구나。좋다、그럼 비빔밥 만들때 기술자가 따로 있다는데 너 혹시 기술 배운 거 아냐?』

『예、제가 직접 배워서 애들 시킵니다。』

『지금 느네 애들이 외팔이 델려 갔겠구나。』

『…。』

『그래、안그래?』

『그럴지 몰라요。외팔이 형님이 그냥 있진 않을 거니까요。』

나는 숨을 깊게 내쉬었다。춘삼이 형님이 결국 외팔이한테 당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춘삼이 형님은 외팔이의 배 선배지만 파가 달라서 당한 것 뿐이었다。외팔이라면 가물치파의 선봉장이랄수 있는 가물치파의 핵심인물이었다。춘삼이 형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결국 벌치 사형과 나를 묶어서 가물치와 한판 붙여보려는 속셈이란 것도 알것 같았다。

나는 결코 어느파의 선봉장이 되어 다툰 파벌과 붙기는 싫었다。그것이 내가 지켜온 이 바닥의 지조일뿐아니라 스님한테나 형님들 한테 배운 내 신조였다。

일이 확대되기 전에 빨리 이 일만 끝내고 사라질 생각이었다。나는 아무리 급박한 사정이 있더라도 어느 집단을 위해 일할 생각은 없었다。

『어떻게 만들지?』

『뭐、별건 아닙니다。외팔이 형님이 그냥 있지 않을텐데요。』

『그 전에 네가 살아남지 못하겠지。』

녀석은 또 한번 바닥으로 쥐울며 악에 바친 신음소리를 내었다。

『부정휘발유 누가 만들어 쓰기 싫어 안쓰는 줄 알아、임마。공해에다 위험하고 엔진파손에다、폭발력때문에 사고가 나니까 그렇지。이 새끼 누굴 바지저고리로 알아? 칼도마 되고싶어 환장한놈 아니면 빨리 털어놔。』

녀석은 눈을 질끈 감고 나불거렸다。못견디겠던 모양이었다。

『솔벤트와 톨루엔을 일대 일로 섞습니다。』

『그리고。』

『그리고는 석유를 한말 첨가합니다。』

『얼마를 만드는데 석유를 한말이나 붓는 거야。』

『솔벤트 한 드럼과 톨루엔 한드럼에다가요。』

『왜 섞어?』

『폭발성이 너무 강하니까 좀 줄여야죠。』

『그리고 또。』

『인제 수입품인데 … 그건 무슨 약인지 몰라요。형님이 상표도 떼고 갖다주니까요。천오백원인가 한다는 소리만 들었는데…그걸 넣으면 냄새가 없어지고 휘발유처럼 돼요。』

『두가지 섞으면 무슨 성분이 되나?』

『말하자면 신나가 되는 셈이죠。』

『더 할 얘기 없나?』

『유공 건 냄새가 더 나기 때문에 유공정유 제품을 섞어요。』

『그 약 섞으면 정말 악취가 말끔하게 사라지는 거냐?』

『정말 감쪽같아요。웬만한 사람은 구분할 수도 없죠。』

『미군부대에서 빼내는 기름은?』

『그런 건 우리 안써요。』

『임마、휘발유하고 비빔밥하고 뭐 구분못해?』

『맨 나중에 색소를 넣거든요。』

『솔벤트하고 톨루엔을 어디서 다량으로 구입해?』

『가게 하나 있어요。』

『무슨?』

『페인트 가게 말입니다。』

『페인트 가게의 신나 보유량은 서말 뿐이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형님이 알아서 하죠。』

나는 녀석을 끌고 지하실로 내려가 보았다。

(다음주에 계속)

부부화목 모범가정, 밝아지는 교포사회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事件수사 人權보호에 最善"

國會 本會議 질문답변끝내 賃金가이드라인 撤廢

87년내 農業災害보험 실시

서울市權限 區·洞 대폭이양

南悳祐국무총리는 14일 『수도서울의 계획적 개발과 市政의 효율적운영을 위해 서울시본청에 집중되어있는 권한을 區·洞에 대폭이양, 자치적인 성격을 띠는 방향으로 기구개편작업을 진행중이며 멀지않아 이를 발표할생각』이라고 말했다. 南총리는 이날 하오 국회本會議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고 『서울시 기구개편의 기본원칙은 市本廳에 집중된 업무를 區·洞에이양하여 區·洞의 自治역량을 기르고 本廳은 기획·조정·감독기능을 강화하는 中·長期계획을 세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教員大學설립·私學法개정검토

그는 『농업災害방지를 위한 장기대책으로 87년도에는 水稻作에 대한 농업災害보험제도를 실시할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李鍾元법무장관은 『최근경찰이 강력사건을 수사하면서 情況증거가 농후한 용의자를 양해를 얻어 대동수사한것이 불가피하게 있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人權보장과 사건해결이 동시에추구되도록 수사요원들에게 인식시켜 人權을보호하면서 과학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강력사건의 경우 초동수사단계에서 부터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도록 하겠다』면서 『수사상 필요하면 합법적 구속제도를 적의 활용하고 人權유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李장관은 또 『긴급구속 제도는 현재연구중이며 활용방침을세운일은 없다』면서 『경찰수사독립은 현재 再論의대상이 아니며 그시기도 아니다』고 답변했다.

李奎浩문교장관은 『85년부터 面이하부터 단계적으로중학교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도서지역 저소득층을위해 83년부터 學費減免확대와 아울러 初中高병설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李문교는 『大入학력고사제를 폐지할생각은 없다』고말하고 學制개편에 대해 『섣불리 말할수는없으나 현행學制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일이 없도록 연구가진행중이며 현행교사교육이 성공했다고 말할수 없기때문에 教員대학교 설립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私學의공공성과 가지원의 정당화를 위해 私學法을 개정했으나 이법이 學運영자의 개성적교육과 교육자체를 감퇴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있어 私學法개정을 검토할생각』이라고 답변했다.

李장관은 외국어교육에 대해 高大연합고사와 대학입시에 회화과목삽입여부는 시간을두고 연구해볼문제라고 말했다.

千命基보사부장관은 『83년부터는 16人이상業體, 85년부터는 5人이상업체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제를 적용할것』이라고 말하고 『의료비酬價를 오는86년까지 一元化하고 각市道가 의료비상한선을 고시하는한편 병원운영을 합리화하여 의료수가를 높이지않도록 하겠다』고밝혔다. 그는 또 83년까지 無醫村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權重東노동부장관은 내년에는 일반업체의 賃金인상에 있어 정부가 일정한 한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않고 勞使간에 自律的으로 하도록할방침이며 賃金심의제를 與件이 허락하는대로 부분적으로 시험적실시를 해볼 계획이라고 말하고 『최저 임금제도를 개발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이 倒産해도 法定기간인 3년이내에 어떤일이 있어도 체불임금이 지급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權장관은 『失業인구는 약70만으로 작년의 같은기간에 비해 (2·4분기) 9·2%가 줄었다』고 밝히고 『求職대책을위해 직업안정법을개정, 一元化해 직업안정망을 현실화시킬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관련, 『고용보험문제를 검토중이며 직업훈련도 연간 10만명 규모로 실시, 취업토록 하는 문제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李光杓文公장관은 『정부로서는 언론기본법을 개정할생각이 없다』고 거듭 확인하고 해외교포를 위한 홍보대책으로 현재 교포들이 경영하는 라디오 6개, TV7개등 언론매체에 국내 TV나 방송의 작품등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오늘부터 常委활동

국회는 14일의 사회문제질문을 마지막으로 7일간의 本會議 對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고 15일부터 오는11월3일까지 本會議를 休會하고 일제히 常委활동을 벌인다.

이날 마지막질문에는 洪禹俊(民正) 金燦于(民韓) 曺李富의원(議同)등3명이나서 최근의 人權유린수사 교육정책 의료문제 公害對策등을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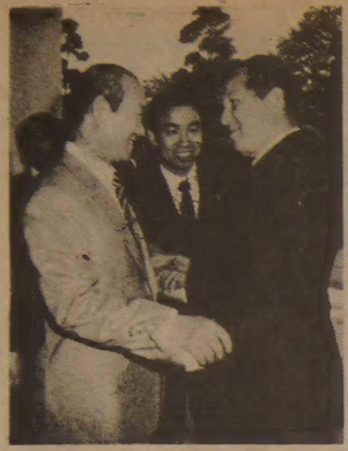
金燦于의원은 ▲海洋자원보호 ▲公海上의 汚染규제법제정 ▲自然보호운동의 民間主導 전환 ▲廢棄物 처리에 대해 묻고 ▲環境廳을 環境部로의 昇格필요성 등에대해 추궁했다.

曺李富의원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보장 ▲80年代의 종합적인 農漁村개발계획 ▲농업재해의 영구적 豫防대책 ▲水産災害 補償法의 제정 ▲과학수사를 위한 劃期的對策 ▲赤潮현상과 食水汚染대책 ▲人口抑制 대책과 失業者의 再教育취업기회擴大에 대해 추궁했다.

"低質炭 行政책임자 問責하라"

民正성명

國政調査權발동 추진 民韓·국민당



◇ 全斗煥 대통령이 14일낮 청와대를 告別禮訪한 카라소 코스타리카 대통령을 맞아 惜別의情을 나누고있다.

民正黨은 14일 최근의 低質炭사건에대해 성명을발표, 『관련犯法행위자들은俗稱 송사리만 처단한다는 舊시대의 폐단을 과감히 탈피하여 이번만은 地位의高下, 사회적신분의 輕重을 不問하고 엄단되어야한다』고 말하고 『특히 이런不條理와 관련, 모든 行政책임자와 감독자들은 온 국민이 납득할수있게 問責되어야한다』고 촉구했다.

民正黨은 이날 낮12시 국회에서 黨職者회의가 끝난뒤 李鍾燦대변인을 통해 이같이 성명을 발표하고 『犯法업자가 영세서민을 기만해가면서 취득한 엄청난 不當利得은 現行法 테두리안에서 全額還收되든지 그이익이 피해받은국민에게 환수되도록 적절한행정조처를 촉구한다』고 말하고 『이는 우리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지않고 새로운각오로 생산수급에 원활을기하도록 大局的 견지에서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 줄것을 국민과더불어 엄숙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民韓法令特委구성

民韓黨은 低質연탄과 不正부패공무원에 대한 國政調査특별위원회 구성에관한 결의안과 최근수사기관의 인권유린사태와 관련, 人權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관한 결의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키로했다.

高在淸民韓黨총무는 14일 『이두결의안을 15일 국회에 제출, 11월3일 열리는 국회본회의에서 정식 발의시킬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두가지결의안은조사特委위원수를 각각 10명으로하되 與野동수로할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高총무는 또한 이날人權유린수사와 低質炭문제를 조사하기위해 內務및 商工委에서 國政調査權을 발동하고 국회法令정비특위구성안을공동으로 발의할것을 李鍾贊 民正黨총무에게 제의했다.

高총무는 『民正黨이 이제의를 거부할경우 民韓黨독자적으로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朴動資 不信任키로

국민당은 14일하오 의원총회를열고 低質연탄문제와 관련, 朴鳳煥動資部장관에 대한 不信任결의안을 제출키로했다.

국민당은 이날議總에서 民韓黨과 함께 저질탄사건에대해 國政調査權을 발동하기로하고 소속의원25명의 서명을 받았는데 결의안 제출시기는 黨職者들에게 一任했다.

「保衛法」폐지키로

政界 이번會期추진, 새憲法과 重複

政界는 지난71년12월 제정된 『國家保衛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새시대에 맞지않는다고 판단, 이 特措法의 폐지건의안을 이번 정기국회회기중 공동으로 발의키로 의견을모으고있으며 정부측도 이에대해 긍정적인 태도를보이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特措法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폐지될것 같다.

政界의한소식통은 14일 이 特措法이 새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非常措置權(51條)및 戒嚴선포권(52條)등과 중복되고 있으며 새시대정신에도 부합되지않아 각黨간에 같은 폐지의견이 일고있다고 밝히고 금명간 예정된정부및 각黨 간부들의 모임에서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 제기될 것으로 안다고전했다.

全文12條附則으로 된 이保衛法은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선포권을 규정하고있고 비상사태하에서 경제에관한 규제, 국가動員令등을 發令할 수있으며 屋外집회및 시위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규제할수있게돼있어 사실상 대통령의 非常大權을 규정한것이다.

당시 정부는 국회에서 共和黨의원들만으로 날치기 통과된 이법을 71년12월28일 선포하고 이듬해인 72년10월 維新을 단행했었다.

通商·科技협력 擴大

韓·코스타리카頂上 공동성명

全斗煥 대통령과 코스타리카의 카라소 대통령은 14일 상오 10개項의공동성명을 발표, 양국 대통령은 양국간에 체결된 과학기술협력 협정에 따라 雙務的인협력분야를 더욱확대해 나가는등 실질분야에 있어서의 互惠협력증진을 위해 노력할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공동 성명에서 카라소 대통령은 韓半島의 긴장완화와 평화유지를 위한 한국정부의 지속적인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全대통령의 1·12및 6·5제의와 南北韓유엔 早期가입실현을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전폭적으로지지한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코스타리카 정부의 세계평화유지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특히 카라소 대통령이 주도하고있는 平和大學창설노력에 이해와 지지를 표명했다.

카라소 대통령은 全대통령이 편리한시기에 코스타리카를 방문하도록 초청했으며 全대통령은 이를 기꺼이 수락했다.

카라소 대통령은 이날상오 離韓에앞서숙소인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갖고 이어 상오1시 청와대로 全대통령 내외를 告別방문했다.

카라소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全대통령과 가진 頂上회담에서는 양국이 앞으로 通商등 실질관계증진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특히 경제부문에 있어서는 민간인들이 주도해서 서로 취약점을 보완해 나가야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그는 또 『北韓이 1·12및 6·5제의를 계속 거부한다면 이는 北韓이 평화를 원치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될것』이라고 말하고 『紛爭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韓半島의 통일문제 역시 對話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카라소 대통령은 이날 하오 1시30분 JAL편으로 다음 방문지인 東京으로 떠났다.

올림픽誘致團 치하

全斗煥 대통령은 14일 하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중앙청에서 열린 88년도 서울올림픽유치대표단 환영리셉션에 참석, 대표단을 치하격려한뒤 참석자들과 환담했다.

이날리셉션에는 丁來赫국회의장 兪泰興대법원장 南悳祐국무총리등 3府요인과 각료, 각政黨 대표및 간부, 주요社會단체의장단, 체육계인사, 駐韓외교사절등 6백70여명이 참석했다.

全대통령은 이에 앞서 訪韓중인 오스트레일리아의 J·D·안소니副首相겸 通商資源相을 접견했다.

前大法官등에 敍勳

全斗煥 대통령은 14일상오 청와대에서 李英燮前대법원장등 退任法官5명을 접견하고 李前대법원장에게는 국민훈장 無窮花章, 鄭台源 金允鎔 金洪洪 尹雲永前대법원판사에게는 靑條勤政勳章을 각각 수여했다.

레이건·趙紫陽회담

下旬 南北회담때

【北京14日AP=聯】 중공수상 趙紫陽과 레이건미국 대통령은 오는22·23일 이틀간 멕시코칸쿤에서 열리는 남북회담기간중 따로 회담을 가질것으로 보인다고 서방외교소식통들이 14일 전했다.

이번 회담은 레이건과 趙紫陽간의 첫번째 회담이며 레이건행정부 출범이후 양국간의 최고위급 접촉이 된다.

소식통은 그러나 정확한 회담날짜와 시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카이로空港서 旅客機폭발

리비아發 貨物속 時限폭탄 6명死傷

【카이로(이집트)13日AP=聯】 이집트의 새 대통령선출을 위한 국민투표가 실시된 13일 리비아로부터 몰타를 경유, 카이로공항에 도착한 몰타항공소속 보잉737여객기의 화물속에서 2개의 시한폭탄이 연쇄폭발, 이 폭발로 2명이 죽고 공안원2명을 포함,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비행기의 승객93명은 폭탄이 폭발하기 직전 비행기에서 내린뒤여서 전원 무사했다.

이집트와 리비아를 연결하는 몰타항공의 보잉737기는 이날 대부분 이집트인 승객93명을 태우고 리비아를 떠나 몰타를 경유, 카이로에 도착했으며 승객이 모두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터미널로 들어간직후 이비행기로 운반된 화물을 하역중이던 공항화물운송차에서 첫폭탄이 터졌다.

공항관리들은 즉시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옮기고 불타는 화물들을 제거작업중 첫폭발이 있은지 15분후 제2의 폭탄이 폭발했으며 경찰은 카이로공항주변에 비상망을 펴고 폭발물이 비행기에 실린 경위를 조사중이다.

여객기大惨事모면…後尾서 時限폭탄터져

◇리비아수도 트리폴리를떠나 카이로공항에 도착한 몰타항공사소속 보잉737여객기후미의 화물칸밑에서화물하역중 시한폭탄 2개가 연쇄폭발했다. 이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발생했으나 승객은 무사했다. 【카이로13日UPI=聯】

地平線

카츄샤하면 모르는 사람이없다。톨스토이의 『復活』에나오는 女主人公—苛酷한운명속에서도 淸純을 잃지않는 可憐한소녀를 금방 연상하게된다。하나 사실을 알고보면 한낱 賣春婦다。이 1백년전의 賣春婦가 지금의소련수도에 우글거린다면 믿기어렵지만 AFP통신이 모스크바의 紅燈街를 현지르포로 삼삼이 알려주고있다。

▼도발적인 옷차림을 하지는 않았으나 진한 화장에 어떻게보면 좀시건방진 여대생같이 보이는 콜걸들이 새벽1시쯤되면 붉은광장 언저리를 서성거린다는 것이다。『1백달러에요。바로내 숙소에서』라고 말을거는 콜걸들。예쁜옷과 향수와 털코트를 사고싶어 거리에나와다는 이들은 모스크바올림픽이래 부쩍늘고 있다한다。한 돌만 몸을팔면 아버지의 한달봉급보다 더많은 돈을 벌수있다는 이들은 돈도 돈이지만 서방세계에대한 동경심이 밑바닥에 깔려있는것이다。외국인이 묵는 인터컨티넨탈호텔주변에 제일많이몰려있다。소련인을상대로한 콜걸도 적지않으며 1회50루블(67·5달러)씩 받는 카씨스마저 성행한다는 얘기다。매춘에 따른 성병도 늘었는데 소련신문에는 한마디도보도되지 않는것이 특징인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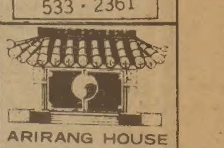
▼섹스는 주의 사상 국경 시대를안가리는 마물이다。제정러시아때의 好色怪僧 라스푸친얘기는 역사에도나오지만 슬라브족이 자랑하는 카트리느 2世도 男妾많기로 소문났었다。카트리느女王의 총애를 받은 남자가 82명、크렘린에 사랑의 밀실을 따로두고 10만루블의 愛情料를 받은 남자愛人들은 밤시중 할때마다 24접시나 되는 특별요리를 먹었다고 한다。포톰킨공작의 침실은 女王침실의 바로 아래에 있었고 비밀계단으로 서로 오르내릴 정도였다니 알만하다。

▼소련에선 외설이 표면상 금물로 되어있고 영화나 소설에서도 성묘사는 대개 법에 걸린다。그러나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포르노는 地下出版으로 나돌고 플레이보이 잡지한권이 1백루블(8만원)에 거래되기까지한다니 공산체제하에서도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뚜렷하다。그뿐 아니라 賣春이란 단어는 자본주의사회에만 있다고 선전해온 소련에 그 행위가성행하다니 섹스만은 그들도 어쩔수 없는 모양이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社会漫評

「영망」「진창」종목에서는 금메달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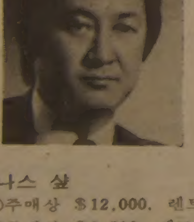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오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531—0277
한국관
연중무휴
AM11시—새벽1시
특별메뉴···
●식욕을 돋구는
된장찌게정식
순두부찌게정식
생선찌게정식
민어매운탕
즉석불고기정식
즉석곱창전골정식
곰탕, 꼬리곰탕
입반죽 냉면
비빔냉면
회냉면
중국요리일절
결혼피로연, 환갑동창회
각종회의, 단체손님환영
※회의실 60석
성심 성의껏 염가로 봉사하겠아오니 왕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나옥녀 올림

이대환 不動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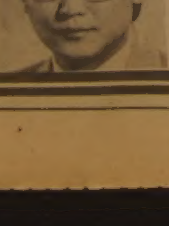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 금주의 새 리스팅 ~~~~

●도나스 샵
①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9년(옵션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90,000(현금이면 기만불 디스 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시외), 렌트 $1,700, 리스 19년, 현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버라이어티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1만5천달러(로타리오 인컴 넬1000달러)
②주매상 $13,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햄버거 샵
●도라이크리닝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R) 536—4250


세일즈맨
신 영 하

생활가구 · 생활예술
ecosys
MODERN FURNITURE
멋과 품위를 자랑하는 가구점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섬세한디자인
○최고의 품질
○저렴한가격

2300 YONGE ST. TORONTO
Yonge Eglington Centre
486—0397 김만구
~~~~

수단、對리비아「豫防戰」선언

누메이리大統領 레바논紙 회견

「攻擊의한 防禦」최선看做

【베이루트13日AP·AFP=聯合】가파르·누메이리수단대통령은 13일 수단의 국가안보를 위해 소련의 지원을 받는 리비아를 상대로「예방전쟁」을 펼것이라고 위협하고 앞으로 실시될 미국 이집트및 페르시아만 국가들의합동군사훈련에도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비아서 戰鬪 준비

美·埃合訓에도 參加

누메이리 대통령은 이날보도된 베이루트의 알·나하르紙와의 회견에서 수단이 리비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있다고 강조하고 『군사용어로서의 방위는 수단영토내에서 방어태세를 갖추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며 공격에 의한 방어가 최선이 될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수단의 안보를 위해 곧 리비아영토내에서 전투를 벌일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리비아에 대한 『예방전쟁』을 수단의 주요맹방인 미국및 이집트의힘을빌어 치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美기자들과의회견에서 리비아가 수단침공을 시도하려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알렉산더·헤이그미국무장관이 현재의 수단정권을붕괴시키려는 어떠한기도도 결코 용납하지않을 것임을 자신에게 확약했다고 말했다.

그는 헤이그장관이 또한매우 빠른 시기에 수단에 군사장비를 공급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히고 내달중에 실시될 미국·이집트및 일부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합동군사훈련에 수단이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메이리 대통령은 또 AFP통신과의 회견에서 무아마르·가다피 리비아국가원수가 제거되지 않는한 리비아로부터의 위협이 계속될것이라고 말하고 리비아는 중동의 신제국주의 국가로 소련의 하수인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駐日 美基地서 爆發사고

요꼬하마郊外油類저장소…住民疎開

【橫濱(日本)13日AP=聯合】日本 요꼬하마(橫濱)교외에 있는 미군기지유류저장소에서 13일 낮 원인모를 대형폭발사고가발생, 1명의 소방수가 심한화상을 입었다고 경찰이 밝혔다.

경찰은 나가하마(長濱)의 미군제트유저장탱크에서 폭발이 발생했으며 부근의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고 전하면서 인근주민8백여명이 소개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폭발이 일어난 탱크는 제트유15만3천배럴을 저장하고있는 제6탱크로 알려졌는데 폭발당시의 폭음으로 8백m밖의 건물유리창까지 깨졌다고 경찰은 말했다.

波 共産黨中央委 16일召集을 발표

【바르샤바13日UPI=聯合】폴란드공산당은 바르샤바서쪽 지라르도프를 비롯,수개지방도시 자유노조지부가 식량부족에 항의, 파업에 돌입했거나 파업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정치사태와 노동불안을 토의하기 위한 중앙위원회의를 16일 소집한다고 발표했다.

폴리사리오 攻勢강화

最新장비무장 사하라侵攻

모로코機2대 피격

【라바트13日AP·AFP=聯合】모로코국왕 하산2세는 13일최신무기를 앞세운 군대들이 이날상오 사하라로 침략해들어왔으며 서부 사하라지역에서 벌어진 대규모전투로 모로코항공기2대가 격추당했다고 밝혔다.

하산2세국왕은 이날 레이건미 대통령, 미테랑 프랑스대통령, 쿠르트·발트하임유엔사무총장및 할레드사우디아라비아국왕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알제리의 지원을받는 폴리사리오 게릴라들이 이웃 모리타니로부터 모로코에대한 공격을 강화하고있다고비난하고 미제C130수송기 1대와 불제 미라지F1전투기1대가 격추됐다고 밝혔다.

노벨經濟學賞 美토빈敎授

金融市場분석 硏究업적으로 수상

【스톡홀름13日AP=聯合】미국 예일대학의 제임즈·토빈교수(63)가 금융시장분석에 관한 연구업적으로 81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선정되었다.

왕립과학원은 토빈교수가 금융시장분야를 비롯하여 지출결정 고용 생산및 가격문제와 금융시장과의 관계에관한 분석과 연구업적으로 금년도 노벨경제학상수상자로 결정되어 1백만 크로나 (17만8천5백달러)의 상금을 받게되었다고 밝혔다.

토빈교수는 노벨경제학상이 지난 1969년 스웨덴중앙은행에 의해 신설된이래 미국인으로서는 10번째로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관련기사4면

「綠色革命」은 이룩될 것인가

이집트、무바라크體制出帆… 當面과제

식량·住宅문제 先決다짐

사다트被擊 혼란도 해소

"埃·수단은 한나라"누메이리도 한票

金聖佑특파원 카이로서 第3信

무바라크가 14일 대통령으로 정식취임하게됨으로써 지난6일이후 온세계의 시선이 모였던 이집트는 9일만에 다시 진로에 올랐다.

카이로의 거리를 지나다니면 중심가의 길한가운데 이따금씩 아직도 걸려있는 사다트의 초상화사이사이로 국민투표선전벽보로 나붙었던 무바라크의 얼굴이 나타난다.

10일 TV앞에서 사다트가 땅에 묻히는 것을 보고있던 이집트국민들은 14일하오 다시 TV앞에 몰려 국회에서 취임연설을 하는 무바라크의 새출발의 패기를지켜보았다.

각국에서 모였던 7백여명의 보도진도 이 연설이 끝나면서 가방을 챙기기시작하여 붐비던 프레스센터는 한산해졌다.

이집트는 이제 이집트인의 것으로 돌아갔다.

무바라크가 취임하던날 아침 카이로의 한신문은『이집트現代史上 처음으로 이집트인은 고개를 크게 치켜들고 「우리는 이집트인이다」라는 말을 외국에 대해 할수있게 되었다』고 사설에서 썼다.

고난의 9일동안에 보여준 이집트의 용기와 동요없는안정은 7천년역사의 문명을가진 나라다왔다는 말이다.

그러나 새출발하는 이집트에 묻은 난제들은 여전히남아있다.

정치적인 혼란은 극복했으나, 그리고 모든 것이 예대로 진행된다고 했으나, 그렇기때문에 새로운 어떤 큰힘이 아니고는 움직일수없는것들이 그대로 남게된다.

카이로 시내를 돌아다녀보면 가장 오랜역사를 가진 이나라는 아직도 할일이 많은나라는 것을 느끼게한다.

도심에서도 폐허같은 空地들이 흩어져있고 번화가에서 한발짝만 나가면 노점들이 즐비한 뒷골목이 나온다.

카이로시내를 빠져 사다트의 무덤으로 가는 길 연도에는 황토색의 넓은 회교도 공동묘지가 있다.

이 묘지를 지나 조금더 나가면 사막이다.

사막에서 자라는것은 군대뿐이다.

여기저기 軍營들이 흩어져있다. 무바라크는『이집트를 푸른이집트로 만들고 이집트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식량문제를 해결하는것이 나의 꿈이다』라고 말했다.

카이로시내의 교통질서,원활한 전화소통도 한과제다.

13일의 국민투표 광경 또한 이집트적이었다. 인구 4천만이 넘는 나라에서 유권자는 1천2백만밖에안된다.

1952년 혁명이후 당시 18세에 달한 젊은이는 의무적으로 유권자가 되었으나 18세가 넘어있었던 사람들은 투표전에 선택권을 주어서 인구의 70%나 되는 문맹중 많은 사람들이 투표권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날 수단의 누메이리대통령부처가 투표에 참가한것도 기현상이었다. 남의 나라 대통령이 이집트에서 표를 찍는데대해 공보담당관은 『이집트와 수단은 한나라 같은 사이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보도진을 안내하는 프레스센터의 버스는 수단대통령부처와 사다트미망인이 투표하는 투표소앞까지만 데려다놓고는 투표장 안에까지는 일체 못들어가게 했다.

투표장 앞에서는 한떼의젊은이들이 플래카드를들고 무바라크 지지를 외치고 있었다.

다른 투표장을 찾아가 봤다. 유권자들은 선거인증명을 보이면 아무투표소에서나 표를찍고 증명에 도장을 받아갔다. 투표종사원에게 투표용지를 한장 얻자고 했더니 두말않고 내주었다.

투표소는 뜻밖에도 한산했다.

내무성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기자를 접근시키지 않았다.

정확한 투표율은 14일 국회에서 발표될때까지 일체알려지지 않았다.

캠프데이비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등의 원조가 끊어지면서 곤경에 처했던 사다트는 시나이에서 석유가 나와 日産 75만배럴을 생산하게되고 수에즈운하를 개방한 수입과 1백20만 해외노동자의 송금에다가 막대한 서방의원조로 이집트를 크게 일으켜세우기는 했다.

사막가운데에 인구 50만을 수용할 사다트市, 또 10월전쟁을기념하는10월6일市등을 새로건설하여 노란색뿐인 지도의 색을 바꿀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이집트의 녹색혁명은 길이아직도 멀다. 사다트를 계승한 무바라크의 정부가 당장 당면한 난제는 바로 사다트를 죽인 회교극단주의자들의 문제라고 카이로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사다트의 정신을 이어가자면 가장큰 反사다트세력이었던 이일파를 뿌리뽑지 않고는 또 언제 나라가 참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것이 국민대부분의 우려다. 사다트자신은 처음에는 이세력에 회유정책을 써서 한때는 스스로 이세력을 對外的으로 이용하기도 하다가 근래에 와서 강경정책을 썼고 결국 그테러에 쓰러졌다.

이 극단주의자들의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은 이집트에 아무도 없다. 웬만한 사람에게 물어보면『누구도 모를 것이다』라는 것이 한결같은 대답이었다.

사다트가 1천5백명의 반대파를 투옥할때 7천명의 회교극단주의자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한 것이 처음나온 숫자였다.

이집트국민들은 학생등 젊은층에 이세력이 많이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극단주의자들에게 전혀 동조하는 기색이 아니다.

어떤사람은『종교에 정치없고 정치에 종교없다』는 사다트의 말을 인용했다. 다만 軍내에 이세력에 대한 얼마나 많은 동조자가 있느냐하는것이 이집트 국민들로서도 큰 관심거리다.

사다트피살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있자 이집트국민들은 한장교의 힘만으로 어떻게 펑민에게 군복을 입혀 사열에 내보낼수 있겠느냐는 의문들을 나타냈다.

무바라크로서는 이의문을 국민들에게 빨리 풀어주어 군에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도 급선무다.

◇國際문제 토의차會同한 아세안·유럽外相 아세안외상들과 유럽외상들이 13일 中東문제 아프간사태 팔레스타인문제 캄보디아문제등을 토의하기위해 랭카스터하우스에서 會同했다. 【런던13日AP電送=聯合】

◇反埃활동벌이는 샤즐리 알제거주하면서 반정부활동을 벌이고있는 전이집트군참모총장 샤즐리가 트리폴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카이로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길은『폭력뿐』이라고 말하고있다. 【트리폴리13日UPI電送=聯合】

蘇、SS20 減縮용의

퍼싱Ⅱ등配置포기條件

자글라딘 밝혀

【브뤼셀13日AFP=聯合】소련은 서방측이 미제최신예병기로 소련에 대항하려는 계획을 포기할경우 西歐를겨냥한 SS20核미사일 일부를 철거할 용의가 있다고 蘇고위관리가 13일 밝혔다.

벨기에국제관계연구소 초청으로 브뤼셀에온 蘇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부부장 바딤·자글라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오는1983년부터 서구에 5백72基의퍼싱2및 크루즈미사일을 배치하려는 계획을포기한다면 소련이 서구를 겨냥, 배치해 놓은 SS20미사일수를 감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서양진영이 현재 유럽에 1천基의 각종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가운데 프랑스와 영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이 3백基에 달한다고 밝혔다.

자글라딘은 그러나 오는11월30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美蘇 핵무기 감축협상에서는 美蘇양국의 核무기만 논의대상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무바라크 當選확정

카이로 99%、기타지역 1백%차지

【카이로14日AFP=聯合】호스니·무바라크 이집트 부통령(52)은 13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어 故안와르 사다트 대통령에 뒤이어 임기6년의 차기대통령에 확정됐다고 이집트관리들이 14일 확인했다.

무바라크부통령은 수도 카이로에서 99%, 기타지역에서는 거의 1백%의 지지를 얻었다고 관리들은 덧붙였다.

관리들은 개표결과 무바라크 부통령과 사다트 대통령 출신지인 나일삼각주지역의 총65만5백88명의 유권자중 단 1명만이 否표를 던졌다고 전했다.

새 이집트 大統領에 당선될것이 확실한 호스니·무바라크 부통령은 14일하오7시(韓國시간)議會에서 이집트 제4대 大統領에 정식취임, 앞으로 이집트를 이끌어갈 정책연설을 한다.

親韓자세 굳혀

日公明黨

【東京14日=聯合】일본의 제2야당인 공명당은 13일 한일간의 새로운 우호관계확립을 강조하는 새로운 당기본정책을 정식결정, 종래의 對北傀편향자세에서 완전탈피, 친한자세를 굳혔다.

안보방위 및 외교정책에 관한 당의 기본정책재검토작업을 추진해온 공명당은 이날 확대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한반도에 군사적긴장이 존재하며 이것이 일본의 안보에 대해서도 관계가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한반도정책을 결정하고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해 대한협력에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사우디 外部攻擊 대비

석유備蓄基地 건설

【뉴욕13日UPI=聯合】사우디아라비아는외부로부터의석유시설공격을 막기위한 세계최대의 비밀전략석유비축기지건설계획을 완료했다고 미국의 국제석유정보誌가 최신호에서 보도했다.

이 잡지는 홍해연안근처에 건설될 이 비밀석유비축기지의 원유저장능력이 사우디의 하루 산유량을 공식상한선인 8백80만배럴로 잡을경우 거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15억배럴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外信안테나

■하메네이 이란 大統領就任

【베이루트13日AP=聯合】이란최초의 회교성직자출신 대통령인 알리·하메네이씨가 13일 의회에서 취임선서식을 갖고 79년 이란회교공화국 창건이래 제3대 대통령에 정식 취임했다고 이란의회 공보실이 발표했다.

■EEC, 中東平和노력계속

【런던13日路透=聯合】구공시(EEC) 10개국 외상들은 13일 안와르·사다트 이집트대통령의 암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중동평화노력을 계속 하기로 다짐했다.

영국외상 캐링턴경은 EEC정례외상회담이 끝난후 외상회담대변인으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중동문제의 해결을 위해 독자적인 노력을 계속할 결의』라고밝혔다.

■노르웨이8년左翼統治끝장

【오슬로13日UPI=聯合】지난달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 사회당이 패배함에 따라 13일 노르웨이 최초의 여수상인 브룬트란트여사 (42) 가 사임하고 경제학자인 보수당의 카레·빌로호씨 (52) 가 신임 수상자리에 올랐다.

빌로호당수의 보수당을 중심으로한 비사회주의계 정당들이 지난달 선거에서 총1백55개의석중 과반수 의석을 확보, 8년간에 걸친 좌익정당통치에 종지부를 찍었다.

메아리

한라산 정상엔 벌써 겨울손님이 와서 닿았다. 해발 1천9백50m, 남한 최고봉인 한라산 백록담엔 얼마전 살얼음이 얼었다.

쌀쌀한 날씨에 밀려 남하하는 단풍은 제주도 산기슭에 이르러 그 화려한 자태를 감춘다. 우리네 가을은 여기서 終幕을 맞는다. 설악이나 지리산과 함께 빼놓을수 없는 이 명산은 지금이 등반의 한철이다. 1천1백여종의 동물과 서식하고 1천8백여종의 각종 식물이 널려 있는 이 자연의 보고는 등산객에겐 또 색다른 보배로 여겨진다.

최근 이곳을 찾는 등산객이 한해 10만명을 헤아린다. 73년 서부횡단도로가 열리면서 등반인구는 급격히 늘어났다. 등산은 관광여행이 아니다. 모험이 따르며 그래서 조난의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한라산에서 첫 조난사고를 기록한것은 1936년 일본인이었다. 등산객이 늘어난 60년대 이후 40여건의 크고 작은 조난사고가 있었다. 조난자 1백30여명중 20여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했다. 아름다우면서도 두려운것이 바로 산의 존재다.

意志의 登頂

이 두려움이 등산의 한 매력이기도 하다.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와 의지가 대결해볼수있기때문이다. 맹인학생 34명이 힘을합해 한라산 등정에 성공했다는 장거는 우리로 하여금 새삼 인간의지의 장엄과 생존의 존엄감 앞에 서게 한다.

삶은 강렬한 의지의 지탱 없이는 자칫 좌절에빠지기 쉽다. 더군다나 장애자의 경우는 더할것이다.

장애자가 의지로「正常」을 넘어서려는 경우를 우리는 가끔 본다. 점자는 19세기초 프랑스의 브라이유가 고안한 맹인들의「눈」이다. 점자타이프를 이용하여 윌리엄·로렌트라는 사람은 1분간에 1백자를쳐냈다. 비교할수 없는 경우같지만 정상인이 타이프라이터로 최고로 많이 칠수있는것이 1분동안 1백70자내외다.

휠체어를 타고 전세계 1백70여개국을 여행한 미국의 장애자도 있다. 노력에 따라 정상인과다를 없는 능력의 수준을 보여준것이라고 하겠다.

한라산에 올라「정상이다」고 감격을 터뜨린 맹인학생들의 울음소리는 無力感을 깨우치게 한 용기의 채찍소리로 들리는것 같다. 생존은 가치 있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海外토픽

40년만에 劇的상봉

★死産한줄 알았던 딸

미국 노드다코타주에 사는 올해58세의 캐더린·힐 부인은 자신이 사산(死産)한것으로 믿었던딸을 40년만에만나 기쁨과눈물속에 극적으로 상봉했다.

힐부인은 40년전인 18살때 강간을당해 임신했는데 출산시 병원측이 아이가죽은채태어났다고 속여 고아원에맡겼다는것.

지금은 40살된 이 아이는 그후 양부모를 만나 의젓한 톰슨부인이 되었는데 하루는 지갑을 분실, 신분증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자신의뿌리를 찾기로 결심,고아원의 기록부를뒤져 꿈에도못잊을 생모를 찾게된 것이다. 【그래프톤 (노드다코타州) AP=聯合】

北京 地下鐵2號線

★廢墟된 城壁따라 건설

이미 폐허가된 성벽을 따라 공사를 진행해오고 있는 北京지하철 제2호선이 90%의 공정을 끝내고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렀다고 최근 北京日報가 보도했다.

이 순환노선은 지난69년 완공된 제1호선에 연결되는데 北京을 한바퀴도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30분이다.

이 신문은 2호선건설에는 외국의 지원이 없었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됐으며 공사진척이 늦었다고 공개했다.

이번 순환지하철건설에는 1km당 3천7백50만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北京路透=聯合】

버스에 남녀간구별

★이란 아래층엔 女子만

이란회교당국은 회교목표의 실천방안의 하나로 수도테헤란을 운행하는 2층버스에 아래층에는 여성이, 위층에는 남자승객만 승차토록남녀칸을 구별해놓았다.

회교당국은 우선 수도테헤란시내버스에만 시험적으로 이같은 남녀구별승차제도를 실시해본뒤 점차 전국으로확대해나갈 계획이란것. 【런던=路透】

三養食品등 신제품 開發

계룡면·콘소메 市販

식품업체들이 성수기를 맞아 신제품을 내놓고있다. 1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味元계열 한국크노르가 콘소메(쇠고기국물 맛내는수프)를 선보였고 三養食品은계룡면을개발, 판촉활동에나섰다.

거 구 장

점심특별메뉴 : 버페 $2.99
12종류 샐러드 $1.29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11 : 30AM~새벽2시까지
토 일 : 2 : 00PM~2 : 00AM
(금, 토, 일-밴드있음)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김 선 남

SHANGHAI RESTAURANT

메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등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 : 864-9347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식 중국음식 뱅킷 카드에 담아서 원하는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월~일 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Spadina코너)
☎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Queen / Bay / Yonge / Temperance St. / Ⓟ / King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 363-9527
TOR. ONT.
CHING-ROYAL RESTAURANT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랍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월~금 : 4PM~4AM
토~일 : 12PM
171 DUNDAS ST. W.
(Spadina동북으로 Chestnut코너)
☎ : 977-9734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서울五輪겨냥… KAL伸張勢의식
유럽 大航空社들 안달
以遠權취소、運航회수·割引탑승감축등 制動걸어
中東行등 黃金노선 蠶食우려
國家차원 航空외교 서둘러야
에어프랑스·루프트한자등 서울就航 노려

88년 하계올림픽대회가 서울에서 열리기로 확정되는등 한국의 국제적지위가 향상되면서 유럽의 에어·프랑스(AF)·루프트한자(LH)·브리티시·에어웨이즈(BA)등 세계적인 대형항공사들이 서울취항을 서두르고있다。또 대한항공(KAL)이 취항하고있는 프랑스와 스위스가 KAL의 높은신장률을 의식한 탓인지 갖가지 제약조건을 새로 내세우고있어 국가적 차원의 항공외교의 뒷받침이 절실하다。

英國의 BA는 지난 9월 韓·英항공회담을 통해 이미 내년4월 서울취항을 결정했고 KAL의 홍콩취항횟수를 현재 週13회에서 8회로 줄이고 홍콩에서의 오오사까、방콕이원권(以遠權)을 취소하겠다는카드를 내놓고 협상에 나서고 있으며 프랑스국영항공사인 AF도 서울—파리간의 승객이 날로늘자 내년7월 서울 정기항로개설을 준비중에 있다는것이다。

프랑스항공 여행업계에의하면 AF는 지난 여름에도 서울취항을 서둘다 여의치못하게되자 내년7월까지로 일단 취항을 연기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현재 주3회 파리 오를리공항에 이착륙하는 KAL이 대륙간국제선공항인 샤를르·드골공항으로들어올수 있도록 허용한다는것이다。

또한 서독의 LH도 한국진출에 관심을 나타내고 KAL의 독일취항을 조건으로 서울취항을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다는것。

LH의 이같은 움직임은 西獨측이 최근 KAL에대해 西獨에의 정기여객항로 개설을 종용하고있는것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LH는 최근 몇년동안 西獨내의 KAL대표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에 착안、서울취항을 추진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 대형항공사들이 서울취항을실현하게 될경우、KAL은 덤핑의 명수인 BA나 세계최대 서비스와 정확성을 자랑하는 LH와 치열한경쟁을 벌이게돼 KAL이 모처럼 개척한 유럽황금노선에서 경쟁력을 잃을 우려가있다。더우기 BA가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홍콩노선을연장、서울에 들어올경우 KAL의 황금라인인 中東노선은 크게 잠식당할것이 뻔하다。

또스위스에어(SR)와 함께국제항공노선에서 흑자를 올리고있는 LH와 노선경쟁에서 이긴항공사는 아직없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어 KAL의장래가 염려스럽지않을 수없다。

사실 KAL은 그동안 림에겨울정도로 노선팽창을 추구해왔고 저운임으로 유럽노선의 승객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처음 프랑스는 에어버스300機의 구매조건으로 KAL의 파리취항을 허용했고 스위스도 KAL을 과소평가、『올테면 들어와봐라』는 식으로 취항을 허용했는데 KAL은 파리노선에서 日本승객을、취리히노선에서 동남아승객을 모으는데성공、유럽항공계를 자극하게된것。

이에 프랑스측은 올들어 파리를 출발하는 KAL에대해 일본인할인승객탑승을 주 3회취항중 1회만으로 제한하기에 이르렀고 KAL도 궁여지책으로 이들 승객을 취리히노선으로 돌려버렸다。그러나 최근 스위스는 항공회담을통해 KAL이 지나치게 제3국인 승객을 많이 태운다는 트집을 잡고 내년 4월부터 KAL의 현재 주2회취리히운항을 1회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KAL의 승객은 절반이상이 외국인이고 歐州노선인경우 외국인이 60%이상이나되며 일본인승객비율이 높다。

더우기 서울취항을 서두르는 이들 유럽 3대 항공사는 모두 국영항공사들로 반드시 상업적이윤만 따지지않고 정책차원에서 취항을 시키기 때문에 이들국가와의 항공협정체결을 무작정 우리쪽사정으로 지연시킬수만은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AF는 최근 미테랑정부의 관광진흥책에 따라、또 BA는 中共노선을겨냥한 장기전망에서 서울취항을 서두는것으로 항공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자국기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때 KAL은 앞으로 서비스체질을 크게 개선하고 항공사차원을 떠난 국가적차원의 항공외교를 벌이지 않는한 이같은 도전을 이겨내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것은 너무나 뻔한 사실이다。

그래서 우수한 객실、승무원의 확보와 교육、예약의 정확성、수하물 관리의 철저、해외세일즈의 확대등이 심각한 과제가 되고있다。

또 최근 일련의 항공회담에서 KAL은 계속 궁지에 몰리고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이익을 앞세워 항공외교를 추진할 수 있는 관계부처 전문가가 없다는것도 큰 문제가 되고있다。【파리=金普宗기자·延着】

美軍事우편이용 41萬弗 빼돌린후
移民기도 大韓重石상임감사 拘束
夫人 미리出國…駐韓미군 사위통해 50여차례 送金
金千石씨 떠나는날 잡혀

◇출국하루전에 검거된 金千石씨。

치안본부 외사과는 14일미화41만8천달러(한화3억여원)을 미국으로 빼돌리고 이민을 떠나려던 대한중석상임감사 金千石씨(66·서울江東區新川洞 장미아파트15棟102號)를 국내재산해외도피방지법 위반혐의로구속했다。

경찰에따르면 金씨는 증권투자로 번돈3억여원을 암달러로바꿔 딸金賢珠씨와 국제결혼했다가 이혼한 전사위제임즈씨(미8군근무)에게부탁、80년7월2일부터 지난5월20일까지 50여차례에 걸쳐 1회에 6천~9천9백달러씩 모두 41만8천3백96달러를 미국뉴욕시 웨스트59街515번지에 사는 딸앞으로 송금했다는것。

金씨는 이돈을 미군사우편으로 송금하고 지난5월28일 부인 趙惠卿씨(53)를 먼저 출국시킨뒤 자신은 14일 NWA편으로 출국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金씨는 딸 金賢珠씨의 이민초청을받고 이같은 거액의 재산을 도피시킨것인데 이사건은 한국경찰의 사법권이 미치지않는 미군사우편을 이용한 최대규모의 재산도피사건이다。

꽃도매상
437 CARLAW ST.
☎ : 465—8167

巨津 野山서 폭발물갖고놀다
어린이 셋爆死傷

【束草=聯合】13일하오5시30분께 강원도 高城郡巨津邑山北里앞야산에서 이마을 金鏞錫씨(48)의 딸 姬蘭양(11)、金鍾培씨(47)의 아들 朱鎬군(8)、梁根鎬씨(46)의 아들 淳喆군(8)등 3명이 폭발물을 주워가지고놀다가 폭발、姬蘭양과 朱鎬군은 그자리에서 숨지고 淳喆군은 중상을 입고 束草도립병원에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어린이들은 이날 학교가 끝난뒤 메뚜기를 잡으러나갔다가 폭발물을주워 돌로 두드리다 변을 당했다。

啓明大분규 意見갈려3명은 不應
理事長·總長등 12명辭退

【大邱=聯合】재단분규를 빚고있는 啓明大재단이사회는 13일밤 긴급이사회를 개최、이사사퇴문제를 논의했으나 의견이 엇갈려 15명의 이사가운데 하워드·마페트 재단이사장·申一熙총장등 12명이 사퇴했다。

啓明大이사회는 전원사퇴를 주장하는 측과 반대하는측의 주장이 맞서 공전했고 밤8시 속개된 2차회의에서도 의견이 엇갈리자 전원사퇴를 주장한 마페트이사장등 12명만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

大法院 판시
"産災근로자 요양補償 過失있어도 全額지급"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게 돼있는 요양급여(요양보상금)는 근로자의 과실에 관계없이 전액이 지급돼야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李會昌 대법원판사)는13일 경북醴泉郡甘泉面 官峴洞196 閔載源씨(31)등 일가족 7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상고심 선고공판에서『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재해위험이 많은 기업의 사용자가 법에특별히 규정한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과실유무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보상케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과실이있다해도 보상책임을 면하거나 보상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것이 원칙』이라고 판시、요양보상금에서 근로자의 과실책임분을 공제한여수만을 지급할것을 명한 원심판결을깨고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서울고법으로되돌려보냈다。

이번판결은근로기준법상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사용자가 지급하게 돼있는 장애보상、휴업보상、요양보상、유족보상등 가운데 이법 제81조가『장애보상、휴업보상은 근로자의 과실정도에따라 지급액을 공제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요양보상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이없어 지금까지는『요양보상도 근로자의 과실정도에따라 공제한다』고 돼있던 대법원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원고 閔씨는 강원三陟郡長省邑 대한석탄공사 금천갱에서 채탄후산부로일하던 지난해 8월21일 갱내작업중막장에서 탄이 무너져내리면서전신이 매몰되는바람에 신체장애자가되자『사용자측이 이중 탄광이 대피소를막지않은 잘못이 있으니 3천9백94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이사건 1심인 서울민사지법 합의3부는『閔씨의 장래기대 수익상실손해금 2천1백40만6천5백15원、손실회지금 5백68만8천8백76원、향후치료비 15만8천2백90원、위자료 50만원 동에서 閔씨가『위험지역에서 스스로의 안전수칙을 지키지않은 과실책임』분을 공제한 2천1백18만3천1백67원을 석공은 閔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인 서울고법 제8민사부는『1심이 판결한 2천1백18만3천1백67원에서 석공이閔씨에게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액 64만2천15원중 閔씨의 과실책임분인 16만5천3원을 공제한 2천89만5천32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즉 원심인 서울고법은『요양보상금은 근로자의 과실책임분을 제외하고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던것。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손해배상에는「피해자의 과실책임원칙」이 적용돼 법원이 판정하는 피해자의 과실정도에따라 가해자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과실 상계하도록 돼있다。

煉炭 생산기피 嚴重처벌
檢察 "無級炭등 熱量저하 뿌리뽑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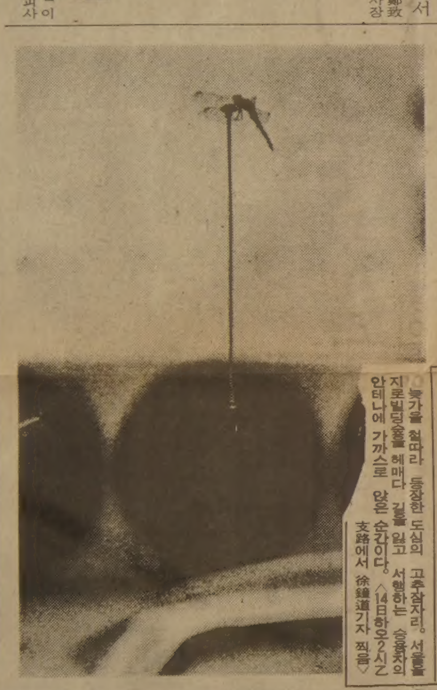
金錫輝서울지검 검사장은 14일『최근 저질연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벌어지자 일부 연탄제조업자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생산을 기피하거나 생산량을 감축하는 현상이있다』고 지적、『연탄수급에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행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金검사장은『연탄의 열량을 높이라는 당국의 지시가 있은뒤 일부지역업자들이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겨울철성수기를 앞두고 생산량을 줄이고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히고『검찰은 앞으로도 업계동향을 예의주시해 생산감축행위는 물론 무급탄(버럭)을 혼합하여 연탄의 질을 저하시키는등의 농간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質좋은 연탄만들자
業界·市등연석會議
釜山지검서

【釜山=聯合】부산지검 鄭致根검사장은 14일상오 검사장실에서 부산지방의 연탄제조업체 대표 6명과 경남지방의 12명、부산시및 경남도상공국장등과 연석회의를 갖고 질이 좋은 연탄을 제조하도록 당부했다。

서울의 연탄업체폭리와 저질탄 제조사건이 발표된후처음가진 이연석회의에서 鄭검사장은 월동기에 연탄수급이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고 서울업계에대한 수사로 부산업자들도 스스로 각성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그대신 시중연탄에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해규격위반등 저질탄이 적발되면구속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都心서 길잃은 고추잠자리

늦가을 철따라 등장한 도심의 고추잠자리。서울을 지로빌딩숲을 헤매다 길을 잃고 서행하는 승용차의 안테나에 가까스로 앉은 순간이다。〈14日하오2시乙支路에서 徐鍾道기자 찍음〉

校內 시위선동혐의
建大生에 징역10월

서울지법 東部지원 형사3단독 梁辭勳판사는 14일 교내에서 시위를선동한 建國大정외과2년 南七祐군(21)에게 징역10월을 선고했다。

南군은 지난6월8일 상오11시께 교내 황소상앞에서 시위를 선동한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제2회 勞動문화제 開幕
南總理등 참석 世宗文化회관서

노동부가 주관하는 제2회 노동문화제가 14일 상오9시30분 서울世宗文化회관에서 南悳祐국무총리를 비롯、權重東노동부장관、李正五과기처장관、鄭漢株노총위원장과 경제5단체장 그리고 근로자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개막됐다。

이번 노동문화제는 오는18일까지 계속되는데、근로자들이 여가를 선용하여、회화 서예 수예등 출품한 우수및 입선작품 4백42점과 자유중국의 근로자들이 찬조출품한 50여점등 모두 4백92점이 전시된다。

原爆피해 韓國人
83년께 本格치료
日나가사끼市

【東京14日=聯合】일본 나가사끼(長崎)시는 오는 83년부터 한국인 피폭자에 대한 본격적인 치료에 나설방침이라고 14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보도했다。

불온油印物배포한
世宗大生1명拘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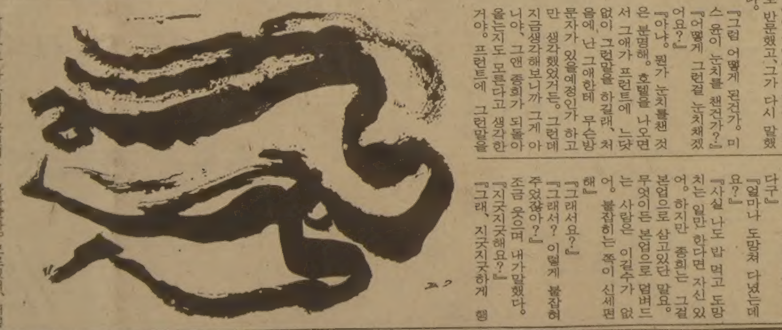
서울東部경찰서는 13일 불온유인물을제작、시위를 주동하려던 世宗大경제과2년 鄭浦植군(20)을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鄭군은 지난달20일 서울永登浦구 九老2동 누나 鄭모여인(35)집에서 불온유인물 3백장을제작、8일상오11시 학교본관 3층 복도에서 학생들에게살포하려다 검거됐다。

"契깨져 부부싸움"
40代부인목매 自殺

14일 상오6시30분께 서울西大門區北加佐洞136의95 金泰慶씨(31)집에 세들어사는 文賢子씨(40·화장품외판원)가 부엌 천장에 치마끈으로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文씨의 남편 鄭甫好씨(44·운기기술자)가 발견했다。

鄭씨에 의하면 13일 밤11시30분께 늦게집에 돌아온것을 트집삼아 부부싸움을 한뒤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천장에 목을매 숨져있었다는것。



모든 좋이 위의 生 <227>
趙善作 作
金光培 畵

돌개바람불다 ㉘

『그럼 프런트에서 알아낸 게 아니란 말요? 떠나면서 윤나미가 말해 두던데。누군가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온양으로 떠났다고해 달라고。혹시 미스 윤에게 부탁해두었던것은 아뇨?』

『내가요?』

어이가 없어 나는 큰 소리로 반문했고、그가 다시 말했다。

『그럼 어떻게 된건가。미스 윤이 눈치를 챈건가?』

『어떻게 그런걸 눈치채겠어요?』

『아냐。뭔가 눈치를챈 것은 분명해。호텔을 나오면서 그애가 프런트에 느닷없이 그런말을 하길래、처음에、난 그애한테 무슨방문자가 있을예정인가 하고만 생각했었거든。그런데 지금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야。그앤 종희가 되돌아올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야。프런트에 그런말을 남겨두고 나오면서 공연히 나를 바라보며 뱅글거리고 웃기도했고、기차에서는자꾸만 종희얘기를 꺼내는거야。왜 언니를 쫓아보냈느냐니、혼자 떠나는 언니뒷모습이 쓸쓸해 보이더라니…』

『그래요?』

『그래』

나는 잠자코 생각해 보았다。그날밤 윤나미 모녀가잠든 방을 살그머니 빠져나와、내가 그의 방으로 가고、그와 함께 정원으로 나와 한시간쯤 이야기하는 동 수상쩍은 행동을、윤나미가 깨어 있다가 모두 관찰한 게 아닌가하고。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다。처음、부산역에 내렸을 때도 그녀가 수상쩍게 생각할만큼 그와 나는 뒤에서 머뭇거렸었고、나이트클럽에서는 그와 내가 한번도 함께 플로어에 나가지 않아 그녀로 하여금 결정적인 의문을 자아내게 했던 것이다。그러나 그녀가 무엇인가 눈치챘다 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다。내가 말했다。

『눈치챘으면 또어때요?』

『그래。아무러면 어때? 해운대를 떠난게 내뜻이아니었다는 사실만 이해해준다면 아무래도 상관없어』

『왜 구태여 변명하려고그러세요?』

『변명이 아냐。도망치는 일에도 이제 난 진력이 났다구』

『얼마나 도망쳐 다녔는데요?』

『사실 나도 밥 먹고 도망치는 일만 한다면 자신 있어。하지만 종희는 그걸 본업으로 삼고있단 말요。무엇이든 본업으로 덤벼드는 사람은 이길수가 없어。붙잡히는 쪽이 신세편해』

『그래서요?』

『그래서? 이렇게 붙잡혀 주었잖아?』

조금 웃으며 내가말했다。

『지긋지긋해요?』

『그래、지긋지긋하게 행복하달까。모르겠어、어떻게든 되겠지』

기대했던대로 그는 내몸을 애무하기 시작했다。「역시 스포츠 이상의 의미가없는행동인가요?」라고、나는 슬픔을삼키며 고즈너기 말했는데 그는 화를돋우어「그 말하고는」하고 수십번도 더 후회했어。더말하지만」하고 그의입술로 내입술을 막았다。무릎의 상처를 그의 견고한 뼈가 압박했을때 잠깐 고통의 신음 소리를냈을뿐 나는 그의 몸 전체를 빈틈없이 수용했다。그의 움직임은 정릉에서처럼 냉담하지도 능청스럽지도 않았으며、더구나 증오따위는 결코 담고있지 않았다。그는 나에 관한한 마치 이빨 빠진 사자와같았다。그의 의식속에 귀찮은 여자를짓밟아준다는 생각따위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다만 애처로움의 감정만이 그의 몸을 연체 동물처럼 부드럽게 해주고 있을 뿐이었다。

ORIENTAL PALACE LTD. 오리엔탈파레스

조이스 무용단

조이스(JOY'S) 무용단은 유럽을 거쳐 처음 북미에 도착했읍니다. 10월15일부터 오리엔탈 파레스에서 첫공연을 갖게 되었음을 알리며 바쁘신 중에도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풀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여러분을 모시고저 하오니 많은 성원을 바라겠읍니다.

박 인 순 배

영업시간 : 저녁6시～새벽1시
*연말파티 예약 접수중
*캔토니스 중국요리

529 BLOOR ST. W. TORONTO, ONT.
전화 : 533—3545～6, 533～1500

홈팀 서울 綜合우승 확정적

오늘 國體閉幕앞서 球技종목 결승전

궁도高等部李龍浩 한국新(더블 50m)

力道82.5kg인상서 申東澈도

제62회 전국체육대회는 홈팀 서울이 종합우승을 굳힌가운데 최종일경기를 남겨놓고 있다. 서울은 총27개종목가운데 18개종목을 끝낸 대회5일째인 14일현재 총14,256점으로 계속 선두를 고수하고있으며 忠南은 12,829점으로 2위, 10,778점을얻은 慶南이 3위를 달리고 있다. 대회최종일인 15일에는 구기종목결승전이 벌어진다. 서울은 메달레이스서도 계속 선두를 유지, 이날 현재 금47개, 은24개, 동37개를 차지했다.

어제까지 한국신29·大會新1백70개수립

이날 양궁 고등부 50m더블에서 慶南의 李龍浩는 종전기록보다 10점 많은 651점의 한국 신기록을 세웠으며 역도 82.5kg급 인상 번외시기서 全南의 申東澈이 1백40kg을 들어올려 첫역도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이로써 기록경기 6종목(육상, 수영, 사이클, 역도, 양궁, 사격)에서는 한국신기록 29개와 대회신기록 1백70개가 나왔다.

한편 마라톤—春川간 1백75km코스서 벌어진 사이클도로경기서는 金鐵石(경남대)이 4시간14분38초50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운동장서 벌어진 축구고등부 준결승서 신예 群山第一高(전북)는 서울의 강호 徽文高와 맞서 경기종료 4분전 蔡公錫이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려 1—1무승부를 이룬후 승부킥서 5—4로 신승, 올해들어 처음 전국대회 결승에 올랐다.

群山第一은 京畿安養工과 결승전을벌인다. 仁川高는야구고등부준결승서 지난해 우승팀 釜山慶南高와 대결, 8회초5번 李慶國의 결승타를 비롯한 집중4안타로 3점을 올려 5—3으로 승리, 4관왕을 노리는 慶北高와 결승전을 갖게되었다.

농구 여일반부 준결승서 釜山의 朴贊淑이 뛴 忠南선발을 85—58로 물리쳤으며 배구 여일반부 준결승서는 江原의 現代가 서울 후지필름을 3—1로 물리쳤다. 배구 남고준결승서 서울仁昌과 慶北師大附高가 각각 이겼다. 在美팀은 해외동포팀 끼리 10으로 물리쳐 3연패했다. 여고 배드민턴의 강호 馬山聖旨女高는 全南東新女高를 3—0으로 물리쳐 3연패했다.

在美동포·平南팀 우승

番外경기 在外동포 以北5道축구서

거룬 축구 번외경기 결승서 압도적인 기술과 공격력으로 홍콩팀을 7—1로 대파, 우승을 차지했다. 在美팀은 내년부터 체전 번외경기에 출전할예정이다. 이북5도끼리의 축구대결서는 平南이 咸北의 기권으로 경기를 갖지않고 우승했다.

축구
▲고등부 준결승
경기안양공 2—1 대구청구
전북제일 1—1 서울경신 〈승부차기 5—4〉
해외동포결승
재미 7—1 홍콩
▲동 이북5도
평남 기권 함북

야구
▲고등부 준결승
인천고 5—3 부산경남
▲동일반부
경기한국화장품 5—3 인천인하대
경남선발 3—3 충북선부 〈추첨승〉

배구
▲남일반 준결승
충북종합화학 3—0 경북선발
충남통신고 3—0 현대중공업
▲동 여일반
강원현대 3—1 서울후지
▲동 남고
서울인창 3—1 부산동성
대구사대부 3—0 전북백산
▲동 여고
서울일신 3—0 전북근영

사이클
▲일반175km도로경기=①김철석(경남) 4시간14분38초50 ②서창규(경북) 4시간14분38초55 ③장윤호(강원) 4시간14분39초02

테니스
▲여고결승
전북영광 3—1 충북중앙
▲동남대
경남울산공 3—1 서울명지대
▲동남일반
인천대우 3—0 경북선발

배드민턴
▲남일반 결승
충북선부 3—0 전북도청
▲동남대부
서울한체대 3—2 전남조선대
▲동남고부

승마
(각종목 1위)
▲마장마술=김현칠(전남) 90.5 ▲중장애비월=최명진(전북) 감점0 ▲대장애비월=김승환(서울) 감점12.25
▲동여고 (축구)
충북충주공 5—2 전북전주농
경남성지 3—0 전남동신
▲동여일반
서울한체대 3—1 부산시청

궁도
(각종목 1위)
▲남일반50m더블=박인수(전남) 629 ▲동여일반=오영숙(인천) 606 ▲동남고=이용호(경남) 651(한국신·종전641·세계기록659맥킨리·미국) ▲동여고=조언신(인천) 623

핸드볼
▲남고준결승
서울영동 21—13 전남조대부
부산동아 20—13 전북김제농

하키
▲동여고
대구경산 22—21 전북정읍
전남체고 20—18 서울정신
▲남일반
부산대 35—26 전북원광대
▲동여일반
전북 40—29 충주
전주시청 충북 공
▲여고준결승
충북진천 2—0 전남안좌
경기평택 1—0 충남온양
▲동 남고
충북제천 4—0 경기평택
전남광주제일 1—0 서울용산
▲동남일반
경남해군 3—0 부산동의대
전남조선대 1—0 충북청주대

연식정구
▲남대준결승
전남조선대 3—0 강원대
▲동남고
전남동신 3—1 인천시
▲동여고
충북음성 3—1 서울무학
전북순창 3—2 전남나주

농구
▲동남고
충북신흥 3—1 경남진주
▲동남일반
부산동산 3—2 전북선발
▲동여일반
서울농협 3—2 인천인하대
▲남고 준결승
전북사대부 80—67 경기삼일
서울용산 70—58 인천송도
▲동여고
서울선일 71—64 전남송원
경기수원 60—53 경남마산
▲동여일반
부산삼성 85—58 충남선발
서울한국화장 65—63 경기선경
▲동남대
서울동국 79—58 충북대
경북대 54—53 전북대
▲동남일반
대구삼성 70—69 경남해군

럭비
▲일반부준결승
서울연세대 43—4 경남해사일반

역도
(각체급1위)
▲일반67.5kg급인상=김원춘(서울) 125 ▲동용상=김기용(경기) 157.5 ▲동종계=김기용 277.5 ▲75kg급인상=박춘용(충남) 130 ▲동용상=박영재(경기) 160 ▲동종계=박영재 282.5 ▲82.5kg급인상=신동천(전남) 140(한국신·종전138, 세계기록177.5) ▲동용상=황우원(인천) 177.5 ▲동종계=신동천

레스링
(각체급고등부 일반부 1위)
▲자유형주니어플라이=노경선(전남) ▲플라이=김연만(충남) 손갑도(부산) ▲밴텀=공용일(경남) 안승문(서울) 이종영(경남) ▲페더=이종호(대구) 이정근(강원) 김종찬(충남) ▲라이트=진형균(경남) ▲웰터=유연탁(전북) 강충원(경남) ▲미들=정기철(경북) 고진원(경기) ▲라이트헤비=오재열(전남) 전창구(강원) ▲헤비=송준하(전남) 김기정(충남) ▲수퍼헤비=김동현(부산) 양기상(부산)

유도
(각체급고·대·일반1위)
▲엑스트라라이트=김재영(대구) 이인수(서울) 윤익선(전남) ▲하프라이트=채병섭(전남) 구상회(서울) ▲라이트=현김영춘(부산) 이석환(경기) 이년준(경기) ▲하프미들=환삼식(부산) 이현근(경북) 황진수(부산) ▲미들=장수강 희원(충남) 김영윤(경기) 설영윤(경남) ▲하프헤비=하현주(부산) 홍섬천(충북) 김재승(충남) ▲헤비=김익수(부산) 김정수(서울) 김관현(전남) ▲무제한=고철곤(전북) 조용천(서울) 김관헌(전남)

탁구
▲남고 준결승
대구심인 4—2 충북청주
▲동여고
동인천 4—2 서울선화공
▲동남대
강원대 4—1 충남승전대
▲동 여대
서울여상 4—0 충북내성
서울한성대 4—0 인천전문대
서울동덕 4—0 인천전문대
▲동남일반
대구효성 4—0 전북교육대
서울국정교과 4—0 전남부안
▲동여일반
부산우성식품 4—1 충남선만
▲동남고
충남대 29—13 충북선발
서울양정 25—7 부산남고
충남동아공 19—0 경남진해

체조
(각종목여고·여일반1위)
▲뜀틀=이순예(경기) 18.2 유유정(서울) 18.7 ▲평행봉=이해옥(경기) 18.40 한미라(서울) 18.45 ▲평균대=정진애(충북) 18.80 박청숙(충남) 18.60 ▲마루=이정희(충북) 19.10 윤언숙(전남) 18.70

◇메달집계
〈14일현재〉

	금	은	동
서울	47	24	37
부산	18	24	21
대구	9	16	11
인천	14	29	7
경기	17	19	26
강원	10	12	22
충북	21	28	21
충남	31	40	38
전북	21	19	21
전남	25	28	29
경북	16	17	22
경남	26	14	24
제주	2	1	0
재일	1	1	0
재미	1	1	0

作品賞 劇團에저또의「農土」

제5회 대한민국演劇祭 受賞者결정

제5회 대한민국연극제(문예진흥원주최)의 작품상및 개인수상자가 14일 결정됐다. 이날 하오4시 문예진흥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연극제 심사위원회는 作品賞에 극단 에저또의「農土」, 희곡상에 車凡錫(작품「하이여 사람일래라」)연출상에 金寶柱(東朗레퍼터리의「自1122年」), 남자연기상에 金鍾九(극단에저또「農土」의 돌쇠역), 여자연기상에 黃正雅(實驗「들소」의 초원의꽃역), 남자신인연기상에 權炳吉(극단 自由「족보」의 세째아들역), 여자신인연기상에 李한나(극단 四季「길몽」의 미스李역) 등을 결정했다.

한편 미술상은 宋寬楨, 崔衍昊 두사람이 8개참가작품을 모두 맡았다는 이유로 수상에서 제외되었다.

작품상을 받은 극단 에저또의「농토」(尹朝炳작 方泰守연출)는 노비3代가 겪는 수난과 삶의 의지를 東學전쟁, 韓·日합방, 8·15광복, 6·25등 파란많은 역사를 통해 밀도짙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높은평가를 받았다. 희곡상을 받은 車凡錫의「하이여 사람일래라」(극단女人극장)는 木浦三鶴島에 얽힌 설화를 소재로 여인의 恨을 환상적이며 서정적으로 그려냈고「自1122年」(吳泰錫作)으로 연출상을 받은 金寶柱는 高麗중엽 왕실내의 族內婚이 변천해가는 과정에서 제물이 된 女人들의 인간회복 모습을 참신하게 현상화 시켰다는 점에서 수상이 결정되었다.

지난 9월31일부터 10월11일까지 열린 제5회 대한민국연극제는 종래와는 달리 개인상 수상자들에게 해외연수의 특전이 주어져 참가자들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진행되었는데 심사과정도 이례적으로 열띤 분위기를 이루었다. 한 심사위원은 작품상과 희곡상 수상결정에서 의견이 대립되어 수상선정이 난항이었다고 밝혔다. 수상자들은해외연수특전외에50만원의상금과상패를받게된다. (신인상은20만원). 이번 연극제 심사는 李海浪 李源庚 呂石基 柳敏榮 朴祚烈씨등이 맡았다. 시상식은 대한민국무용제가 끝나는 이달말께 있을 예정.

보리 優勝차지

에드민턴 테니스

【에드먼턴(캐나다)13日AP=聯】스웨덴이 낳은 테니스鬼才 비외른·보리는 13일캐나다의 에드먼턴에서 열린 에드민턴테니스대회 최종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의 호세·루이스·클레르크를 3—0(6—2, 6—2, 7—5)으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慶北高 영예의 3冠王

黃金사자기野球

眞興완봉覇權

慶北高가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제35회 황금사자기대회 결승전에서 [illegible] 6—0으로 완파함으로써 금년시즌 고교야구 3冠王의 영예를 차지했다. [illegible] 전국대회 [illegible] 대통령배에서 [illegible] 청룡기 [illegible] 3개대회에서 전승 [illegible]

사회이력서

〈題字·尹致暎〉

윤치영 ㊳

暴風의 前夜

국내政情 진정기미 애치슨「폭탄宣言」

5부長官교체로 어수선、이어總選이

外軍철수를 듣고나와 風波를일으키던 국회안의 주동인물들이 南勞黨프락치사건으로 검속돼 마지막재판을 기다리고 있을즈음 우리를 경악케한「애치슨선언」이 튀어나왔다.

美국무장관 애치슨은 50년1월12일『한국은 美태평양防衛線밖에 있다』고 중대발언을 했다. 미국의 태평양방어선은 일본列島와 오끼나와를 굿는線이라고 했다. 나중에 당시 北의 붉은魔手를 감지못하고 한국국민을 놀라게했던 이 선언을 애치슨妄言이라 했던가.

국내에서의 갖가지波動이 겨우 진정되는가 했더니 새해들어 밖으로부터 난데없는「폭탄선언」이 굴러든 것이다.

뭔가 음산하고 불길한 바람이 불어올것만 같았다. 李承晩 대통령은 애치슨발언이 나온 다음달 맥아더장군의 초청으로 渡日, 極東의 안보문제를 논의하고 돌아왔다.

이런 미묘한 판국에 국회에선 韓民黨이 주동한 內閣책임제改憲案이 제기됐다. 建國한지 불과 1년8개월도 안된 시기였다. 안팎으로 다지고 힘을 모아도 부족할판에 기둥이 빠져라 흔들어댔으니 國政이 온전할 까닭이 없었다.

국회에서 나는 大韓國民黨을 중심으로 개헌안에 극력 반대했다. 대한국민당측은 반대의사로 白紙투표를 했다. 그런데 申翼熙의장이 記票所에 들어가지않은채 투표용지를 함에 넣었으니 무효가 아니냐고 異議를 제기해 문제가 생겼다. 申의장이 사회를 하다 停會를 선언하고 내려오자 任永信의원이 申의장의 덜미를 흔들어댔다. 申의장은 빙빙 돌다 나동그러졌다.

이어서 사회를보던 金東元부의장의 귀를 누군가가 물어뜯어 金부의장의 귀가 반쯤 찢어졌다. 그래서 내가 또 올라가 사회를 보았다. 그러자 金相敦 徐禹錫의원등이 들고 일어나서『尹부의장 내려오라』며 고함을 질러댔다. 金相敦은 의장석에 쫓아올라오려다 내가 응전할 기세를 보이자 멈칫해 물러섰다. 이곳저곳에서 욕설, 고함이 터지고 명패가 날았다. 그통에 애매한 속기사가 얻어맞아 머리가 깨졌다.

이 아우성을 겪고난뒤 改憲案은 표결결과 否決됐다.

개헌안 소동이 있은 얼마후 南勞黨총책인 金三龍과 李舟河가 검거돼 南勞黨의 지하조직은 비로소 괴멸됐다.

나는 당시 여러 청년조직이나 나와 관계있는 단체를통해 北韓의 군사적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걸 알고 있었다. 그 단체나 조직원들은 비밀리에 北韓쪽의 정보탐색을 하고 있었다.

나는 李대통령에게 기회가 날때마다 北의 동향이 우려된다고 진언을 했고 다른 책임자들에게도 같은 얘기를 했다. 불행히도 나의 얘기가 통하질 않았다. 나의 얘기뿐 아니라 以北에대한 정보가 들어오면 묵살되기 일쑤였고 北의 동태가 심상치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평화와 안정을 깨는 시끄러운 사람으로 눈총을 받았다.

4월들어서 李範奭국무총리가 사임해 李대통령은 李允榮씨를 다시 총리로 지명했으나 국회에서 부결됐다. 그런뒤 총리서리에 문물인 국방장관 申性模가 임명됐다. 戰略과 전쟁이 무엇인지를 아는 武將의 총리 李範奭은 하필이면 어려운 시기에 물러나 野人이되었다.

4、5월사이엔 또 金度演재무, 李仁법무, 5부장관이 교체돼 內閣은 들뜨고 어수선했다.

그런 중에 5월30일 제2대 국회의원총선이 실시됐다. 나는 다시 서울中區에서 출마했으나 이번엔 낙선의 苦杯를 마셨다. 정치적으로 회색빛깔이라는 元世勳에게 밀려 차점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2백10명중 무소속당선자가 60%나된 반면 大韓國民黨과 民主國民黨은 각각 24명밖에 당선시키지 못했다.

나도 野人으로 돌아간 것이다.

6·25가 터지기 일주일전에 開院한 2대국회에서는 正·副의장선출을했는데 당시 某씨가 부의장선거에서 手票를 돌렸다. 본보기가 되어야할 立法府안의 선거에서 수표를 뿌렸으니 민주憲政史에 큰 汚點을 찍은 셈이다.

北의 동향은 점점 미묘해져갔다. 6월초순엔 느닷없이 南北총선을 제의했다. 그런뒤 유엔韓委가 礪峴에서 北의 대표와 회담을했으나 北은 유엔韓委의 入北을 거부해버렸다. 北傀는 또 6월16일엔 南勞黨총책 金三龍·李舟河와 北에 억류중인 曺晩植선생의 교환을 제의했다. 전쟁을 앞둔 철저한 僞裝쇼였던 것이다.

6월25일새벽. 북괴는 38線전역에서 물밀듯이 내려왔다. 이른바 한국전쟁이 터진것이다.

美군사고문단의 로버트준장은 6·25직전까지도 北의 침략이 임박한것같다는정보에『전쟁날리없다』며 코웃음쳤다. 아무리 무기를 달래도 美軍은 주질 않았다. 미국의 極東정책은 코앞을 내다보질못했다.

결국 6·25는 터질수 밖에없었다. 기껏 한국의 실정을 알아본다고 덜레스特使가 내한한 것이 6월17일. 그는 申性模국방장관의 안내로 38線시찰도 했으나 그저 둘러보는데만 그쳤다. 22일 離韓한 덜레스는 歸路에 6·25발발에 놀라 東京에서 발이 굳어버렸다.

나는『올 것이 오고야말았구나』하는 심정이었다.

◇6·25勃發 8일전 來韓한 존·F·덜레스 美대통령特使㊧가 軍관계자들의안내로 38線을 시찰하고있다.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畵)

"봉급을 안올려 주면 그만 두겠어요!"
"내가 그만두면, 빈자리를 누구로 메울수있겠어요?!"
"잘들어둬。자네가 그만둬도 빈자리가 남지 않을걸세。"
"그렇게 된다면 계속 붙어있는게 낫겠구나"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盲人학생 漢拏山정복

惡天候뚫고 32명凱歌

강훈련…정상인보다 25분늦어

【濟州=聯】맹인학생32명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한라산등반에 성공했다.

서울맹아학교 교장 심정섭 2학년 박진화군(29)등 32명은 13일상오9시 한라산영실등산코스입구를 출발, 등정4시간15분만인 이날하오1시15분 해발 1천9백55m인 한라산정상을 정복했다.

이들 맹인학생들은 가시거리 5m의 악천후 속에 인솔교사 이길재씨(40)등 교사3명의 인솔로 정상인이 3시간50분에 등반하는 등산코스를 불과 25분을 초과해 등반에 성공함으로써 한라산정상 정복의 꿈을 실현했다.

남학생25명과 여학생7명으로 구성된 이들 맹인학생 한라산등반대는 이날 2년동안의 끈질긴 꿈을 이루었다.

생명의 말씀
CITY-TV : 채널 79
케이블 7
일요일 8 : 30~9AM
MTV : 채널 47
케이블 4
목요일 12 : 30~1PM

주식회사 황용현 부동산

~~~ 새 리스팅 ~~~

도넛샵 :
①주매상 $3500. 6개월된 전망 밝은지역
렌트 : $3000. 10년+10년 옵션. $90000다운
가격 : $180,000
②월순수익 $9000보장. 운영이 간단하고 시간짧음
렌트 : $1,060. 8년+10년옵션. $140,000다운
가격 : $185,000

커피샵
①5일간 영업. 7시부터 5시반까지 오픈.
주매상 : $2,500. 렌트 : $1,225. 3년+3년옵션
가격 : $75,000

버라이어티 스토아
①주매상 : $5,500. 렌트 : $750. 5년+3년
가격 : $50,000
②주매상 : $6,700. 새로꾸민 전망 밝은가게

넓은 방갈로
(던다스와 Hwy427)교통이 편리하고 벽돌로 된 단층집. 3 베드룸. 파이어 플레이스 2개. 65×170. 뒷 마당크고 잘 단장된 큰 지하실 $65,000다운. 17% 2년간 물개지 잡아줌.
가격 : $164,900

101 DUNCAN MILL RD. SUIT404
DON MILLS, M3B 1Z3
(B) 449-8644, (H) 286-1548

불구자를 고용해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당신이 고용주로서 재능과 야망있고 기술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면, 불구자의 능력을 보십시요.

많은 불구자들은 다양한 비즈네스, 공업부문, 무역업, 전문직종에 경험을 갖고 있읍니다. 그들은 열성적이고, 자신감에 넘쳐있으며, 많은 경우에도 일반인보다 더욱 생산적인 것이 증명됐읍니다.

어떤 특수한 직업이든 당신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돕기위해, 우리는 뒤에서 대기하고 있읍니다. 즉,

1. 경쟁하여 고용될 수 있는 미리 선발된 신청자들.
2. 그들의 능력과 한계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정보.
3. 당신에게 어떤 비용도 들지않는 시험 작업기간.
4. 만약 필요하다면 초기의 훈련기간 중 임금을 나눌수 있는 훈련비.
5. 새 고용인들에 계속 적으로 적합성을 책임지는 다음 단계의 봉사.
6. 특수한 사람의 일을 할수 있도록 특별 설치물이나, 구조적인 수정에 대한 재정적 보조.

우리는 온타리오내 모든 주요센터에 전문적인 상담인을 갖고있으며, 당신이 필요한 직원을 훈련시키거나, 찾는 것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읍니다.

보다 더 소식을 원하거나, 무료책자 "당신의 필요한 스탭"을 원하는 분은 (416) 965—7252로 전화하십시요. 또는 아래 주소로 편지하십시요.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
Communications Branch, 7th Floor,
Hepburn Block, Queen's Park,
Toronto, Ontario M7A 1E9

온타리오 정부—주민을 돕기위해 일하는.

"불구자를 위한 국제적인 해"
1981

Ministry of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
Ontario
Frank Drea, Minister
William Davis, Premier
~~~